



# 육아행복 국제비교 연구

: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이재희·박창현·박은영·최지예





연구보고 2019-11

# 육아행복 국제비교 연구

: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박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최 지 예** (요크대학교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11

**육아행복 국제비교 연구**  
: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발행일 2019년 1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리드릭 02) 2269-191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06-7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출산 정책의 목표였던 출산율·출생아 수 증가에서 벗어나 20-40대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정책 주안점도 단순 보육 지원이 아니라 일·생활균형 강화와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단순 유인책 제시만으로는 더 이상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결과이다. 특히, 출산한 부모의 삶의 질 저하 문제는 꾸준히 지적 되었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성인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가정의 화목과 부부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보다 일을 중시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기도 하고, 양육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회피하는 경향도 보인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위의 변화를 반영한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제도 등은 출산 결정과 부모의 행복,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잘 갖춰진 양육지원 정책, 근로시간단축 및 일·가정양립 정책을 포함한 노동정책 등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행복감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출산·육아 가구의 행복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양육지원 및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 목차

요약	1
<b>I. 서론</b>	<b>9</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4
3. 연구 방법	14
<b>II. 연구의 배경</b>	<b>27</b>
1. 육아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정의	29
2. 삶의 질 개념	34
3. 삶의 질 지표 및 측정	38
4. 주요 삶의 질 지표 국가별 순위	47
<b>III. 한국 부모의 삶의 질</b>	<b>55</b>
1. 삶의 질	57
2. 공공서비스 질	82
3. 사회 질	95
4. 환경의 질	111
5. 소결	119
<b>IV. 부모의 삶의 질 국제비교</b>	<b>123</b>
1. 확인적 요인분석	125
2. 국제 비교 결과	132
3. 상관분석 결과	145

---

<b>V. 정책제언</b>	<b>149</b>
1. 연구결과의 요약 .....	151
2. 정책 방향 및 개선 과제 .....	153
<b>참고문헌</b> .....	<b>161</b>
<b>Abstract</b> .....	<b>171</b>
<b>부록</b> .....	<b>173</b>

---



## 표 목차

〈표 Ⅰ-3-1〉 유럽 삶의 질 조사 표본 영역 .....	15
〈표 Ⅰ-3-2〉 유럽 삶의 질 조사 영역 .....	17
〈표 Ⅰ-3-3〉 가계동향조사 자녀가 있는 가구 특성 .....	17
〈표 Ⅰ-3-4〉 조사 가구 특성 .....	19
〈표 Ⅰ-3-5〉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	21
〈표 Ⅰ-3-6〉 심층면담 참가자 .....	23
〈표 Ⅱ-2-1〉 삶의 질 개념 확장 .....	35
〈표 Ⅱ-2-2〉 국내 학자가 정의한 삶의 질 정의 .....	36
〈표 Ⅱ-3-1〉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	39
〈표 Ⅱ-3-2〉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Where-to-be-born) .....	40
〈표 Ⅱ-3-3〉 유럽연합 삶의 질 지표 .....	40
〈표 Ⅱ-3-4〉 유럽의 삶의 질 조사(EQLS) .....	42
〈표 Ⅱ-3-5〉 OECD Better life index .....	43
〈표 Ⅱ-3-6〉 USnews 삶의 질 지표 .....	45
〈표 Ⅱ-3-7〉 국민 삶의 질 지표 .....	45
〈표 Ⅱ-4-1〉 인간개발지수 국가별 순위 .....	47
〈표 Ⅱ-4-2〉 OECD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순위(전체) .....	49
〈표 Ⅱ-4-3〉 OECD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순위(하위 영역 1) .....	50
〈표 Ⅱ-4-4〉 OECD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순위(하위 영역 2) .....	51
〈표 Ⅱ-4-5〉 USnews 삶의 질 영역 국가별 순위 .....	53
〈표 Ⅲ-1-1〉 삶의 만족도, 행복도, 교육수준 만족도 .....	58
〈표 Ⅲ-1-2〉 현재 직업만족도, 현재 생활수준 만족도, 거주하는 집 만족도 .....	59
〈표 Ⅲ-1-3〉 거주하는 집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	60
〈표 Ⅲ-1-4〉 나의 미래,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 삶 속에서의 가치 .....	61
〈표 Ⅲ-1-5〉 내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 즐거운 일을 할 시간 여유 .....	63
〈표 Ⅲ-1-6〉 중요한 문제의 대처, 회복 .....	64
〈표 Ⅲ-1-7〉 자녀와의 행복, 기쁨, 양육 자신감 .....	67
〈표 Ⅲ-1-8〉 양육 스트레스 .....	68
〈표 Ⅲ-1-9〉 일·가정양립 .....	72

---

〈표 Ⅲ-1-10〉 주거 시설 문제 .....	75
〈표 Ⅲ-1-11〉 사회적 교류에 원하는 시간 투자 정도 .....	77
〈표 Ⅲ-1-12〉 전반적 건강상태 .....	78
〈표 Ⅲ-1-13〉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일상 활동 제약 ..	79
〈표 Ⅲ-1-14〉 우울 위험 .....	80
〈표 Ⅲ-2-1〉 공공서비스의 질1 .....	82
〈표 Ⅲ-2-2〉 공공서비스의 질2 .....	83
〈표 Ⅲ-2-3〉 의료 서비스 수준 .....	85
〈표 Ⅲ-2-4〉 일반병원 또는 보건소 이용의 어려움 .....	86
〈표 Ⅲ-2-5〉 보육 만족도1 .....	87
〈표 Ⅲ-2-6〉 보육 만족도2 .....	88
〈표 Ⅲ-2-7〉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금전적 부담감 .....	90
〈표 Ⅲ-2-8〉 교육 만족도1 .....	91
〈표 Ⅲ-2-9〉 교육 만족도2 .....	93
〈표 Ⅲ-3-1〉 사회적 불안정성 .....	95
〈표 Ⅲ-3-2〉 집단 간 갈등 .....	97
〈표 Ⅲ-3-3〉 신뢰1 .....	98
〈표 Ⅲ-3-4〉 신뢰2 .....	99
〈표 Ⅲ-3-5〉 신뢰3 .....	100
〈표 Ⅲ-3-6〉 아플 때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경우 도움 주체 .....	102
〈표 Ⅲ-3-7〉 중요한 개인적 문제 혹은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에 대한 주체 ..	103
〈표 Ⅲ-3-8〉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 주체 .....	104
〈표 Ⅲ-3-9〉 자녀 돌봄 도움 주체 .....	105
〈표 Ⅲ-3-10〉 배우자와 자녀 보육에 투자하는 시간 동일 여부 .....	106
〈표 Ⅲ-3-11〉 자녀 돌보기 또는 자녀 교육(남자) .....	107
〈표 Ⅲ-3-12〉 자녀 돌보기 또는 자녀 교육(여자) .....	108
〈표 Ⅲ-3-13〉 요리 또는 집안일(남자) .....	109
〈표 Ⅲ-3-14〉 요리 또는 집안일(여자) .....	110
〈표 Ⅲ-4-1〉 소음 .....	111
〈표 Ⅲ-4-2〉 대기의 질 .....	113
〈표 Ⅲ-4-3〉 길거리에 놓인 쓰레기 .....	114
〈표 Ⅲ-4-4〉 극심한 교통량 .....	115
〈표 Ⅲ-4-5〉 편의시설 접근성 .....	116

---

---

〈표 Ⅲ-4-6〉 치안 .....	118
〈표 Ⅳ-1-1〉 모형 적합도 지수 .....	128
〈표 Ⅳ-1-2〉 보육의 질 포함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28
〈표 Ⅳ-1-3〉 교육의 질 포함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30
〈표 Ⅳ-2-1〉 국가별 1인당 주당 근로시간, 1인당 GDP .....	132
〈표 Ⅳ-2-2〉 국가별 1인당 주당 근로시간, 1인당 GDP .....	133
〈표 Ⅳ-2-3〉 주관적 웰빙, 생활수준, 주거 순위 .....	135
〈표 Ⅳ-2-4〉 건강, 일·가정양립 순위 .....	137
〈표 Ⅳ-2-5〉 보건의료, 보육 질, 보육 비용 순위 .....	138
〈표 Ⅳ-2-6〉 보육 비용, 교육 질 .....	139
〈표 Ⅳ-2-7〉 사회적 불안정성, 신뢰 및 갈등, 치안 .....	141
〈표 Ⅳ-2-8〉 가사 분담 순위 .....	142
〈표 Ⅳ-2-9〉 환경의 질 .....	144
〈표 Ⅳ-2-10〉 상관분석 결과 .....	146

---



## 그림 목차

[그림 II-2-1] 사회 질 모형 .....	38
[그림 II-3-1] OECD Framework for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	43
[그림 IV-1-1] 보육의 질을 포함한 모형 .....	126
[그림 IV-1-2] 교육의 질을 포함한 모형 .....	127
[그림 V-2-1]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 .....	153

---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회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출산은 부모의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고 심리적 웰빙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출산·육아 가구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양육지원 및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EU의 삶의 질 지표를 토대로 한국 부모의 삶의 질의 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자녀 양육 시기의 부모의 행복, 삶의 질을 진단하고 양육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 전반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목적임

### 나. 연구내용

- 국내·외 육아행복, 부모 행복,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육아 행복, 삶에서 자녀의 가치, 자녀 양육시기에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분석
- 부모의 삶의 질 조사를 토대로 EU국가와 한국의 부모의 삶의 질 수준 국제비교 실시
- 부모의 삶의 질의 국제비교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족 정책과 육아정책의 개선점 모색

###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육아 행복,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및 주요 삶의 질 지표와 측정방법에 대한 조사 실시
- 유럽 삶의 질 조사 문항을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응답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유럽 삶의 질 조사 결과와 한국 조사 결과 비교
  - 표준화 과정을 거쳐 국제비교를 실시
- 심층면담
  - 영유 자녀가 있는 부부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국제비교와 연계하여 분석을 실시함

## 2. 연구배경

### 가. 육아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정의

- 육아행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양육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됨
- 하지만 일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육아가 부모의 정서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됨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만족, 부모로서의 정체성, 관계형성과 같은 긍정적이 보상도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짐
-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울증, 결혼 만족도,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부부 역할 갈등 등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나. 삶의 질의 개념

- 삶의 질은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 가치 시스템 맥락에서 개인의 목표, 기대, 기준, 관심사와 관계된 인식으로 정의함
-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발되면서 삶의 질과 개념적 중첩성이 있지만 변별적인 개념인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음

## 다. 삶의 질 지표 및 측정

- 삶의 질 측정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임
- 대표적으로 UN의 인간개발지수(HDI),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 유럽연합의 삶의 질 지표, 유럽의 삶의 질 조사, OECD Better life index, USnews 삶의 질 지표 등이 있음
- 한국의 인간개발 지수의 순위(2017년)는 22위였으며 OECD Better life index(2017년)는 30위였음
- OECD Better life index를 하위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주택 28위, 소득 29위, 직업 27위, 사회적 지원체계 37위, 교육 27위 환경 34위, 시민참여 24위, 건강 34위, 생활만족도 31위, 안전 29위, 일·생활균형 35위였음

## 3. 한국 부모의 삶의 질

### 가. 삶의 질

-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 중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 행복도, 정신/건강 웰빙 수준이 낮았으며 즐거운 할 시간 부족, 중요한 문제의 대처의 어려움, 잘못된 일에 대한 회복 어려움, 우울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음
- 심층면담 결과 출산과 임신은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여가 시간 부족, 육아로 인한 피로도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음
- 조사에 응답한 절반 이상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로 인해 일·가정양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 나. 공공 서비스의 질

- 공공서비스 질 중에서 보건의료와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육아서비스와 교육, 국민연금보다 높았음
-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방병원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으며, 심층면담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소아 응급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보육만족도와 비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만족도 낮았고 보육 비용도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음
- 심층면담 결과 한국 사회 교육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심하게 경쟁적인 교육 구조와 과정, 이로 인한 사고 사교육 문제, 교육 비용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음

## 다. 사회의 질

- 심층면담 결과, 사회적 불안정성에서 직장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음
- 사회갈등 중 빈곤층과 부유층의 갈등수준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갈등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라. 환경의 질

- 심층면담 결과 자녀를 키우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 문제 중 대기의 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해 자녀 건강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참가자가 많았음

## 4. 부모의 삶의 질 국제비교

### 가. 확인적 요인분석

- 설문조사 응답에 따라 보육 질 포함모형, 교육 질 포함모형으로 구분하여 한국 자료를 포함하여 유럽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나. 국제비교 결과

- 우리나라의 주당 근로시간은 1위였으며, 1인당 GDP는 13위,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31위, 출산율은 30위였음
- 삶의 질 하위 요인의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 32위, 생활수준 22위, 주거 32위, 건강/정신 웰빙 34위, 일·가정양립은 29위였음
- 공공서비스 질 하위요인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9위, 보육의 질 18위, 보육 비용 31위, 교육의 질 30위였음
- 사회질의 하위요인 국제비교 결과, 사회적 불안정성은 17위, 신뢰 및 갈등은 33위, 자녀 돌봄 분담 26위, 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은 9위였음
- 환경의 질 하위요인 국제비교 결과, 지역사회 환경문제 34위, 편의시설 접근성 10위, 치안 13위였음

### 다. 상관분석 결과

- 삶의 질 1차 요인과 주요 경제사회 지표를 포함하여 상관 분석한 결과 주관적 웰빙은 대부분의 삶의 질 하위요인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 주거, 건강/정신 웰빙, 일·가정양립 순으로 상관계수가 높았음
- 주당 근로시간은 주관적 웰빙, 일·가정양립, 생활수준 순으로 음의 상관계수가 높았음
- 삶의 질 변수 중 출산율과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요인은 신뢰 및 갈등이었음

## 5. 정책제언

### 가. 한국 부모의 삶의 질 문제점

- 부모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 소득이었으며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생활수준, 주거, 교육, 직업만족도 건강/정신 웰빙 등이 모두 낮았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관적 웰빙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도, 행복, 건강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증상 등이 높았음
- 부모의 삶의 질이 저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이었으며 우리나라는 EU의 다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근로시간과 삶의 질 하위변수인 주관적 웰빙, 건강, 일·가정양립 등과 음의 상관관계였음

### 나. 정책 방향 및 개선과제

-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목표, 과제들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과 삶의 질 하위 요인들과 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근로시간이 높을수록 삶의 질 요인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 문제가 보육의 질, 남녀 가사분담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에 더 무게를 두어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불평 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회주택 확대 등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 강화가 필요함
- 보육비 부담 경감,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늘리고 공교육·보육을 강화해야함
-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부분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직업불안정성인 만큼 자녀 가구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육아휴직 사용 등 일·가정양립 문제는 기업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출산·양육 친화 기업의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야함



#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중앙일보, 2018. 7. 5). 기존의 출산 정책의 목표였던 출산율·출생아 수 증가에서 벗어나 20-40대 삶의 질을 향상으로 전환하고 정책 주안점도 단순 보육 지원이 아니라 일·생활균형 강화와 모든 출생을 존중하는 정책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취지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7). 또한 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도 더 이상 출산율 올리기에 급급하지 않고 정책패러다임을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 확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디지털타임스, 2018. 12. 7).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출산에 따른 단순 유인책 제시만으로는 더 이상 출산율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출산한 부모의 삶의 질 저하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성인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가정의 화목과 부부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주로 언급되는 부분은 부모가 됨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만족과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의미, 새로운 타인과 관계 형성, 사랑, 재미 등이다(Schoen, Kim, Nathanson, Fields, & Astone, 1997; Umberson & Gove, 1989).

하지만 최근 사회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출산은 부모의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고 심리적 웰빙을 저하시킨다고 밝혀졌다(Kohler, Behrman, & Skytthe, 2005; 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Margolis와 Myrskylä(2015)가 독일사회경제패널 연구(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1984년부터 2010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주관적 행복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번째 자녀의 육아가 힘들었던 가구는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높고 늦은 나이에 출산한 경우 둘째자녀를 꺼리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cLanahan과 Adams(1989)는 출산 후 부모의 심리적 웰빙 수준의 하락은 1970년대부터 발생한 사회변화인 남성 임금소득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부모됨, 출산 양육의 가치의 중요성 보다는 양육의 어려움(정미라·김지원·이영은, 2015), 양육 스트레스(김진이, 2018) 등 출산과 육아가 부모의 정서적 웰빙,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여성은 양육이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일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정신 건강 분야의 학자들은 스트레스 이론을 근거로 자녀로 인한 정서적 보상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McLanahan & Adams, 1989).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더 이상 온전하게 긍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전술한 생애 과업인 부모가 되는 것을 완수하는 것이 성인의 건강과 행복의 발전과 유지에 중요하다는 전통적인 가치관(Hansen, 2012)과는 모순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청년층의 가족관련 가치의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에 기인한다(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김의철 외(2005)에 따르면 과거 세대 부모됨에 비해 최근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가족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녀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제약에 민감하다. 즉, 과거 세대에는 자녀의 숫자가 가족의 화목함이 인생 성공의 척도로 작용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수가 개인의 인생 성공의 척도가 아니며 개인의 건강과 윤택한 삶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게 최근에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제도, 지원이 등은 출산율은 물론 부모의 행복,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잘 갖춰진 사회의 양육지원 체계, 근로시간 및 일·가정양립 정책을 포함한 노동정책 등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Savolainen, Lahelma, Silventionen & Gauthier, 2001). 몇몇 연구에서는 도시 또는 국가에 따라 부모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였다(Kahneman, Schkade, Fischler, Krueger & Krilla, 2010; Ono & Lee, 2013).

하지만 아직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의 질을 국가별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지표로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등 총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 국제 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수명, 불평등, 성평등 등을 비교하기 위한 인간발달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Inequality Adjusted HDI; Gender Inequality Index), 사회진보조사기구(SPI)에서 기본욕구, 웰빙, 기회의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진보지표(Social Progress Index) 등이 있다(정해식·김성아, 2015). 관련 지표들은 육아 행복 또는 자녀 양육 시기의 부모의 삶의 질과 전혀 무관한 지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 전반의 삶의 질을 측정된 지표로 부모가 되는 시기에 발생 되는 독특한 생애 과업과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출산 및 육아 가구의 삶의 질, 결혼-출산-육아 행복에 연결고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육아와 밀접한 지표를 개발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출산·육아 가구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양육지원 및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자녀 양육 시기의 부모의 행복, 삶의 질을 진단하고 양육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 전반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EU의 삶의 질 지표를 토대로 육아행복보다 광의의 개념인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해서 국제 비교를 실시하였다.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부모의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의 양육지원 및 관련 가족 정책의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육아 행복, 부모 행복,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육아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육아 행복, 삶에 있어서 자녀의 가치, 자녀 양육 시기에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육아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서 파악한다.

넷째, 국가별 부모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 국제 비교를 실시한다.

다섯째, 부모의 삶의 질의 국제비교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와의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족 정책과 육아정책의 개선점을 찾는다.

여섯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육아가 행복하고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조사 및 관련 지표 탐색

육아 행복, 부모의 삶의 질, 부모됨 등 본 연구에 부합되는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한다. 또한 행복, 삶의 질 지표 등 관련 지표의 측정 방법, 측정 요인, 지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 나. 삶의 질 조사(유럽 삶의 질 조사 문항 활용) 및 분석

#### 1) 유럽 삶의 질 조사 특성

육아 행복 지표 개발과 국제 비교를 위해 유럽 삶의 질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유럽 삶의 질 조사는 유럽인들의 삶의 조건,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조사이다(Eurofound, 2016). 2003년부터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4년~5년 주기로 조사가 이뤄진다. 최근 조사는

2016년도에 실시되었으며 EU에 가입된 28개 국가와 EU 가입 후보국인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를 포함하여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Eurofound, 2016).

유럽 삶의 질 조사는 18세 이상 유럽 성인이 목표 모집단이고 한 국가에서 6개월 미만 거주했거나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가 능숙하지 못하거나 감옥, 군대 등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Eurofound, 2016: 6). 유럽 삶의 질 조사는 개인수준, 가구수준, 주소수준 등록 자료를 사용하거나 무작위로 방문하는 방식(random-walk)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Eurofound, 2016: 6). 국가차원의 표본은 지역과 도시화 정도에 따라 계층화하여 진행하였다(Eurofound, 2016: 6). 또한 각 계층의 모집단에 비례하여 일차 표본 추출 후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Eurofound, 2016: 6). 조사 표본을 설계하기 위해서 유럽 각 국가의 대표적인 가구 및 주소 등록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다(Eurofound, 2016: 6). 표본추출 단계는 주요 샘플링 유닛을 선정, 주요 샘플링 유닛의 주소 선정, 각 주소에서 가구를 선택, 마지막 단계에서 가구에서 응답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순서이다(Eurofound, 2016: 6).

2016년 조사의 표본은 각 국가별로 1,000~2,000명 수준이다. 전체 표본 중 만 9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약 15%, 만 12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약 19%였다.

〈표 I-3-1〉 유럽 삶의 질 조사 표본 영역

국가	2016년 유럽 삶의 질 조사 표본		
	전체	만 9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만 1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오스트리아	1,181	276	328
벨기에	1,017	150	184
불가리아	1,016	105	131
키프로스	1,009	172	216
체코	1,014	103	130
독일	1,631	176	217
덴마크	1,020	157	199
에스토니아	1,001	142	169
그리스	1,096	137	178
스페인	1,005	169	202

국가	2016년 유럽 삶의 질 조사 표본		
	전체	만 9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만 1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핀란드	1,052	125	147
프랑스	1,198	239	305
크로아티아	1,011	158	203
헝가리	1,042	117	156
아일랜드	1,011	200	243
이탈리아	2,007	251	333
리투아니아	1,005	118	134
룩셈부르크	1,021	212	257
라트비아	1,000	101	119
몰타	1,000	120	147
네덜란드	1,010	145	185
폴란드	1,009	145	188
포르투갈	1,070	120	158
루마니아	1,004	103	131
스웨덴	1,053	168	189
슬로베니아	1,003	126	155
슬로바키아	1,019	93	121
영국	1,304	249	292
알바니아	1,011	158	218
몬테네그로	1,000	151	186
마케도니아	1,013	157	187
세르비아	1,056	146	204
터키	2,019	321	424
전체	36,908	5,310	6,636

자료: 전체 표본은 Eurofound(2016). Survey management and development,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2016: Technical and fieldwork, p.5의 내용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 표본은 연구진이 원자료를 가중치 없이 분석한 자료임.

삶의 질 조사 영역은 크게 3영역으로 구분된다(Eurofound, 2016). 삶의 질 영역은 주관적 웰빙, 낙관, 건강, 생활수준, 사회적 박탈,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의 질은 사회적 불안, 사회적 배척과 사회적 긴장감, 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 참여와 지역사회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서비스의 질은 건강관리, 장기요양, 육아 및 기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3-2〉 유럽 삶의 질 조사 영역

영역	하위 요인
삶의 질	주관적 웰빙, 낙관, 건강, 생활수준, 사회적 박탈, 일과 삶의 균형
사회의 질	사회적 불안, 사회적 배척과 사회적 긴장감, 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 참여와 지역사회 참여, 훈련/평생 학습에 대한 참여
공공서비스 질	건강관리, 장기요양, 육아 및 기타 공공서비스

자료: Eurofound 홈페이지.(<https://www.eurofound.europa.eu/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2016>, 2019. 6. 30. 인출)

## 2) 표본설계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만 12세 이하 자녀로 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모집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문회의를 거쳐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특성을 잘 제시해 주는 가계동향조사 자료(2018년도 4/4분기 자료)를 선정하여 조사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표본설계 시 주요 고려 변수는 맞벌이 가구 비율, 도시/읍면지역 비율, 소득이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2세 자녀가 있는 가구 수는 총 3,994,652 가구이며 맞벌이 비율은 41.5%, 도시(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87.5%, 소득 300만원 미만은 18.1%, 300만원~500만원 미만은 38.5%, 500만원 이상은 43.4%였다.

본 조사의 표본 수는 유럽 삶의 질 조사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표본 수를 고려하여 300가구를 목표로 하였다.

〈표 I-3-3〉 가계동향조사 자녀가 있는 가구 특성

변수	구분	가구 수	비율
맞벌이	맞벌이	1,656,625	41.5
	외벌이	2,338,027	58.5
도시·읍면	도시(동부) 지역	3495000	87.5
	읍면	499,652	12.5
소득	300만원 미만	721,881	18.1
	300만원~500만원 미만	1,537,589	38.5
	500만원 이상	1,735,183	43.4
합계		3,994,652	100

주: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임  
 자료: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https://mdis.kostat.go.kr>, 2019. 8. 21. 인출)

### 3) 가중치

실제 조사에서 표본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우선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각 층(3개)에 대하여 추출률의 역수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j$ 번째 가구에 대한 기본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j = 1, \dots, n$ ;  $n$ =가구의 전체 표본크기).

$$W_{j(a)} = \frac{N_a}{n_a}$$

여기서  $N_a$ 와  $n_a$ 는 각각 ( $a$  번째 가구 유형)에 대한 모집단크기와 표본크기를 나타낸다.

가구소득 외에 도시규모와 맞벌이여부를 고려하여 RIM(random iterative method)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응답자들의 가구소득, 도시규모, 맞벌이여부별 모집단크기의 주변비율과 가중치의 해당 주변 비율이 같아지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시규모별 주변비율 조정

$$W_{j(b)} = W_j \times \frac{N_b}{n_b}$$

여기서  $n_b$ 와  $N_b$ 는 각각 ( $b$  번째 도시규모)에 대한 표본크기와 모집단크기를 나타낸다.

#### ② 맞벌이여부별 주변비율 조정

$$W_{j(c)} = W_j \times \frac{N_c}{n_c}$$

여기서  $n_c$ 와  $N_c$ 는 각각 ( $c$  번째 맞벌이여부)에 대한 표본크기와 모집단크기를 나타낸다.

#### ③ 가중치에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위의 ①~② 과정을 반복한다.

## 4) 조사 표본 수

조사된 총 표본 수는 300 가구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녀가 동일하게 150명이었으며 연령 기준으로 살펴보면 30-39세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49세 30.6%, 50세 이상 13.3% 순이었다. 자녀 수는 2명인 가구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인 가구가 37.7%, 3명 이상인 가구가 9.8%였다.

거주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58.4%, 중소도시 29.1%, 읍면이 12.5%였으며 맞벌이는 41.5%, 외벌이는 58.5%였다. 영유아가 자녀가 있는 가구는 58.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55.9%였다.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43.4% 300-500만원 미만 38.5%, 300만원 미만 18.1%였다.

〈표 I-3-4〉 조사 가구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가중 전	가중 후	
전체	(300)	(300)	100.0
성별	남자	(150)	50.0
	여자	(150)	50.0
연령	19-30세 미만	(31)	8.8
	30-39세	(139)	47.3
	40-49세	(90)	30.6
	50세 이상	(40)	13.3
자녀 수	1명	(129)	37.7
	2명	(149)	52.5
	3명 이상	(22)	9.8
거주지	대도시	(202)	58.4
	중소도시	(88)	29.1
	읍면	(10)	1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9)	41.5
	외벌이	(91)	58.5
자녀 취학 여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80)	58.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2)	55.9
가구 소득	300 만 원 미만	(56)	18.1
	300-500만 원 미만	(132)	38.5
	500 만 원 이상	(112)	43.4

## 다. 국제비교

### 1) 확인적 요인분석

부모의 삶의 질 국제 비교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요인구성과 프레임은 Eurofound(2019)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삶의 질 영역을 기초로 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한 요인은 아래와 같다. 잠재변수 중 삶의 질 요인은 거의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건강/정신 웰빙 요인의 측정 변수 중 스포츠와 신체 활동 참여는 부모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하였고, 일-생활 균형 측정문항 중 근로시간 적합도 문항도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제외하였다.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의료 건강, 교육, 대중교통, 보육, 사회적 주거, 연금 등을 총괄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육아, 양육관련 문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건의료 변수, 보육관련 변수, 교육관련 변수를 강화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적 주거 문항은 국가별 정책 차이에 심하게 영향 받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어 제외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연금은 상대적으로 영유아시기 육아, 양육에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사회의 질에서 사회적 불안정성은 직업 불안정, 주거불안정, 노후 불안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고용과 주거 관련 문항은 우리나라 제도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외하였고 민주주의와 경제 상태 만족도 등 사회 구조 안정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신뢰와 갈등 영역은 대부분의 문항을 포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남녀 갈등을 추가하였고 '어두워진 이후로 혼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다'와 관련한 변수는 새롭게 추가한 환경의 질 변수의 치안과 관련된 변수로 추가하였다. 사회의 질 관련 변수 중 사회적 참여 관련 잠재변수는 양육, 육아 등과 관계성이 없고, 한국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삭제 하였다.

추가적으로 2차 요인으로 환경의 질을 추가하였다. 환경의 질 요인은 최근 부모들이 미세먼지,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해 자녀를 기를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 자녀를 기를 때 편의시설이 중요하다는 의견,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한 부모의 불안

감이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새롭게 이차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I-3-5〉 잠재변수 및 측정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이차요인	일차요인	문항번호 (EU 기준)	문항 설명
삶의 질	주관적 웰빙	Q4	삶의 만족
		Q5	행복
		Q7a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
		Q7b	자녀 또는 손자의 미래에 대한 낙관
	생활수준	Q6c	생활수준 만족
		Q88	생계유지 어려움
		Q89	물질 박탈
		Q90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식단 변경
	주거조건	Q25bc	(바닥, 천장, 창문)물이 새거나, 습함
		Q25de	변기와 샤워시설 부족
		Q89a	냉난방
	건강/정신 웰빙	Q48	자기 평가 건강
		Q51	WHO 웰빙 지표
		Q52	우울 위험
	일과 삶의 균형	Q20a	퇴근 후 피로
		Q20b	업무로 인한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 수행 어려움
Q20c		가족 구성원 책임 수행으로 인한 업무 집중 어려움	
공공서비스 질	보건의료 질	Q58a	의료 서비스 만족도
		Q59a	일반 병원 및 보건소 서비스 질
		Q59b	대형(종합) 병원 서비스 질
	보육 질	Q58d	돌봄서비스 만족도
		Q81a	시설의 질
		Q81b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Q81c	교사의 관심
		Q81d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보육 비용	Q81e	커리큘럼 및 활동
		Q82	금전적 부담
	교육 질	Q58b	교육 시스템 만족도
		Q85a	시설의 질
		Q85b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Q85c	교사의 관심
		Q85d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Q85e	커리큘럼 및 활동		
사회의 질	사회적 불안정성	Q41	노후 수입에 대한 걱정
		Q32	현재 경제상태 만족도

잠재변수		측정변수	
이차요인	일차요인	문항번호 (EU 기준)	문항 설명
	신뢰와 갈등	Q31	민주주의 만족도
		Q33	타인에 대한 신뢰
		Q35e	정부에 대한 신뢰
		Q35f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Q34a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
		Q34c	남녀 갈등
	성평등	Q34e	인종 간 갈등
		Q42a	자녀 돌보기 또는 자녀 교육 참여
환경 질	지역사회 환경문제	Q42b	요리 또는 집안일 참여
		Q54a	소음
		Q54b	대기의 질
		Q54c	쓰레기
	편의시설 접근성	Q54d	교통량
		Q56a	은행 시설(예. 은행 지점, ATM 등)
		Q56b	대중교통 시설(예. 버스, 지하철, 트램, 기차 등)
		Q56c	영화관, 극장 또는 문화 시설
		Q5d	휴양지 또는 녹지 지역
	치안	Q56e	식료품 가게 또는 슈퍼마켓
		Q55a	해가 진 후 혼자 다닐 때 안전 정도
		Q55b	밤에 혼자 있을 때 안전 정도

## 2) 국제비교

각 요인의 국제비교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다. 우선 각 측정변수의 척도가 다른 경우는 z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양의 값이 높을수록 선한 정도(degree of goodness)가 높도록 보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각 국가의 평균은 전체 국가의 평균 10, 표준편차 2의 값으로 변환하여 순위를 산출하였다.

## 라. 심층면담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목적은 전술한 부모의 삶의 질 조사를 보완하여 결혼, 주거환경, 가계경제, 자녀 양육 및 교육, 삶의 만족도, 우리나라의 육아문화에 특수성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심층면담 결과는 삶의 질 조사의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심층면담 내용은 결

혼과 관련해서는 결혼 후 달라진 점, 부부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결혼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살고 있는 주거공간의 만족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가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득대비 생활비, 육아비용 적정정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녀를 낳고 생활상 달라진 점, 주변에 양육 도움정도, 양육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육아를 하는 삶에 만족하는지 정도, 육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양육문화, 자녀에 대한 가치 인식, 저출산과 육아행복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표 I-3-6〉 심층면담 참가자

면담자	연령	자녀 수	직업	비고
부1	39	영유아 1명, 임신 중	사무직	맞벌이
모1	38		교사	
부2	40	영유아 1명	사무직	맞벌이
모2	37		사무직	
부3	35	영유아 2명	자영업	외벌이
모3	33		주부	
부4	38	영유아 2명	사무직	맞벌이
모4	38		사무직	
부5	37	영유아 2명	사무직	맞벌이
모5	35		사무직	
부6	37	영유아 2명	사회복지사	저소득 맞벌이
모6	37		프리랜서	

## 마. 전문가 자문회의

유럽 삶의 질 조사에 대한 번역 및 재번역 과정 검토와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문회의를 통해 심층면담과 삶의 질 조사의 관계성, 심층조사 면담 문항 구성, 조사 표본설계, 사후가중치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 바. 본 연구의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육아행복을 부모의 삶의 질로 개념을 확장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모의 삶의 질로 확장해서 진행된 이유는 육아 행복이란 개념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행복이란 개념 역시 학술적으로 모호하고 정의가 논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연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자녀 양육 시기에 부모들의 총괄적인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을 부모의 삶의 질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2장의 1절 선행연구 부분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 사.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 목적은 전술하였듯이 유럽 삶의 질 조사의 문항과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국제 비교를 진행하는데 있다.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 개발된 조사이고 4~5년 주기로 4번에 걸쳐서 반복 검증 제작되었기 때문에 문항의 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 비교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 받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이민자까지 고려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은 최소화 하였다.

하지만 유럽 삶의 질 조사 자체가 18세 이상 성인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이기 때문에 육아에 특화된 영역이 다소 부족하다. 또한, 비교 시점이 유럽의 경우에는 2016년도, 본 조사는 2019년도로 차이가 있고, 연구의 예산 제약 때문에 정교한 조사 설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측정 문항 등은 대부분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 산출된 국제비교 순위는 객관적 비교가 아니라 각 국가의 거주하는 사람들의 각 해당 변수의 주관적 인식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 II

## 연구의 배경

- 01 육아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정의
- 02 삶의 질 개념
- 03 삶의 질 지표 및 측정
- 04 주요 삶의 질 지표 국가별 순위



## II. 연구의 배경

### 1. 육아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정의

#### 가. 부모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출산과 육아는 부모와 양육자에게 인생의 새로운 과업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사건과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출산과 육아는 삶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와 주관적 웰빙, 행복과의 관계성을 다룬 연구는 주로 양육 스트레스 초점을 맞췄다(강현경, 2014; Koeske & Koeske, 1990). 예를 들면 강희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관, 보육만족도와 보육비용 등이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었다. 손수민(2012)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취업모가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양육비용, 육아정보선택,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책임감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외에도 자녀 장애(Dyson, 1991), 부모 수용성 및 아동 적응(Landreth & Lobaugh, 1998), 배우자 지지 및 아버지 양육참여(채선미·강희선·이한주·신현숙, 1999; 허보윤·한경자, 2009) 등이 선행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수였다.

정신 건강 이론(Pearlin, 1989)에 따르면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노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노출이 우울증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부모의 삶의 만족도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우울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Webster-Stratton & Hammond, 1988). 박지선·유영주(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모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산과 육아는 다양한 경로로 양육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는 수면부족을 발생하게 하고(Avison, Ali & Walters, 2007),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고(조명희·김세현, 2017), 취약한 가구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충분한 영양공급, 교육,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Edin & Kefalas, 2005). 일반 가구에서도 양육비용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권미경, 2011). 다수의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혜, 1994; 이재혁·김희영·이종화, 2007; 채선미 외, 1999; Gelman & King, 2001). 최근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정서적 웰빙 수준이 낮다는 결과들까지 발표되고 있다(Aassve, Goisis, & Sironi, 2012; Kohler et al., 2005).

하지만 육아가 부모의 정서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보상도 있다. 부모가 됨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만족,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의미, 새로운 타인과 관계형성, 사랑, 재미 등이다(Schoen et al., 1997; Umberson & Gove, 1989). 그리고 자녀는 노년의 외로움과 우울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에 가장 큰 기쁨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opecjy-Cox & Pendell, 2007). 또한 자녀의 존재는 부부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결혼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tanley, Edwards & Hatch, 200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지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환경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어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양육자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나. 부모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양육자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전술한 양육 스트레스가 대표적으로 양육자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이다. 이외에 양육자의 개인적 요인으로 양육자의 자신감, 우울증, 결혼만족도 등이 언급된다(김진이, 2018; 손수민, 2012). 이외에 부부갈등, 유아 특성, 사회적 지원, 성역할 가치 등도 양육자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이, 2018; 오민아·변길진·권정윤, 2018; 정계숙·최은실, 2012; 정미라 외, 2015). 주요 관련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진이(2018)는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 행복감과 양육행동 및 가족 기능의 상대적인 영향력 탐색 및 관련 변수 간의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아의 행복감, 온정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와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가족 기능(가족 응집력의 균형, 가족 유연성의 균형)은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며, 가족 유연성의 균형을 조절 효과가 가족 응집력의 균형을 조절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어머니 우울증 및 양육 스트레스였다. 반면 일반 가정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변수는 자아존중감, 부부갈등, 어머니 우울증, 어머니 결혼만족도, 지역 만족도, 사회적 지원 등이었다.

정계숙·최은실(2012)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심리적 요인, 관계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기(만 2세~만 6세)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어머니의 직업 유무만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 반면, 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우울), 관계적 요인(사회적지지·결혼만족도)은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와 모두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 관계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관계적 요인(사회적 지원, 결혼 만족도)은 자아존중감과 함께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설명 변수였으며, 그 중 사회적 지원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한국 어머니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는 심리적 요인 및 관계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황혜원·신정아(2009)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 정도와 역할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탐색하였다. 0~13세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질 변수는 평등성, 배우자의 지지, 직업만족, 사회적 지지 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역할갈등, 우울, 어머니의 취업 영향 변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양육과 관련하여 부부가 평등한 역할관 지니고 있고, 배우자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직업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역할갈등이 높고, 우울감이 높으며, 어머니의 취업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일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정미라 외(2015)는 12개월 자녀를 둔 초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양육의 실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러한 경험은 어머니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생후 12개월의 첫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7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독립된 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활동량의 증가와 분리불안, 떼쓰기 등으로 인하여 당혹감과 고민이 늘어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 되어 체력적인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의 신체적 성장 및 교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며, 또래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녀와 또래 친구를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반면 자녀의 애교 행동과 성장 관찰 등은 육아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이 클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는 취업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것인지, 전업주부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이유로 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민아 외(2018)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와 양육분담이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양육부담과 성역할 가치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 두 변수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

이었다. 아버지의 양육분담 수준과 양성평등한 성역할 가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며 맞벌이 아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육아 행복과 부모의 삶의 질

앞서 살펴보았듯이 육아 행복과 관련된 연구는 양육 스트레스, 양육자 행복감, 부모의 행복, 어머니 행복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육아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육아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아이의 신체적 발육과 지적 교육, 정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두산백과)<sup>1)</sup>”이다. 행복은 경제학 관점에서는 물질적인 부분을 풍요롭게 하는 것(Anielski, 2007)인 반면, 심리학 관점에서는 주관적 만족감, 안녕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Diener, 1984). 철학적 배경에서는 가치와 윤리 부분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다. 즉, 학자마다 관점에 따라 설명방법과 개념의 포괄 범위가 달라진다(Cahn, & Vitrano, 2007).

이러한 두 개념의 조합인 육아 행복을 정리하면 자녀를 기르는 시기의 부모 혹은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웰빙을 비롯한 개인 가치, 사회 경제적 배경 등이 포괄된 매우 복잡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육아 행복을 교사, 조부모 등 대리 양육자 보다는 주로 부모가 느끼는 주관적 웰빙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개별 가구 내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사점까지만 도출했을 뿐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 정책 환경과 관련된 논의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육아 행복은 미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환경, 공공정책 등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요인과의 관계성이 있다(Pollmann-Schult, 2014). 예를 들면 육아 비용과 관련된 정책은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네이버 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098&cid=40942&categoryId=32182> (2019. 7. 10 인출)

(Pollmann-Schult, 2014). 육아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것도 부모의 주관적 웰빙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avolainen et al., 2001). 특히 Glass, Simon과 Andersson(2016)은 유럽 사회조사(the European Social Surveys)와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데이터를 활용하여 OECD 국가 간 부모 행복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 정책에 친화적 국가일수록, 보육지원이 우수한 국가일수록,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이 잘 갖춰진 국가일수록 부모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 행복은 개인 또는 가구 등 협소한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개입 가능한 정책, 이를 포함한 육아 환경과 부모의 삶의 질 차원까지 논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행복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삶의 질(한준·강석훈·김석호·서은국·홍중호·이희길·박주연, 2011)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육아 행복을 부모의 삶의 질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2. 삶의 질 개념

### 가. 삶의 질 개념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개념적 정의나 이론적 설명을 갖고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석현호·이재열·한준·홍중호·김석호, 2012: 24). 또한 이 용어가 사용된 학문적, 정책적 맥락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종종모순적이고 대립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다(석현호 외, 2012: 24). 이에 따라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Rogge & Van Nijverseel, 2019).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은 삶의 질에서 삶의 개인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집단을 나타내는지, 주관적인 느낌인지 객관성을 가지고 외부 환경을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한준 외, 2011). 이외에도 또한 삶의 질과 관련된 행복과 웰빙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철학적 논쟁도 존재한다(Brock, 1993). 행복과 웰빙이 단순히 개인의 자기만족 또는 충족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논쟁의 주를 이루고 있다(Brock, 1993).

이러한 다양한 논쟁점이 있지만 WHO Quality of Life Group(1993)은 삶의 질을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 가치 시스템의 맥락에서 개인의 목표, 기대, 기준, 관심사와 관계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 심리적 상태, 독립성 수준, 개인의 두드러진 특징과 환경사이의 관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 받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Hörnquist(1990)는 삶의 질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활동, 물질적, 구조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삶의 질 인식 수준을 전체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수준까지 세분화 하였다. 즉, WHO Quality of Life Group가 정의한 것과 같이 삶의 질 영역은 광범위하면서 복합적인으로 영향 받는 요인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1〉 삶의 질 개념 확장

수준	삶의 영역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	행동/활동	물질	구조
전체	삶의 전체					
대구조	신체 건강	웰빙	모든 사회적 삶	모든 활동적 삶	개인 경제	삶의 의미
		인지				사회적 위치
중구조	다양한 신체기능	자기 개념과 사회적 상호작용	일반적인 사회적 접촉	자기 돌봄에 대한 역량	개인적 지원 역량	사회적 관점
	추가: 구체적인 질병/장애, 증상과 통증 (발생, 강도, 지속기간), 부작용, 부상 치료	학습, 논리, 창의성, 기억 등	가족생활	이동	주거	
		지식, 실천능력	성생활	직업역량	물질적 자산	
				기초적 습관		
소구조			사회적 접촉 역량	일에 대한 욕구	직장에서의 소득	
				식사, 음주, 수면, 흡연 등 기타 습관		
미시구조	상황별 인식 및 행동					

자료: Hörnquist, J. O. (1990). Quality of life: concept and assessment.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18(1), p. 70.

장영식·고경환·손창균·이수현(2007)이 정리한 삶의 질의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인구 집단의 수준이 반영된 개념이고 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객관적인 영역과 심리적인 만족감을 반영하는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2-2〉 국내 학자가 정의한 삶의 질 정의

연구자	삶의 질 정의
김상균·권태환·이문웅·이정전·김태성·조홍식 (1996)	사회적 조건과 제도가 개인의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객관적 상황이나 물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조건 속에서 존재하는 사회구원이 제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느끼는 성취감, 애정과 친밀감 등을 포함하고 있음
윤병식·정우진·이현승·연하청·한성덕·박주현 (1996)	삶의 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의 복리가 반영됨
한성덕(1998)	한 개인의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 실존의 통일적 총합
조명환·차경호(1998)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로 구분되고 주관적 삶의 질은 주관적 안녕감임
이은주(2001)	환경과 삶의 질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자료: 장영식·고경환·손창균·이수현(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pp. 50-52의 내용을 연구진이 표로 정리함.

최근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발<sup>2)</sup>되면서 삶의 질과 개념적 중첩이 있지만 변별적인 개념인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Abbott & Wallace, 2012). 삶의 질 연구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욕구 실현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사회의 질 연구에서는 개인은 사회적 과정 속에서 자기실현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7).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발전이 서로 보완적이고 균형을 이룰 때 사회의 질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5: 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의 질 또한 다차원적 구조로 되어있는 개념이다(Abbott & Wallace, 2009). 사회의 질 개념의 프레임에서는 사회 질은 주관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이고 주관적 만족은 사회 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라고 간주한다(Veenhoven, 2008). 여기서 개인의 웰빙

2)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와 프레임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였음

과 사회적 웰빙의 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구별되는 개념이다(Abbott & Wallace, 2012: 154). 사회적 웰빙을 통해서 개인이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인가만을 확인 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웰빙은 주관적 만족을 통해서 측정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맥락 등이 만족에 관여하기 때문에 주관적 만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질이 높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Abbott & Wallace, 2012: 154).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질은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사회적 질은 구성원에게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성이 있다(Abbott & Wallace, 2012: 154).

사회적 질은 집합적 수준에서의 삶의 질이 아닌 사회적 결속(cohesion), 통합(inclusion), 권한부여(empowerment), 그리고 사회경제적 안전(security)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Abbott & Wallace, 2012). 이러한 사회 질 모형은 4분면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시스템, 조직, 기관과 지역사회, 집단, 개인의 과의 관계, 집단 전체와 개인생애의 관계에서 산출 된다(Lockwood, 1992; Abbott & Wallace, 2012: 155 재인용).

사회경제적 안정성은 사회구성원이 생애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잘 대처하고 품위 있는 생활방식을 누리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확보하는 개념이다(Abbott & Wallace, 2012: 156). 적절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삶의 전반에 걸친 경제적 안정과 이를 보장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다(Abbott & Wallace, 2012: 156).

두 번째 영역은 사회적 결속으로 사회를 하나로 묶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접합제이다(Abbott & Wallace, 2012: 156). 사회적 참여에 필수적인 법치주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정과 연속성을 제공한다(Abbott & Wallace, 2012: 156).

세 번째 영역은 사람들이 제도, 조직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해 통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사회적 통합은 사회적 일원으로서 갖는 사회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다(Abbott & Wallace, 2012: 156). 개인이 사회 공동체 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Philips, 2006; Abbott & Wallace, 2012: 156 재인용).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사회적 권한부여로 가능한 객관적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

부와 개인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된 개념이다(Abbott & Wallace, 2012: 156). 사회적 권한부여는 개인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수단, 즉 건강과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다(Abbott & Wallace, 2012: 156).

[그림 II-2-1] 사회 질 모형



자료: Abbott, P. & Wallace, C. (2012). Social quality: A way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p. 156.

국민통합사회위원회(2015)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회의 질이 높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의 질과 개인의 삶의 질 공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Walker와 Van der Maesen(2004)은 사회의 질과 삶의 질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 3. 삶의 질 지표 및 측정

삶의 질 측정 또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측정과 관련된 주요 이슈인 신뢰성과 타당성도 이러한 논쟁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술한 행복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개념의 모호성과 해석이 배경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해답은 달라질 수 있다. 개인 내에서도 생애주기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가나 문화별, 시대별에 따라라도 삶의 질과 관련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지표마다 측정 대상과 영역이 다양하다.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삶의 질 지표와 측정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삶의 질 지표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

pment Index), EIU의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Where-to-be-born Index), 유럽 연합의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Eurofound의 유럽인의 삶의 질 조사(Euro pean Quality of Life),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등이 있다.

먼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는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의 능력이 국가의 발전을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인간 발달의 주요 차원에서의 평균 성취도를 요약한 척도이다(HDI 홈페이지, <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index-hdi>, 2019. 5. 31. 인출).

인간개발지수(HDI)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장수(수명), 지식(교육 수준), 적절한 삶의 수준(생활수준)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제비교 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박성현, 2019: 6).

〈표 II-3-1〉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차원	지표		지수
건강 수명	기대수명		평균수명지수
지식	성인 문자 해독률	교육기회(취학률)	교육지수= $\frac{2}{3}$ (성인 문자 해독률) + $\frac{1}{3}$ (교육기회)
품위 있는 생활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지수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4).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3),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p. 25.

다음으로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Where-to-be-born Index)는 영국 경제전문지인 The Economist가 실시한 삶의 질 연구로,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객관적 삶의 질 결정 요인을 접목한 것이다. 2005년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QLI)에서 명칭을 바꾸어 측정하고 있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28).

〈표 II-3-2〉 태어나기 좋은 나라 지수(Where-to-be-born)

영역	지표	조사기관
물질적 웰빙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건강	기대수명	US Census Bureau
정치적 안정성과 안전	정치적 안정성과 안전 비율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가족생활	이혼율	UN: Euromonitor
공동체 생활	교회, 노조가입률	ILO: World Value Survey
기후 및 지리적 조건	기후대	CIA World Factbook
직업 안정성	실업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LO
정치적 자유	정치적·시민적 자유 지수	Freedom House
젠더 평등	성별 평균소득 비율	UNDP Report

자료: 국민통합위원회(2014).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3),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p. 28

유럽 연합의 삶의 질 지표를 살펴보면,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정의된 복지와 관련된 8가지 영역 + 삶의 전반적인 경험(삶의 질에 대한 개인적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황세영·김남수, 2016: 37). 이러한 지표영역은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이며 유럽 연합에서는 계속해서 그 세부 내용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있다(황세영·김남수, 2016: 37). 또한 각 영역들을 각자 살펴보는 것보다는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다(황세영·김남수, 2016: 37). 유럽 연합의 삶의 질 지표와 각 하위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3〉 유럽연합 삶의 질 지표

유럽연합/ 삶의 질 지표	주제	하위주제
물질적 생활 여건	수입	
	소비	제한된 소비 소비(비 시장소비 및 정부 제공 서비스 포함)
	재료 조건	물질 박탈 주택 조건
생산 또는 주요 활동	고용량	고용과 실업
		불완전 고용(양적)
		불완전 고용(질적)
	고용의 질	소득과 고용으로부터 이익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임시직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		
기타 주요 활동		

유럽연합/ 삶의 질 지표	주제	하위주제
건강	성과	기대 수명
		발병률 및 건강상태
	운전자: 건강, 건강에 해로운 행동	
	의료서비스 이용	
교육	능력과 기술	교육 달성
		자기 보고 기술
		평가 된 기술
	평생 학습	
	교육 기회	
여가와 사회적 관계	여가	여가의 양
		여가의 질
		여가에 대한 접근
	사회적 상호 작용	사람들과의 활동
		사람들을 위한 활동
		후원 관계
		사회적 응집력
경제적 안전과 신체적 안전	경제안보 및 취약성	부(자산)
		빚
		소득 불안정(직업 포함)
	물리적 보안 및 개인 보안	범죄
		신체적 안전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와 기본권	기관 및 공공서비스	기관의 신뢰 및 만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만족
	차별과 동등한 기회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		적극적인 시민권
		오염(소음 포함)
	녹지 공간과 레크레이션 공간 이용	
	조경 및 건설 환경	
삶의 전반에 대한 인식		생활 만족
		영향
		의미와 목적

자료: Eurostat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urostat/web/gdp-and-beyond/quality-of-life/data>, 2019. 3. 12. 인출)

EU 산하 연구기관인 Eurofound에서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럽 삶의 질 조사가 있다. 삶의 질 조사는 EU 회원국 및 가입 후보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상황 및 환경과 삶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국가의 국제비교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되었다(Eurofound, 2016). 고용, 소득, 교육, 주거, 가족, 건강, 일과 생활의 균형 등과 함께 행복 수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사회의

질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등에 관한 주관적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다(Eurofound, 2016). 이 조사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 4번째 조사를 완료하였으며(약 4년 주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다(Eurofound, 2016).

아래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럽의 삶의 질 조사 지표는 크게 삶의 질, 공공서비스의 질, 사회의 질로 구분된다. 삶의 질은 다시 주관적 복지, 생활수준 및 빈곤, 일 생활 균형과 배려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 서비스의 질은 공공 서비스의 품질 평가, 건강관리 요양 보호 및 아동서비스, 이웃품질과 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의 질은 사회불안, 신뢰수준, 사회적 긴장, 사회적 배제, 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3-4〉 유럽의 삶의 질 조사(EQLS)

지표	주제
삶의 질	주관적 웰빙
	낙관주의
	생활수준 및 빈곤
	일 생활 균형
사회의 질	사회적 불안
	사회적 배제 및 긴장의 인식
	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
	사회 참여 및 지역 사회 참여
공공 서비스의 질	교육훈련/평생 교육 참여
	의료보건 서비스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아동 돌봄 및 기타 공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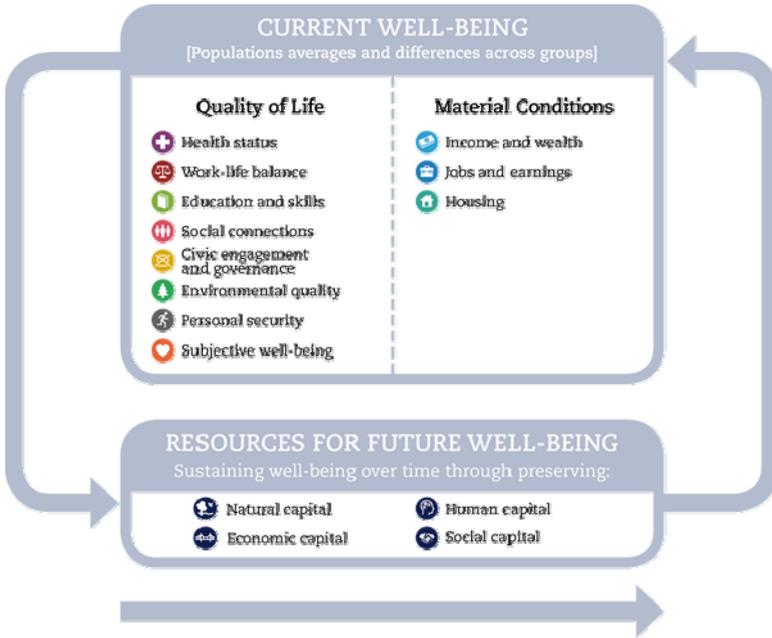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2016. (<https://www.eurofound.europa.eu/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2016>, 2019. 6. 30. 인출)

OECD에서는 2000년 이후에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측정과 개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Durand, 2015). 그 결실이 OECD에서 2011년 발표한 Better Life Initiative이다(Durand, 2015). Better Life Initiative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측면과 삶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초점 맞췄으며 개발되었다(Durand, 2015: 4).

Better life index는 이러한 지표를 국제비교 및 시계열 분석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11개 영역에 대해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웰빙 지표를 작성하고 영역별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30).

[그림 II-3-1] OECD Framework for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자료: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statistic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htm>, 2019. 3. 12. 인출).

OECD의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조건과 삶의 질로 구분되며, 물질적 조건은 소득과 부, 일자리와 소득, 주거이며 삶의 질 부분은 사회적 관계, 교육과 기술, 건강상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이다. 구체적인 지표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3-5> OECD Better life index

부문	영역	지표
물질적 조건	소득과 부	가구당 금융순자산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일자리와 소득	직업안정성

부문	영역	지표	
		개인소득	
		고용률	
		장기실업률	
	주거	주거 지출	
		기본시설 있는 가구	
		개인당 방(room) 수	
	삶의 질	사회적 관계	지원 관계망의 질
		교육과 기술	기대교육기간
			학생의 인지적 기술
교육 성취			
건강상태		건강상태 자기보고	
		기대수명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규칙 제정시 협의	
		투표율	
환경의 질		수질 만족도	
		대기의 질	
개인적 안전		살인율	
		범죄 피해율	
일과 삶의 균형		여가 및 개인 돌봄 시간	
		장시간근로자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4).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3)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p. 31 일부 발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BAV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이 협력하여 실시한 USnews와 World Report의 연구에서는 조사를 통해 국가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였다. 4개 지역에서 20,000명 이상의 응답자들에게 75개 영역을 기준으로 80개국의 삶의 질 지표를 비교하였다. 75개 영역은 좋은 취업시장, 경제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 친화적, 소득평등, 정치적 안정성, 안전한 환경, 잘 발달된 공중보건 시스템, 잘 개발된 공교육 시스템으로 크게 9개 영역으로 분할 수 있다.

〈표 II-3-6〉 USnews 삶의 질 지표

하위 영역
좋은 취업 시장
경제성
경제적 안정성
가족 친화적
소득평등
정치적 안정성
안전한 환경
잘 발달된 공중보건 시스템
잘 개발된 공교육 시스템

자료: cbmpress toronto 홈페이지 (<https://cbmpress.com/toronto/%EC%BA%90%EB%82%98%EB%8B%A4-%EC%82%B6%EC%9D%98-%EC%A7%88%EC%9D%B4-%EC%A2%8B%EC%9D%80-%EA%B5%AD%EA%B0%80-4%EB%85%84-%EC%97%B0%EC%86%8D-1%EC%9C%84/>, 2019. 7. 7. 인출)

2019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는 정치적 안정성, 강력한 취업 시장, 안전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개발을 위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4년도부터 통계청 홈페이지(<https://qol.kostat.go.kr/blife/main.do>)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삶의 질 지표의 검토와 보완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크게 물질 부문 비물질 부문으로 구분되면 물질부분은, 소득, 고용, 사회복지, 주거, 비물질 부문은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3-7〉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	하위 영역	객관지표(57종)	주관지표(24종)	
물질 부문	소득· 소비· 자산·	-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고용· 임금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일자리 만족도(+)
	사회 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주거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통근·통학 소요시간(-),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	주거환경 만족도(+)
비물질 부문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 인식정도(-)

영역	하위 영역	객관지표(57종)	주관지표(24종)
교육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교육기회	유치원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 중단율(-)	
	교육자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교육성과	PISA 백분위 순위(-), 대졸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문화 활동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가족·공동체	가족관계	가족접촉 빈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 가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사회적관계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안전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 발생건수(-), 도로 사망률(-)	
환경	에너지	에너지 빈곤층 비율(-)	
	대기	미세먼지 농도(-)	
	물	하수도 보급률(+)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비율(+)	
	기후변화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불안도(-)
	환경의 질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감 환경 만족도(+)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경험의 균형(+)

주: 1) 밑줄 친(이탤릭체) 11개 지표는 현재 1회 자료 값만 있어 변화추세 판정이 불가능하고 신뢰성 검증 필요하여 공개에서 제외

2)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자료: 이희길·심수진·김홍희(2015). 국민 삶의 질 측정, 통계개발원(편), 통계개발원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Ⅲ 권 (pp. 1-18). 통계개발원, pp. 4~5. 표 1-2.

## 4. 주요 삶의 질 지표 국가별 순위

### 가. 인간개발지수(HDI)

앞에서 살펴본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의 2017년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2018년 최신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호주, 아일랜드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순위 변경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23순위에서 22순위로 한 순위 올랐다.

〈표 II-4-1〉 인간개발지수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명	Human Development Index (HDI)(Value)
1	노르웨이	0.953
2	스위스	0.944
3	호주	0.939
4	아일랜드	0.938
5	독일	0.936
6	아이슬란드	0.935
7	스웨덴	0.933
8	홍콩	0.933
9	싱가포르	0.932
10	네덜란드	0.931
11	덴마크	0.929
12	캐나다	0.926
13	미국	0.924
14	영국	0.922
15	핀란드	0.920
16	뉴질랜드	0.917
17	벨기에	0.916
17	리히텐슈타인	0.916
19	일본	0.909
20	오스트리아	0.908
21	룩셈부르크	0.904
22	이스라엘	0.903

육아행복 국제비교 연구: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순위	국가명	Human Development Index (HDI)(Value)
22	한국	0.903
24	프랑스	0.901
25	슬로베니아	0.896
26	스페인	0.891
27	체코	0.888
28	이탈리아	0.880
29	몰타	0.878
30	에스토니아	0.871
31	그리스	0.870
32	키프로스	0.869
33	폴란드	0.865
34	아랍에미리트	0.863
35	안도라	0.858
35	리투아니아	0.858
37	카타르	0.856
38	슬로바키아	0.855
39	브루나이	0.853
39	사우디아라비아	0.853
41	라트비아	0.847
41	포르투갈	0.847

자료: Human development reports 홈페이지. (<http://hdr.undp.org/en/2018-update>, 2019. 7. 7. 인출)

## 나. OECD Better life index(2017)

### 1) OECD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순위(전체 영역)

OECD에서 조사한 better life index(더 나은 삶의 질 지표) 전체영역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위권 국가는 인간개발지수(HDI) 유사하게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캐나다 순서였으며 한국은 30위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보다 낮았다.

〈표 II-4-2〉 OECD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순위(전체)

순위	국가명
1	노르웨이
2	오스트레일리아
3	아이슬란드
4	캐나다
5	덴마크
6	스위스
7	네덜란드
8	스웨덴
9	핀란드
10	미국
11	룩셈부르크
12	뉴질랜드
13	벨기에
14	영국
15	독일
16	아일랜드
17	오스트리아
18	프랑스
19	스페인
20	슬로베니아
21	에스토니아
22	체코
23	이스라엘
24	이탈리아
25	일본
26	슬로바키아
27	폴란드
28	리투아니아
29	포르투갈

순위	국가명
30	한국
31	헝가리
32	라트비아
33	러시아
34	칠레
35	브라질
36	그리스
37	터키
38	콜롬비아
39	멕시코
40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2019. 7. 8. 인출)

## 2) OECD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순위(하위 영역별)

better life index(더 나은 삶의 질 지표)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순위가 가장 높았던 영역은 시민참여로 24위였으며, 다음으로 직업과 교육으로 27위, 주택 28위, 소득과 안전 29위, 생활만족도 31위 건강과 환경 34위, 일·생활 균형 35위, 사회적 지원체계 37위로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II-4-3〉 OECD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순위(하위 영역 1)

순위	주택	소득	직업	사회적지원체계	교육	환경
1	노르웨이	미국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노르웨이
2	호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3	캐나다	스위스	스위스	호주	노르웨이	호주
4	미국	아이슬란드	호주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5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6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7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8	덴마크	스웨덴	스웨덴	스위스	스위스	뉴질랜드
9	핀란드	영국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10	아이슬란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미국	네덜란드
11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12	벨기에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13	뉴질랜드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14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미국	아일랜드	독일
15	독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영국
16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순위	주택	소득	직업	사회적지원체계	교육	환경
17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18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19	스페인	스페인	슬로베니아	프랑스	에스토니아	프랑스
20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21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에스토니아	체코	스페인
22	체코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일본
23	일본	이스라엘	체코	체코	스페인	체코
24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폴란드	포르투갈
25	이탈리아	체코	이탈리아	일본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26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27	슬로바키아	폴란드	한국	리투아니아	한국	이탈리아
28	한국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29	리투아니아	한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30	폴란드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브라질	라트비아	이스라엘
31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러시아	헝가리	헝가리
32	라트비아	라트비아	라트비아	라트비아	러시아	브라질
33	칠레	러시아	러시아	헝가리	포르투갈	칠레
34	러시아	그리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한국
35	브라질	터키	터키	터키	칠레	콜롬비아
36	그리스	칠레	브라질	칠레	터키	그리스
37	터키	브라질	콜롬비아	한국	브라질	러시아
38	콜롬비아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콜롬비아	터키
39	멕시코	멕시코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멕시코
40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019. 7. 8. 인출)

〈표 II-4-4〉 OECD better life index 국가별 순위(하위 영역 2)

순위	시민참여	건강	생활만족도	안전	일·생활균형
1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2	노르웨이	호주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3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덴마크
4	캐나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위스	스위스
5	덴마크	스위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6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핀란드
7	스웨덴	미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8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9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벨기에
10	룩셈부르크	덴마크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11	벨기에	핀란드	미국	영국	호주

순위	시민참여	건강	생활만족도	안전	일·생활균형
12	영국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미국	아일랜드
13	핀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14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15	스위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미국
16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스페인
17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독일	뉴질랜드
18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영국
19	이스라엘	프랑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20	이탈리아	이스라엘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21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	에스토니아
22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23	슬로베니아	체코	이탈리아	이스라엘	체코
24	한국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슬로바키아
25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26	체코	폴란드	일본	슬로바키아	폴란드
27	폴란드	일본	폴란드	폴란드	헝가리
28	브라질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포르투갈
29	리투아니아	그리스	칠레	한국	이스라엘
30	라트비아	헝가리	브라질	리투아니아	러시아
31	일본	리투아니아	한국	헝가리	라트비아
32	터키	터키	라트비아	라트비아	일본
33	헝가리	브라질	헝가리	그리스	그리스
34	포르투갈	한국	포르투갈	터키	브라질
35	멕시코	칠레	러시아	칠레	한국
36	그리스	라트비아	멕시코	러시아	칠레
37	러시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터키
38	칠레	러시아	터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39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콜롬비아	콜롬비아
40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019. 7. 8. 인출)

## 다. USnews best countries quality of life(2019)

다음으로 USnews에서 조사한 삶의 질 영역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국가가 캐나다로 나타났으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23위로 나타났다.

〈표 II-4-5〉 USnews 삶의 질 영역 국가별 순위

순위	2019 삶의 질이 높은 국가
1	캐나다
2	스웨덴
3	덴마크
4	노르웨이
5	스위스
6	핀란드
7	오스트레일리아
8	네덜란드
9	뉴질랜드
10	독일
11	벨기에
12	영국
13	일본
14	룩셈부르크
15	아일랜드
16	프랑스
17	미국
18	싱가포르
19	포르투갈
20	중국
21	스페인
22	이탈리아
23	한국
24	폴란드
25	체코 공화국
26	아랍 에미리트
27	헝가리
28	크로아티아
29	그리스
30	태국
31	말레이시아
32	카타르
33	불가리아
34	인도
35	베트남
36	러시아 제국
37	필리핀 제도
38	루마니아
39	사우디아라비아
40	인도네시아 공화국

자료: USnews - best countries - quality of life 홈페이지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quality-of-life-rankings>, 2019. 7. 7. 인출)



# III

## 한국 부모의 삶의 질

- 01 삶의 질
- 02 공공서비스 질
- 03 사회 질
- 04 환경의 질
- 05 소결



### Ⅲ. 한국 부모의 삶의 질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의 질을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제별로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 면담 결과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 1. 삶의 질

##### 가. 주관적 웰빙

###### 1) 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문항에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7%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29.8%였다. 행복도 역시 남자는 7점 이상 비율이 44.8%, 여자는 39.8%로 여자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에 비해 낮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행복도, 교육수준 만족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행복, 교육수준 만족도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1%, 29.2%, 34.9%인 반면 5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0%, 43.4%, 51.5%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각 만족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1〉 삶의 만족도, 행복도, 교육수준 만족도

구분	사례 수	삶의 만족도		행복도		교육 수준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35.2	5.70	42.3	6.00	45.8	6.09	
성별	남자	(150)	40.7	5.99	44.8	6.14	53.8	6.27
	여자	(150)	29.8	5.41	39.8	5.87	37.8	5.90
연령	19-30세 미만	(26)	38.8	5.33	36.3	5.32	35.2	5.50
	30-39세	(142)	36.9	5.84	40.6	6.12	41.9	6.06
	40-49세	(92)	37.3	5.84	53.3	6.33	57.7	6.41
	50세 이상	(40)	22.2	5.14	27.0	5.30	39.7	5.81
자녀 수	1명	(113)	40.0	5.53	41.4	5.85	47.5	6.05
	2명	(158)	31.2	5.83	38.9	6.03	46.2	6.17
	3명 이상	(29)	38.7	5.67	64.0	6.45	37.4	5.78
거주지	대도시	(175)	39.3	5.80	43.3	6.04	51.1	6.16
	중소도시	(87)	32.7	5.47	44.4	5.97	43.5	6.07
	읍면	(38)	22.2	5.75	32.9	5.95	26.8	5.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31.5	5.70	33.8	5.97	40.5	5.96
	외벌이	(176)	37.9	5.70	48.4	6.03	49.6	6.18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40.2	5.91	43.6	6.20	42.6	6.05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31.6	5.60	43.1	5.96	48.2	6.1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3.1	4.93	29.2	5.36	34.9	5.52
	300-500만 원 미만	(115)	42.4	5.80	47.2	5.94	44.6	6.04
	500만원 이상	(130)	34.0	5.93	43.4	6.33	51.5	6.36

주: 1) ① 매우 불만족함 ~ ⑩ 매우 만족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현재 직업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현재 직업 만족도, 현재 생활수준 만족도가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현재 직업 만족도, 현재 생활수준 만족도에서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7%, 36.1%인 반면, 500만원 이상의 가구는 42%, 59.5%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각 만족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현재 생활수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문항에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자면 19-30세 미만인 경우는 33.6%로 가장 낮았으며, 30-39세는 53.6%,

40-49세는 57.2%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48.2%로 이전 연령보다 현재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거주지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에서 현재 생활수준에 대해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5.6%, 58.2%, 22.2%로 나타났다. 읍면보다 대도시, 중소도시가 현재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2〉 현재 직업만족도, 현재 생활수준 만족도, 거주하는 집 만족도

구분		사례 수	현재 직업 만족도		현재 생활수준 만족도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36.3	5.70	52.2	6.58
성별	남자	(150)	39.2	6.05	55.1	6.65
	여자	(150)	33.4	5.36	49.4	6.50
연령	19-30세 미만	(26)	25.1	5.03	33.6	5.69
	30-39세	(142)	36.8	5.79	53.6	6.78
	40-49세	(92)	36.7	5.85	57.2	6.68
	50세 이상	(40)	41.0	5.51	48.2	6.21
자녀 수	1명	(113)	37.3	5.44	52.9	6.60
	2명	(158)	38.2	5.89	51.6	6.55
	3명 이상	(29)	21.8	5.71	53.0	6.68
거주지	대도시	(175)	37.3	5.80	55.6	6.66
	중소도시	(87)	39.6	5.55	58.2	6.76
	읍면	(38)	23.7	5.59	22.2	5.8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31.8	5.51	44.4	6.53
	외벌이	(176)	39.5	5.84	57.8	6.61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34.5	5.82	51.0	6.6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34.6	5.66	54.8	6.5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4.7	4.64	36.1	5.60
	300-500만원 미만	(115)	35.3	5.79	51.5	6.40
	500만원 이상	(130)	42.0	6.07	59.5	7.15

주: 1) ① 매우 불만족함 ~ ⑩ 매우 만족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거주하는 집과 가정생활에서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각각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집과 가정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문항에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4%, 38.0%였으나 300-500만원 미만은 43.1%, 56.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500만원 이상은 35.1%, 59.6%로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3〉 거주하는 집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구분		사례 수	거주하는 집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37.1	5.58	54.5	6.31
성별	남자	(150)	43.3	5.70	57.4	6.38
	여자	(150)	31.0	5.46	51.5	6.24
연령	19-30세 미만	(26)	26.8	5.06	28.1	5.18
	30-39세	(142)	35.1	5.61	66.0	6.75
	40-49세	(92)	37.2	5.50	54.3	6.28
	50세 이상	(40)	51.1	6.01	31.3	5.57
자녀 수	1명	(113)	36.9	5.67	52.1	6.32
	2명	(158)	35.7	5.43	56.6	6.32
	3명 이상	(29)	45.3	6.04	52.0	6.22
거주지	대도시	(175)	38.3	5.74	47.3	6.15
	중소도시	(87)	34.8	5.64	58.0	6.54
	읍면	(38)	36.8	4.72	79.6	6.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33.4	5.49	54.1	6.34
	외벌이	(176)	39.7	5.65	54.7	6.29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38.3	5.63	63.0	6.58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38.7	5.66	49.2	6.20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9.4	4.72	38.0	5.30
	300-500만 원 미만	(115)	43.1	5.69	56.4	6.37
	500만원 이상	(130)	35.1	5.85	59.6	6.68

주: 1) ① 매우 불만족함 ~ ⑩ 매우 만족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다. 19-30세 미만인 연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묻는 문항에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1%였고, 3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는 44.2%, 40-49세는 39.9%, 50세 이상은 24.6%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욱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에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3%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47.0%였다. 또한,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보다 3명 이상인 경우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점 이상의 비율이 46%였으며,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4점 이상 비율이 69.6%로 현저하게 높았다.

삶 속에서 가치를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읍면 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에는 5점 만점 중에서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7%인 반면,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9.9%로 현저하게 높았다. 거주지에 따라 삶 속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지 묻는 문항에서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읍면 32.9%, 중소도시 49.9%, 대도시 63.1%로 읍면에 비해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구 소득이 낮아질수록 나의 미래,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 삶 속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 삶 속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5점 만점 중에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3%, 23.8%, 31.2%인 반면 5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2.3%, 46.3%, 58.4%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4〉 나의 미래,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 삶 속에서의 가치

구분	사례 수	나의 미래에 대한 낙관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		삶 속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39.8	3.20	44.2	3.21	55.5	3.46
성별	남자 (150)	44.0	3.30	41.3	3.09	55.6	3.43
	여자 (150)	35.7	3.10	47.0	3.33	55.3	3.50

구분	사례 수	나의 미래에 대한 낙관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		삶 속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연령	19-30세 미만	(26)	39.1	3.02	42.5	3.22	41.5	3.19
	30-39세	(142)	44.2	3.35	42.8	3.26	50.7	3.39
	40-49세	(92)	39.9	3.08	45.2	3.09	59.9	3.57
	50세 이상	(40)	24.6	3.08	47.6	3.33	71.6	3.63
자녀 수	1명	(113)	47.2	3.17	46.0	3.30	46.7	3.43
	2명	(158)	34.3	3.21	38.1	3.06	55.3	3.39
	3명 이상	(29)	41.2	3.29	69.6	3.66	89.9	3.97
거주지	대도시	(175)	46.6	3.31	52.7	3.42	63.1	3.69
	중소도시	(87)	32.1	3.09	34.7	3.15	49.9	3.31
	읍면	(38)	26.1	2.94	26.1	2.39	32.9	2.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38.2	3.27	42.0	3.24	48.6	3.40
	외벌이	(176)	41.0	3.15	45.7	3.19	60.4	3.51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45.1	3.34	46.2	3.27	54.1	3.44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36.8	3.13	48.2	3.25	61.0	3.5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5.3	2.70	23.8	2.77	31.2	2.90
	300-500만 원 미만	(115)	43.9	3.28	51.3	3.38	63.7	3.67
	500만원 이상	(130)	42.3	3.35	46.3	3.25	58.4	3.51

주: 1)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⑤ 매우 동의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자유를 느끼는지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내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를 묻는 문항에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54.5%였으나,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77.2%로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즐거운 일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자의 경우 즐거운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한지에 대해 묻는 문항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6%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7%로 여자에 비해 낮았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즐거운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의 경우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7%인 반면, 읍면은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0.8%로 대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5〉 내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 즐거운 일을 할 시간 여유

구분		사례 수	내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유		즐거운 일을 할 시간 부족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71.0	3.85	59.6	3.61
성별	남자	(150)	72.6	3.85	53.7	3.46
	여자	(150)	69.4	3.84	65.6	3.76
연령	19-30세 미만	(26)	69.6	3.74	55.5	3.51
	30-39세	(142)	74.2	3.91	61.6	3.68
	40-49세	(92)	67.7	3.79	59.6	3.58
	50세 이상	(40)	68.1	3.81	55.4	3.49
자녀 수	1명	(113)	67.1	3.86	54.5	3.59
	2명	(158)	75.2	3.87	59.8	3.57
	3명 이상	(29)	63.4	3.67	78.4	3.92
거주지	대도시	(175)	75.1	3.90	54.7	3.47
	중소도시	(87)	58.1	3.70	56.2	3.62
	읍면	(38)	81.7	3.95	90.8	4.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74.7	3.92	67.1	3.72
	외벌이	(176)	68.4	3.79	54.4	3.53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70.0	3.81	61.1	3.62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70.8	3.86	58.5	3.5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54.5	3.59	63.1	3.87
	300-500만 원 미만	(115)	71.7	3.87	54.6	3.56
	500만원 이상	(130)	77.2	3.93	62.6	3.55

주: 1)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⑤ 매우 동의함  
 2) 읍면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중요한 문제에 대처와 잘못된 일을 회복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남성이 여자에 비해 어려움을 덜 느낀다고 나타났다. 중요한 문제 대처의 어려움과 잘못된 일에 대한 회복이 어려움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서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자의 비율이 각각 55.7%, 58.6%인 반면 남자의 경우는 35.2%, 34.6%로 여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중요한 문제를 대처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문제 대처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외별이 가정은 38.7%인 반면, 맞벌이 가정의 응답 비율은 55%로 외별이 가정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잘못된 일에 대한 회복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잘못된 일에 대한 회복이 어려운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8%인 반면, 300-500만원 미만 가구는 39.8%,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8.8%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표 III-1-6〉 중요한 문제의 대처, 회복

구분	사례 수	중요한 문제 대처의 어려움		잘못된 일에 대한 회복이 어려움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45.5	3.31	46.6	3.35	
성별	남자	(150)	35.2	3.05	34.6	3.20
	여자	(150)	55.7	3.57	58.6	3.50
연령	19-30세 미만	(26)	55.7	3.50	34.8	3.12
	30-39세	(142)	44.5	3.31	40.2	3.31
	40-49세	(92)	49.1	3.39	56.9	3.50
	50세 이상	(40)	33.7	3.00	53.5	3.28
자녀 수	1명	(113)	47.9	3.42	44.6	3.37
	2명	(158)	44.5	3.25	44.1	3.32
	3명 이상	(29)	41.5	3.20	67.3	3.45
거주지	대도시	(175)	42.6	3.22	49.4	3.34
	중소도시	(87)	51.0	3.53	48.8	3.38
	읍면	(38)	45.7	3.22	28.2	3.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55.0	3.49	47.4	3.42
	외벌이	(176)	38.7	3.18	46.0	3.30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50.0	3.38	43.6	3.32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40.7	3.19	52.5	3.3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45.9	3.51	55.8	3.57
	300-500만 원 미만	(115)	42.4	3.18	39.8	3.18
	500만원 이상	(130)	48.0	3.34	48.8	3.41

주: 1)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⑤ 매우 동의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결혼 및 출산까지 포함하여 크게 달라진 점으로 주관적인 시간 및 초점이 개인에서 가족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냈다. 결혼 후 달라진 점보다 출산 후 달라진 점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개인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고, 개인이 아닌 가족 및 가족행사(시댁/친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점이 달라졌다고 응답하였다.

“남편이 있으니까 생활의 안정감이...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웃음) 예전보다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항상 내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모3).

“달라진 것은 시간이 결혼 전과 결혼 후에는 자녀 출산 전과 후의 저한테 주어진 주관적인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부2)

“일단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에 달라진 점이 첫 번째는 아이고 두 번째는 양가 집안을 챙겨야 하는,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이럴 때도 예전에는 그냥 쉬는 날이었는데 양가 집안 신경 써야 되고 무슨 집안 행사 있을 때 뭐, 가족들 생일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크게 달라진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모2)

“애 낳기 전 임신했을 때까지는 100점으로 따지면 거의 90점 가까이 행복도가 있었는데...” (부1)

출산 전후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출산 전과 임신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을 보였다가 출산 직후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신기에 행복도가 높고 출산 후 육아스트레스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출산 전은 신혼으로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충족시키는 한편, 임신기는 새로운 자녀를 기다리고 기대함으로써 행복감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후 좋아진 점으로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생겼다는 점과 아기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안 좋은 점으로는 개인 여가 시간 및 부부 시간이 확연히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 돌아와 다시 일(육아)을 해야 하는 것이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또 늦게 결혼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된다고 하였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애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애가 얼마나 예쁠지 기대를 하니깐, 그때 (임신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1)

“결혼했을 때도 괜찮고 좋았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결혼한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애기 낳기 전까지는 뭐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막상 아이 낳고 나서는 물론 힘들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물론 예쁘고 좋은데 어떤 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모2)

“결혼 전보다는 결혼 후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산지가, 2005년 5월 달에 내려와서 이제 5개월 정도 같이 살고 애가 태어난 거거든요.” (부2)

## 나. 자녀 양육 가치 및 양육 스트레스

### 1) 조사 결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조사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에 5점 만점 중에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41%로 남자보다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아이를 아이들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벌이 가정의 경우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4%인 반면,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46.6%로 외벌이 가정보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없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0세 미만의 경우 자녀 없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5점 만점 중에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 30세 이상 39세 이하에서는 53.2%, 40세 이상 49세 이하는 58.1%, 50세 이상은 78.6%였다.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자녀 없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 4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46.7%인 반면, 300-5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4.2%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높았으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6%였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 자녀를 바라보는 기쁨의 정도는 높았으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다.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에 각각 51.9%, 64.6%, 36.8%인 반면, 자녀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60.1%, 70.7%, 35%였으며,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각각 67.5%, 89.6%, 32.1%로 각각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7〉 자녀와의 행복, 기쁨, 양육 자신감

구분		사례 수	자녀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음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기쁨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음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57.7	3.56	70.2	3.87	35.4	2.99
성별	남자	(150)	57.3	3.54	66.3	3.79	29.8	2.76
	여자	(150)	58.2	3.58	74.2	3.95	41.0	3.22
연령	19-30세 미만	(26)	49.5	3.57	56.4	3.65	31.5	3.31
	30-39세	(142)	53.2	3.41	65.6	3.80	41.3	3.03
	40-49세	(92)	58.1	3.57	76.1	3.96	27.9	2.85
	50세 이상	(40)	78.6	4.06	82.3	4.07	34.2	2.96
자녀 수	1명	(113)	51.9	3.47	64.6	3.71	36.8	3.12
	2명	(158)	60.1	3.54	70.7	3.93	35.0	2.95
	3명 이상	(29)	67.5	4.02	89.6	4.17	32.1	2.67
거주지	대도시	(175)	58.6	3.61	75.6	3.92	27.5	2.84
	중소도시	(87)	60.9	3.56	73.7	3.89	37.0	3.07
	읍면	(38)	46.6	3.32	37.4	3.60	68.5	3.5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52.1	3.46	62.4	3.79	46.6	3.23
	외벌이	(176)	61.7	3.63	75.8	3.93	27.4	2.81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55.2	3.50	68.0	3.85	38.6	3.00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60.1	3.63	78.0	4.00	30.1	2.8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46.7	3.35	70.5	3.84	30.7	2.98
	300-500만 원 미만	(115)	64.2	3.72	71.9	3.90	31.4	2.89
	500만원 이상	(130)	56.6	3.51	68.6	3.86	41.0	3.08

주: 1)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⑤ 매우 동의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의 즐거움 정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에 대한 정도를 묻는 문항에 5점 만점 중에서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는 각각 21.4%, 24.5%, 32.6%인 반면 여자는 각각 41.7%, 27%, 57.4%였다.

맞벌이의 여부 역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벌이 가정은 맞벌이 가정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맞벌이 가정은 각각 50.0%, 36%, 57.6%였으나 외벌이 가정은 각각 18.5%, 18.5%, 36.1%로 맞벌이 가정에 비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낮았다.

연령의 차이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와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이 즐겁지 않은지를 묻는 문항에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세에서 30세 미만인 경우 각각 33.2%, 23.3%였으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는 각각 45.1%, 33.7%였다. 40세 이상 49세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20%, 17.5%였으며, 50세 이상인 경우는 각각 9%, 18.3%로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이 즐겁지 않은지에 대한 문항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거주지에 따라 응답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9.5%, 35.4%였으나 읍면의 경우에는 53.4%, 73.9%로 대도시에 비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다.

〈표 III-1-8〉 양육 스트레스

구분	사례 수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있음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이 즐겁지 않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음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31.6	2.70	25.8	2.60	45.0	3.17	
성별	남자	(150)	21.4	2.40	24.5	2.48	32.6	2.84
	여자	(150)	41.7	3.01	27.0	2.73	57.4	3.50

구분	사례 수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있음		아이가 태어난 후 생활이 즐겁지 않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음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4점 이상 비율	평균	
연령	19-30세 미만	(26)	33.2	2.92	23.3	2.86	48.6	3.44
	30-39세	(142)	45.1	3.00	33.7	2.81	50.1	3.22
	40-49세	(92)	20.0	2.38	17.5	2.20	36.9	3.07
	50세 이상	(40)	9.0	2.27	18.3	2.63	43.3	3.07
자녀 수	1명	(113)	35.2	2.92	29.5	2.76	44.1	3.23
	2명	(158)	28.1	2.52	23.0	2.49	44.5	3.15
	3명 이상	(29)	35.7	2.85	26.5	2.62	51.0	3.07
거주지	대도시	(175)	25.9	2.58	19.5	2.51	35.4	2.96
	중소도시	(87)	33.6	2.79	26.4	2.62	51.8	3.35
	읍면	(38)	53.4	3.06	53.4	3.01	73.9	3.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50.0	3.22	36.0	2.89	57.6	3.47
	외벌이	(176)	18.5	2.34	18.5	2.40	36.1	2.96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40.4	2.91	32.0	2.75	48.6	3.22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22.5	2.46	17.6	2.37	40.9	3.0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9.2	2.71	17.4	2.58	46.3	3.28
	300-500만 원 미만	(115)	26.9	2.54	22.6	2.54	39.3	3.02
	500만원 이상	(130)	36.6	2.85	32.0	2.67	49.5	3.26

주: 1)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 ⑤ 매우 동의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심층면담 결과 자녀는 존재 자체로 불행의 요인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들이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통 및 안전사고, 유괴, 아동학대 등 자녀와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이 길수록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은 분명하게 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아기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있어서 아기 랑 호흡을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애뜻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보면 은 그런 것 같아요...” (부2)

“아이가 있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이나, 이런 아이 커가면서 이렇게 보는 즐거움?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모2)

“...아이를 데리고 이런 저런 경험도 하잖아요, 놀러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여기저기 숙박도 다니고.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 했던 것들을 이 아이를 위해서 하면서 어린 시절 채우지 못한 나의 어떤 불만족, 이런 것들이 같이 채워져 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걸 느끼면서 이 아이로 인해서 뭔가 나도 채워진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보통 결혼 전과 다른 종류의 여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것들이 아이가 커가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2)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어. ‘행복은 육아다...’ 애를 낳아서 키우면서 행복감이 없는 게 아니거든, 되게 많아... 딱 예뻐 지으면 너무 예뻐. 한 10개월? 걷기 시작, 한 그러니까 애가 누워 있다가 뒤집기 하고 기고 걷고 말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죽 죽죽 만족도가 올라가고, 지금은 애가 하루하루 커가는 걸 못 보니까, 부쩍부쩍 크니까 그런 걸 못 봐서 아쉬운 것?” (부1)

“이제 뭐 아이가 뭐, 표현을 하니까. 엄마 사랑 한다 그런 거 하고, 말을 못하다가 시작하고 못하던 말을 하고 영어도 이렇게 읽고 그런 것들이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모2)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 가사일 분담 등은 행복감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다. 남편은 아내가 과도한 업무를 이해해 주고 지지를 해 줄 때, 아내는 남편이 가사일 을 적극적으로 분담해 줄 때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사실 저희 아내가 진짜 잘 하는 편이에요. 아니 진짜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가...” (부2)

출산 후는 밤낮이 바뀌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초보 부모로서 대처방안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아이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애기가 처음 태어나면... 자주 깨니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중에 애기 달래는 게 쉽지 않고,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부4)

“애 낳기 전 임신했을 때까지는 100점으로 따지면 거의 90점 가까이 행복도가 있었는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 애가 집에 오자마자 그때부터 스트레스야. 왜냐면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겁나잖아. 애를 키우지 못해봤으니까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애가 만 둘 될 때까지, 가장 신생아부터 1년까지는 행복도 보다는 긴장감의 연속? 불안함? 계속 불안한 어떤... 30점? 30점 정도...” (부1)

“그 해 이직을 해서 거의 남편 없이 진짜 독박 육아를 하루하루를 진짜 전쟁으로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첫째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 조금 숨통이 트었는데, (둘째가 몇 살 때?) 어린이집에 보낸 때가요?” (모6)

## 다. 일·가정양립

### 1) 조사결과

일·가정 양립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일·가정 양립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퇴근 후 피곤함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으로 인한 업무 지장에 대한 문항에서 한 달에 여러 번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8%, 47.4%였으며, 남자의 경우는 각각 45.7%, 24.1%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일과 가정에서의 양립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한 달에 여러 번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5%였으며, 30-39세 이하인 경우는 38.1%, 40-49세 이하의 경우에는 25%, 50세 이상의 경우는 37.1%였다.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응답한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퇴근 후 피곤함, 업무로 인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가족 구성원의 책임으로 인한 업무 지장이 발생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에는 각각 59.6%, 50.9%, 38.6%인 반면, 3명 이상인 경우는 각각 74.7%, 75%, 77.7%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 퇴근 후 피곤함과 가족 구성원 책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는 빈도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서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각 63.5%, 37.3%가 한 달에 여러 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읍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각 24.3%, 13.1%로 대도시에 비해 읍면 거주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퇴근 후의 피곤함과 가족 구성원 책임으로 인한 업무지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일·가정양립

구분		사례 수	퇴근 후 피곤	업무로 인해 가족 구성원 책임 수행 어려움	가족구성원 책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
전체		(300)	57.8	49.3	35.8
성별	남자	(150)	45.7	41.8	24.1
	여자	(150)	69.8	56.9	47.4
연령	19-30세 미만	(26)	68.4	61.8	58.5
	30-39세	(142)	54.3	48.9	38.1
	40-49세	(92)	60.7	45.8	25.0
	50세 이상	(40)	56.2	50.8	37.1
자녀 수	1명	(113)	59.6	50.9	38.6
	2명	(158)	53.3	43.4	25.9
	3명 이상	(29)	74.7	75.0	77.7
거주지	대도시	(175)	63.5	53.8	37.3
	중소도시	(87)	60.6	47.3	42.4
	읍면	(38)	24.3	33.5	1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61.9	49.8	39.7
	외벌이	(176)	54.8	49.0	33.0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55.1	50.8	39.6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58.7	47.7	31.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54.2	53.5	43.7
	300-500만 원 미만	(115)	52.6	50.2	33.7
	500만원 이상	(130)	63.8	46.8	34.3

주: 1) ① 전혀 발생하지 않음 ② 드물게 발생 ③ 1년에 여러 번 ④ 한 달에 여러 번, ⑤ 일주일에 여러 번 ⑥ 매일발생  
 2) 한 달에 여러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3)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한국사회는 회식문화, 주말 및 야간 업무가 많고 업무 외 시간 업무 연락이 많아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사회이고 이로 인해 일·가정양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와 이 프랑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했는데, 유럽 북부 같은데 보면 은 그 자녀, 일단은 퇴근시간이 5-6시가 되면 정확히 지켜지고 저녁은 반드시 저녁을 같이 가족과 먹는 것이 당연하

게 일반화 되어있다...가족과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종략) 당연히 이렇게 가족이 저녁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과연 당연한 건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2)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육아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직장마다, 부서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제도예요. 평생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게 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여자들도 좀 쓰기 어려운 분위기.... 저희처럼 박사 급 인력들이 육아휴직을 못해요. 왜냐면은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래요.” (부2)

“저희 회사는 자주 있는 편이지만, 아내는 드물게 회식이 있어요. 회식이 있으면 은, 막 밤 10시? 이럴 때까지 위에 사람이 이렇게 회식을 되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회식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참석하고 나면은 굉장히 고충이 커지거든요?” (부2)

“최고의 직장이지.... 부서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눈치 보지 않고 애 키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고지.” (부1)

## 라. 주거

### 1) 조사 결과

주거 시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여자와 남자의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에는 창문, 문, 바닥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22.3%로 여자가 남자보다 응답률이 낮았다. 실내 수세식 화장실의 부족, 목욕 또는 샤워 시설의 부족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의 경우 각각 11.9%, 7.1%인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22.6%, 16.3%로 남자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도 실내 수세식 화장실 부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28.2%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10.6%,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경우 22.9%,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5%였다.

자녀의 수에 따라서 주거 시설 문제에 대해 응답하는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 수가 1명인 경우에는 화장실 부족, 샤워시설 부족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5.1%, 8%였으며, 자녀 수가 2자녀인 경우에는 각각 15.8%, 10.2%인 반면,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3.2%, 33.8%로 주거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거주지에 따라서 공간부족, 창문, 문, 바닥의 부패, 온도유지를 위한 시설의 부족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각 문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6.7%, 26.3%였으며, 읍면 거주자의 경우 각각 80.2%, 58.8%로 대도시보다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반면, 냉방 등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한지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19.6%인 반면, 읍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3.9%로 대도시에 비해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주거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창문, 문 바닥의 부패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4%인 반면,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25.3%로 맞벌이 가정보다 낮았다. 실내 화장실의 부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정은 9.4%였으며, 외벌이 가정의 응답 비율은 22.8%로 맞벌이 가정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주거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문, 문, 바닥의 부패, 벽이나 지붕의 습기와 물 샘, 실내 수세식 화장실의 부족, 샤워 시설의 부족,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 부족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서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8%, 40%, 30.5%, 28.5%, 25.9%였으나,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27.1%, 10.9%, 13.7%, 7.3%, 10.5%로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보다 주거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표 III-1-10〉 주거 시설 문제

구분	사례 수	공간 부족	창문, 문, 바닥의 부패	벽이나 지붕에 습기 차거나 물이 샘	실내 수세식 화장실 부족	목욕 또는 샤워 시설 부족	난방, 냉방 등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 부족	
전체	(300)	52.8	29.9	19.5	17.2	11.7	15.5	
성별	남자	(150)	51.3	37.5	19.3	11.9	7.1	14.4
	여자	(150)	54.3	22.3	19.7	22.6	16.3	16.5
연령	19-30세 미만	(26)	57.9	28.3	32.9	28.2	16.1	18.2
	30-39세	(142)	56.3	32.3	16.2	10.6	6.9	11.8
	40-49세	(92)	51.4	29.2	22.2	22.9	14.8	19.1
	50세 이상	(40)	40.5	23.8	16.5	20.5	18.8	18.4
자녀 수	1명	(113)	47.5	24.4	17.7	15.1	8.0	9.4
	2명	(158)	55.5	35.3	20.3	15.8	10.2	21.4
	3명 이상	(29)	59.2	22.3	22.1	33.2	33.8	7.0
거주지	대도시	(175)	46.7	26.3	22.9	19.1	14.2	19.6
	중소도시	(87)	53.3	24.6	13.7	15.3	10.1	12.2
	읍면	(38)	80.2	58.8	17.0	13.1	3.9	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53.8	36.4	18.7	9.4	9.3	14.3
	외벌이	(176)	52.1	25.3	20.1	22.8	13.4	16.3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57.8	30.5	19.9	14.3	9.2	13.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46.0	28.4	20.9	20.6	13.7	16.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61.9	48.0	40.0	30.5	28.5	25.9
	300-500만 원 미만	(115)	46.0	24.5	19.6	15.1	8.8	16.2
	500만원 이상	(130)	55.1	27.1	10.9	13.7	7.3	10.5

주: 1) 각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주택가격이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학군이 좋은 곳은 지나치게 가격이 높고, 교육을 위해 시설이 좋지 못하더라도 좋은 학군이 위치해 있는 곳을 선호하는 문제점들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청년층이 돈 벌어서 집을 장만하여 결혼까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이가 키우기 좋은 곳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교육 때 문 좋은 학군으로 가면 주거 환경이 나쁜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부5)

“전반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젊은 사람들이 월급으로 돈 모아서 집사고 결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부 4)

“주변에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 봤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자녀가 있는 저 소득층 가구에는 주거 지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모5)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양질의 거주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대부분 LH전세자금 대출받는데 집주인이 LH전세자금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집주인이 거부하는 이유는 LH전세자금 대출 세입자를 받게 되면 발생하는 행정상의 문제, 재산공개 문제 등이었고,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주택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실매물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금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완화되기는 했는데, 우선은 자신의 재산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가 들어간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건물에 세입자가 얼마나 있고 그들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이런 부분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너무 신혼부부위주인거 같아요, 육아가구는 다자녀 말고는 지원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부6).

## 마. 사회적 교류

### 1) 조사 결과

사회적 교류에 원하는 시간 투자 정도를 살펴보면 자녀 또는 손주 돌보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남자는 39.7%, 여자 16.0%로 남자가 더 높았다. 맞벌이 일수록 사회적 교류에 원하는 시간 투자정도의 전반적인 비율이 줄고 가족들과 교류하기 혹은 자녀 손주 돌보기 같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투자하는 정도도 줄었지만 대신에 취미 또는 관심사(맞벌이: 27.2%, 외벌이 25.3%)와 같은 개인적 교류에 쏟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1-11〉 사회적 교류에 원하는 시간 투자 정도

구분		사례 수	가족들과 교류하기	가족 이외의 기타 사회적 교류	자원 봉사	취미 또는 관심사	자녀 또는 손주 돌보기
전체		(300)	26.3	29.4	60.4	26.1	27.9
성별	남자	(150)	27.1	31.0	57.4	22.2	39.7
	여자	(150)	25.5	27.8	63.3	29.9	16.0
연령	19-30세 미만	(26)	21.7	26.6	48.7	21.3	24.1
	30-39세	(142)	29.3	34.6	63.8	30.7	29.6
	40-49세	(92)	20.0	23.4	60.9	15.3	26.9
	50세 이상	(40)	33.3	26.8	54.7	37.3	26.3
자녀 수	1명	(113)	34.9	34.0	66.1	33.9	34.5
	2명	(158)	19.3	29.8	57.7	22.4	26.4
	3명 이상	(29)	30.7	9.7	52.3	15.6	10.1
거주지	대도시	(175)	26.1	28.1	59.6	24.4	30.4
	중소도시	(87)	28.0	34.5	63.7	29.4	26.3
	읍면	(38)	23.7	23.7	55.7	26.1	1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22.0	25.7	53.6	27.2	19.5
	외벌이	(176)	29.4	32.0	65.1	25.3	33.8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28.6	32.2	55.8	23.7	30.3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20.5	25.2	63.7	25.5	23.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18.9	21.9	54.9	30.4	19.9
	300-500만 원 미만	(115)	30.8	35.6	69.1	28.4	31.5
	500만원 이상	(130)	25.4	27.0	54.9	22.2	27.9

주: 1) 현재보다 많은 시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교류는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를 갖고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취미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아버지들도 시간이 없어 친구 교류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교류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산후조리원에서 맺은 새로운 관계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맞벌이인 경우는 이러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친구관계 다 끊었어요. 애기를 키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 친구 만나는 것 때

문에 아내랑 많이 싸웠어요.” (부 2).

“현실적으로 맞벌이인데 아내만 두고 친구만나기 어렵죠, 또 늦게 끝나니깐 친구들끼리 술한 잔 하기도 어려워요.” (부 4).

“저도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싶죠. 친구는 많이 못 만나고 산후조리원 동기들이랑은 자주 보려고 해요. 자녀 연령이 비슷하다보니깐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모 3).

“산후조리원 카톡 방이 있어요. 중요한 정보도 교환하고, 시간 맞으면 번개 모임도 갖고 그러는데 저는 직장이 있다보니깐 못나가요.” (모 4)

## 바. 건강

### 1) 조사 결과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거주지와 가구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좋은 편임과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지만, 읍면은 매우 나쁨과 또는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8%였다. 월 3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매우 나쁨 또는 나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2%였고, 300-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좋은 건강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7%, 25.7%로 300만원 미만의 가구보다 더 높았다.

〈표 III-1-12〉 전반적 건강상태

구분		사례 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은 편임+매우 좋음
전체		(300)	15.8	58.0	26.2
성별	남자	(150)	10.8	68.4	20.8
	여자	(150)	20.8	47.6	31.6
연령	19-30세 미만	(26)	15.3	59.7	24.9
	30-39세	(142)	15.4	58.1	26.5
	40-49세	(92)	15.0	55.5	29.5
	50세 이상	(40)	19.3	62.2	18.6
자녀 수	1명	(113)	21.9	52.3	25.7
	2명	(158)	14.0	58.7	27.3
	3명 이상	(29)	1.6	75.7	22.6
거주지	대도시	(175)	10.3	62.0	27.7
	중소도시	(87)	23.7	48.0	28.3
	읍면	(38)	22.8	62.6	1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15.7	55.8	28.5
	외벌이	(176)	15.8	59.5	24.6

구분		사례 수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은 편임+매우 좋음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15.0	60.2	24.8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13.2	56.9	29.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33.2	50.8	15.9
	300-500만 원 미만	(115)	12.7	55.6	31.7
	500만원 이상	(130)	11.3	63.1	25.7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일상 활동 제약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았다. 일상 활동 제약에 있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남자 68.8%, 여자 55.4%였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1.2%였으나 읍면에서는 82.4%로 더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00-500만원 미만은 66.8%,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집단은 68.4%로 높은 반면 300만원 미만 가구는 37.1%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13〉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일상 활동 제약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음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전체		(300)	62.1	35.3	2.5
성별	남자	(150)	68.8	30.0	1.1
	여자	(150)	55.4	40.6	4.0
연령	19-30세 미만	(26)	50.2	38.5	11.3
	30-39세	(142)	65.1	31.9	3.0
	40-49세	(92)	65.3	34.7	0.0
	50세 이상	(40)	52.0	47.1	.9
자녀 수	1명	(113)	59.5	37.9	2.6
	2명	(158)	66.0	31.1	2.9
	3명 이상	(29)	51.4	48.6	0.0
거주지	대도시	(175)	61.2	34.5	4.3
	중소도시	(87)	55.3	44.7	0.0
	읍면	(38)	82.4	17.6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69.6	29.9	.4
	외벌이	(176)	56.8	39.2	4.0

구분		사례 수	그렇지 않음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62.5	33.4	4.1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62.5	37.3	.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37.1	60.8	2.0
	300-500만 원 미만	(115)	66.8	27.9	5.3
	500만원 이상	(130)	68.4	31.3	.3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우울 위험과 관련된 문항에서 남자의 52.9%, 여자의 65.9%가 특히 신경이 날카로웠다고 답을 했고, 외로움은 남자 36.5%, 여자 59.7%, 낙심하고 우울한 기분은 남자 30.9%, 여자 52.9%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외로움이나 낙심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19-30세 미만의 사례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9.6%로 가장 높았고, 40-49세가 38.4%로 가장 낮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 별로 특히 신경이 날카로웠다고 답한 비율이 대도시 53.0%, 중소도시 71.5%, 읍면 61.2%로 그 차이가 있지만 크지 않았다. 낙심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43.1%, 51.8%인데 비해 읍면은 13.1%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와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과 낙심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표 III-1-14〉 우울 위험

구분		사례 수	나는 특히 신경이 날카로웠다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낙심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전체		(300)	59.4	48.1	41.9
성별	남자	(150)	52.9	36.5	30.9
	여자	(150)	65.9	59.7	52.9
연령	19-30세 미만	(26)	55.7	69.6	60.2
	30-39세	(142)	62.8	48.0	38.8
	40-49세	(92)	53.9	38.4	32.1
	50세 이상	(40)	62.6	56.7	63.2

구분		사례 수	나는 특히 신경이 날카로웠다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낙심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자녀 수	1명	(113)	60.4	56.4	45.8
	2명	(158)	56.7	42.5	34.9
	3명 이상	(29)	70.2	46.7	64.2
거주지	대도시	(175)	53.0	47.4	43.1
	중소도시	(87)	71.5	60.0	51.8
	읍면	(38)	61.2	23.7	1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67.7	44.9	43.3
	외벌이	(176)	53.5	50.4	40.9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58.4	51.3	41.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56.2	43.8	42.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66.0	59.5	54.3
	300-500만 원 미만	(115)	50.6	51.5	39.1
	500만원 이상	(130)	64.5	40.4	39.2

주: 1) ① 전혀 없었음 ② 거의 없었음 ③ 절반 이하 ④ 절반 이상 ⑤ 대부분 ⑥ 항상  
 2) 절반 이상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④~⑥)  
 3)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전반적으로 육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감에 대한 정서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들은 허리,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시달려 신체적인 불편증상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날 몸이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모4)

“친정 엄마는 이제 그러면 본인의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지고 육체적으로도 그때는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되게 미안하죠. 말기면 아이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는데 엄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모2)

“몸이 아이 키우면 아기 띠 오래하니깐 허리 아프고 모유 수유하면 어깨 아프고 그런 것들? 진짜 몸이 원래는 되게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좀 피곤하던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그리고 허리 아픈 것 없었는데 애 낳고 생겼고 어깨도 그렇고... 여기저기 아픈 것 같아요.” (모6)

“애기가 태어나면서 미친 듯이 우울해지는 거야. 진지함의 폭이 되게 넓어지면서 어떤 때는 행복이 피크를 찍고, 어떨 때는 불안감이 피크를 찍고, 어떨 때는 죄책감이 피크를 찍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우울할 때도 있고.” (부1)

## 2. 공공서비스 질

### 가. 공공서비스 질 전반

19-30세 미만 집단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10점 만점 중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30세 미만 54.0%, 30-39세 76.4%, 40-49세 64.3%, 50세 이상 71.7%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300만원 미만 가구가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다.

교육제도 만족도에 대해서는 자녀 수,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제도 만족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자녀 수가 3명이상일 때는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2%였으나, 자녀 수가 1명일 때는 55.3%, 2명일 때는 57.7%였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만족도 수준이 달랐으며 연령이 19-30세 미만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II-2-1〉 공공서비스의 질1

구분	사례 수	의료서비스		교육제도		대중교통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70.1	7.54	58.8	6.81	74.5	7.63	
성별	남자	(150)	74.8	7.73	63.0	6.93	77.6	7.71
	여자	(150)	65.4	7.35	54.6	6.70	71.3	7.54
연령	19-30세 미만	(26)	54.0	6.90	40.4	6.21	51.7	6.65
	30-39세	(142)	76.4	7.89	66.9	7.04	76.1	7.88
	40-49세	(92)	64.3	7.24	49.5	6.52	74.3	7.42
	50세 이상	(40)	71.7	7.44	63.6	7.07	84.2	7.86
자녀 수	1명	(113)	72.5	7.63	55.3	6.63	78.0	7.70
	2명	(158)	65.2	7.35	57.7	6.79	73.1	7.54
	3명 이상	(29)	87.1	8.22	78.2	7.66	68.3	7.79
거주지	대도시	(175)	71.8	7.60	57.5	6.89	79.7	7.78
	중소도시	(87)	73.2	7.61	54.1	6.60	68.5	7.39
	읍면	(38)	54.9	7.12	75.7	6.96	64.1	7.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72.8	7.64	60.2	6.95	75.1	7.73
	외벌이	(176)	68.2	7.47	57.8	6.71	74.0	7.55

구분		사례 수	의료서비스		교육제도		대중교통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72.1	7.58	61.2	6.92	73.1	7.65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68.6	7.56	57.4	6.84	76.0	7.6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47.5	6.56	42.3	6.27	55.4	6.50
	300-500만 원 미만	(115)	74.0	7.68	65.8	6.83	76.9	7.70
	500만원 이상	(130)	76.1	7.83	59.4	7.02	80.3	8.03

주: 1) ① 매우 열악함 ~ ⑩ 매우 우수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육아서비스의 만족도는 거주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만족도가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1.6%, 중소도시 57.7%, 읍면 36.8%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육아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만족도가 다른 공공서비스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매우 낮았다. 국민연금에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에 불과하여 다른 공공서비스에 비해 30%이상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II-2-2〉 공공서비스의 질2

구분		사례 수	육아서비스		국민연금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63.2	6.99	30.3	5.48
성별	남자	(150)	59.4	6.92	31.1	5.23
	여자	(150)	66.9	7.07	29.4	5.72
연령	19-30세 미만	(26)	53.7	6.54	23.7	5.64
	30-39세	(142)	61.2	6.95	31.0	5.33
	40-49세	(92)	60.2	6.89	26.8	5.39
	50세 이상	(40)	83.3	7.68	40.0	6.07
자녀 수	1명	(113)	61.4	6.95	28.5	5.50
	2명	(158)	64.5	6.90	28.3	5.34
	3명 이상	(29)	62.8	7.67	47.3	6.16
거주지	대도시	(175)	71.6	7.22	31.7	5.61
	중소도시	(87)	57.7	6.88	30.8	5.65
	읍면	(38)	36.8	6.19	22.2	4.45

구분		사례 수	육아서비스		국민연금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63.2	6.98	27.2	5.39
	외벌이	(176)	63.2	7.00	32.4	5.54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62.8	6.97	32.9	5.53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65.1	7.14	31.7	5.6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51.2	6.52	15.8	4.98
	300-500만 원 미만	(115)	68.1	7.19	41.6	5.84
	500만원 이상	(130)	63.8	7.02	26.2	5.36

주: 1) ① 매우 열악함 ~ ⑩ 매우 우수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나. 의료 서비스

### 1) 조사 결과

일반 병원 및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에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5.6%, 대형(종합) 병원에 응답한 비율은 71.7%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일반병원 및 보건소 대형(종합) 병원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19-30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에는 일반 병원 및 보건소, 대형(종합병원)에 7점 이상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40%였으나 다른 연령대에서 60% 이상이였으며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80%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병원 및 보건소의 만족도는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녀 수가 1명일 경우 62.1%, 2명 66.3%, 3명 75.4%이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일반병원 및 보건소나 대형(종합) 병원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병원 및 보건소의 서비스 만족도에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44.8%, 300-500만원 미만은 67.5%, 500만원 이상은 72.5%였다.

〈표 III-2-3〉 의료 서비스 수준

구분		사례 수	일반 병원 및 보건소		대형(종합) 병원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65.6	7.1	71.7	7.5
성별	남자	(150)	68.6	7.1	72.6	7.5
	여자	(150)	62.5	7.1	70.7	7.4
연령	19-30세 미만	(26)	42.5	6.3	45.3	6.6
	30-39세	(142)	69.8	7.4	77.7	7.7
	40-49세	(92)	58.1	6.7	65.3	7.3
	50세 이상	(40)	83.0	7.5	82.0	7.7
자녀 수	1명	(113)	62.1	7.0	71.8	7.5
	2명	(158)	66.3	7.0	70.1	7.4
	3명 이상	(29)	75.4	8.0	79.4	7.7
거주지	대도시	(175)	66.0	7.1	72.5	7.5
	중소도시	(87)	67.6	7.1	67.2	7.4
	읍면	(38)	58.8	7.1	77.8	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70.7	7.4	75.7	7.6
	외벌이	(176)	61.9	6.9	68.8	7.3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63.8	7.2	70.7	7.4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67.3	7.2	73.5	7.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44.8	6.2	56.1	6.9
	300-500만 원 미만	(115)	67.5	7.2	75.7	7.5
	500 만원 이상	(130)	72.5	7.4	74.5	7.7

주: 1) ① 매우 열악함 ~ ⑩ 매우 우수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일반병원 또는 보건소 이용의 어려움에서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일반병원 또는 보건소까지의 거리로 59.4%가 어렵다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진료 예약이 지연되는 정도 48.1%, 진료받기까지의 대기시간, 진료 비용, 업무 또는 자녀 돌봄으로 인한 진료 시간대 조율은 모두 41.9%였다. 집단 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4〉 일반병원 또는 보건소 이용의 어려움

구분	사례 수	일반병원 또는 보건소까지 의 거리	진료 예약이 지연되는 정도	진료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	진료 비용	업무 또는 자녀 돌봄으로 인한 진료 시간대 조율	
전체	(300)	59.4	48.1	41.9	41.9	41.9	
성별	남자	(150)	52.9	36.5	30.9	30.9	30.9
	여자	(150)	65.9	59.7	52.9	52.9	52.9
연령	19-30세 미만	(26)	55.7	69.6	60.2	60.2	60.2
	30-39세	(142)	62.8	48.0	38.8	38.8	38.8
	40-49세	(92)	53.9	38.4	32.1	32.1	32.1
	50세 이상	(40)	62.6	56.7	63.2	63.2	63.2
자녀 수	1명	(113)	60.4	56.4	45.8	45.8	45.8
	2명	(158)	56.7	42.5	34.9	34.9	34.9
	3명 이상	(29)	70.2	46.7	64.2	64.2	64.2
거주지	대도시	(175)	53.0	47.4	43.1	43.1	43.1
	중소도시	(87)	71.5	60.0	51.8	51.8	51.8
	읍면	(38)	61.2	23.7	13.1	13.1	1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67.7	44.9	43.3	43.3	43.3
	외벌이	(176)	53.5	50.4	40.9	40.9	40.9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58.4	51.3	41.9	41.9	41.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56.2	43.8	42.1	42.1	42.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66.0	59.5	54.3	54.3	54.3
	300-500만 원 미만	(115)	50.6	51.5	39.1	39.1	39.1
	500만원 이상	(130)	64.5	40.4	39.2	39.2	39.2

주: 1) ① 매우 어려움 ② 약간 어려움 ③ 어렵지 않다 응답 중 ③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심층면담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내 좋은 소아과는 한정되어 있고 좋은 소아과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급할 때 빨리 갈 수 있는 소아 응급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희가 있는 곳은 괜찮은 소아과가 없어요.” (부2)

“소아과가 너무 부족해요. 겨울에 가면 한 시간 두 시간, 어쩔 때는 대기 인원 오전에 다 차서 막 오후에 오라고 그러고...” (모2)

“퇴근하고 나서 이제 병원 야간 진료 안보면 힘드니까 야간 진료 량 주말진료 있는 병원을 다 파악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까운 데를 응급할 때는 가까운 데를 가고, 응급하지 않으면 애가 좋아하고 편안한 병원으로 가는 거죠.” (모1)

## 다. 보육 서비스

### 1) 조사 결과

보육 서비스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에 7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녀 수가 1명일 때 39.1%, 2명일 때 39.3%, 3명 이상일 때 31.0%였고, 교사의 관심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 수가 1명일 때 41.5%, 2명일 때 39.4%, 3명 이상일 때 29.4%로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7점 이상 주는 비율이 낮아졌다.

시설의 질, 교사의 관심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질과 교사 관심에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0만원 미만일 때 각각 18.6%, 21.5%, 300-500만원 미만일 때 47.5%, 44.9%, 500만원 이상일 때 43.2%, 41.5%였다.

〈표 III-2-5〉 보육 만족도1

구분	사례 수	시설의 질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교사의 관심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140)	40.4	8.3	38.4	8.0	39.2	8.3
성별	남자 (76)	43.8	8.5	42.2	8.0	42.9	8.5
	여자 (63)	37.0	8.1	34.6	8.1	35.4	8.2
연령	19-30세 미만 (16)	37.8	7.3	40.6	7.9	37.2	7.7
	30-39세 (95)	60.0	8.4	55.0	8.0	57.5	8.5
	40-49세 (27)	27.0	8.5	27.3	8.1	27.5	8.4
	50세 이상 (1)	3.3	8.3	3.3	7.9	2.1	7.3
자녀 수	1명 (50)	39.2	8.5	39.1	8.5	41.5	8.8
	2명 (76)	43.0	8.4	39.3	7.8	39.4	8.2
	3명 이상 (13)	31.0	7.2	31.0	7.3	29.4	7.5

구분	사례 수	시설의 질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교사의 관심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거주지	대도시	(82)	40.2	8.3	38.1	8.1	39.7	8.4
	중소도시	(31)	30.7	8.1	31.9	8.3	31.4	8.3
	읍면	(27)	64.1	8.4	54.9	7.4	54.9	8.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	50.8	8.3	47.7	7.9	48.8	8.2
	외벌이	(70)	33.0	8.3	31.8	8.1	32.4	8.5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40)	68.6	8.3	65.2	8.0	66.6	8.3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41)	22.1	8.4	20.9	8.1	21.1	8.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6)	18.6	7.3	19.1	7.1	21.5	7.3
	300-500만 원 미만	(65)	47.5	8.2	45.1	8.1	44.9	8.3
	500만원 이상	(59)	43.2	8.7	40.4	8.2	41.5	8.7

주: 1) ① 매우 만족 ~ ⑩ 매우 불만족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또한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커리큘럼 및 활동 역시 자녀 수가 적을수록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보육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은 자녀 수가 1명일 때 40.9%, 2명일 때 39.8%, 3명 이상일 때 31.0%였다. 커리큘럼 및 활동은 자녀 수가 1명일 때 43.2%, 2명일 때 39.4%, 3명 이상일 때 31.0%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커리큘럼 및 활동에 대해 21.5%가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집단에서는 각각 45.9%, 42.5%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보육 만족도2

구분	사례 수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커리큘럼2 및 활동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140)	39.4	7.9	40.0	8.1	
성별	남자	(76)	42.1	7.8	43.3	8.2
	여자	(63)	36.7	8.0	36.7	8.0
연령	19-30세 미만	(16)	40.6	7.4	41.3	7.5
	30-39세	(95)	57.0	8.0	58.1	8.3

구분	사례 수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커리큘럼2 및 활동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40-49세	(27)	27.5	7.9	27.5	8.0
	50세 이상	(1)	3.3	8.0	3.3	8.4
자녀 수	1명	(50)	40.9	8.5	43.2	8.6
	2명	(76)	39.8	7.7	39.4	8.0
	3명 이상	(13)	31.0	6.8	31.0	7.3
거주지	대도시	(82)	40.1	8.0	41.3	8.1
	중소도시	(31)	31.3	8.2	30.9	8.3
	읍면	(27)	54.9	7.2	54.9	8.1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	50.1	7.9	50.7	8.1
	외벌이	(70)	31.8	7.9	32.4	8.2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40)	66.9	7.9	67.9	8.1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41)	21.3	7.9	21.4	8.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6)	19.1	7.1	21.5	7.1
	300-500만원 미만	(65)	45.4	7.9	45.9	8.2
	500만원 이상	(59)	42.5	8.2	42.5	8.3

주: 1) ① 매우 만족 ~ ⑩ 매우 불만족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가구소득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금전적 부담감에 차이가 있었다.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자 중 72.8%가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16.2%는 매우 부담, 11.1%는 부담되지 않았다고 답을 했고 300-5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자 중 48.8%가 약간의 부담, 33.8%가 부담되지 않음, 17.4%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을 하였다.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자는 52.4%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을 했으며, 37.0%가 약간의 부담, 10.6%만이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자들 중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금전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전체의 89%로 현저하게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자들의 과반수인 52.4%는 이 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 가구소득별 금전적 부담감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7〉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금전적 부담감

구분		사례 수	매우 부담되었음	약간 부담되었음	부담되지 않았음
전체		(140)	14.5	47.8	37.8
성별	남자	(76)	14.5	47.6	37.9
	여자	(63)	14.5	48.0	37.6
연령	19-30세 미만	(16)	16.1	49.8	34.1
	30-39세	(95)	15.3	42.0	42.7
	40-49세	(27)	9.6	66.2	24.3
	50세 이상	(1)	19.8	80.2	0.0
자녀 수	1명	(50)	16.0	48.5	35.5
	2명	(76)	13.7	42.1	44.2
	3명 이상	(13)	10.7	82.4	6.9
거주지	대도시	(82)	16.7	48.0	35.3
	중소도시	(31)	15.4	50.4	34.2
	읍면	(27)	5.1	42.6	5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	14.9	43.9	41.2
	외벌이	(70)	14.1	51.1	34.9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40)	14.5	47.8	37.8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41)	14.3	59.1	26.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6)	16.2	72.8	11.1
	300-500만 원 미만	(65)	17.4	48.8	33.8
	500만원 이상	(59)	10.6	37.0	52.4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보육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와 시설의 질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관련 뉴스가 보도 등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장시간 자녀를 맡김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했으며, 그리고 사립유치원, 영어 유치원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비싸다는 인식이 강했다.

“우리나라 보육 질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모1)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보면 솔직히 선생님들을 믿기는 하지만 불안하기는 해요.” (모5)

“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 뉴스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모5)

“우리나라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너무 길게 맡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지 않으니깐 3시쯤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 좀 길게 맡기고 늦게 찾으러 가면 그렇게 울어요, 맞벌이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3)

“분명한 것은 옛날보다 어린이집 부담이 줄어들은 것 사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고 방과후나 특별활동까지 하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에요(부2).

“솔직히 단지 내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는 불만족스러워요, 맞벌이고 맡길 때가 없어서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 2)

## 라. 교육

### 1) 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에 대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보육 만족도에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평균값과 7점 이상 비율이 낮아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특히 교사의 관심에서 자녀 수에 차이 따른 평균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자녀 1명인 경우에는 7점 이상 만족한다는 비율이 14.6%, 2명인 경우에는 31.8%, 3명 이상인 경우에는 82.7%였다. 맞벌이 여부에서도 교사의 관심의 만족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맞벌이인 경우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 외벌이인 경우는 28.7%로 맞벌이가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도 마찬가지로 맞벌이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 교육 만족도1

구분	사례 수	시설의 질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교사의 관심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140)	37.1	7.3	31.9	7.0	30.3	6.9	
성별	남자	(76)	32.8	7.1	28.0	6.8	23.7	6.7
	여자	(63)	41.3	7.5	35.8	7.2	37.0	7.1

구분	사례 수	시설의 질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교사의 관심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연령	19-30세 미만	(16)	7.6	7.4	3.8	6.9	1.7	6.4
	30-39세	(95)	21.6	7.5	23.2	7.5	20.8	7.1
	40-49세	(27)	54.9	7.1	43.5	6.6	38.3	6.5
	50세 이상	(1)	70.4	7.5	54.8	7.1	64.8	7.3
자녀 수	1명	(50)	19.7	7.0	16.0	6.6	14.6	6.4
	2명	(76)	40.7	7.4	37.0	7.1	31.8	6.8
	3명 이상	(13)	84.4	7.5	65.6	7.2	82.7	7.7
거주지	대도시	(82)	39.8	7.3	34.9	7.1	34.3	7.0
	중소도시	(31)	35.5	7.3	31.6	6.8	27.5	6.6
	읍면	(27)	27.6	7.6	18.5	7.0	18.5	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	35.3	7.5	37.3	7.6	32.7	7.3
	외벌이	(70)	38.3	7.2	28.0	6.6	28.7	6.7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40)	15.8	7.5	15.5	7.2	14.7	7.2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41)	65.6	7.3	56.3	7.0	53.6	6.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6)	34.4	7.4	36.7	7.0	27.6	6.9
	300-500만 원 미만	(65)	35.9	7.6	30.8	7.2	28.8	6.9
	500만원 이상	(59)	39.2	7.1	30.8	6.8	32.8	6.9

주: 1) ① 매우 만족 ~ ⑩ 매우 불만족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또한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은 성별, 연령, 자녀 수에 따라 만족도의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만족도에 7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응답자는 남자 24.5%, 여자 38.5%로 여자의 만족도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 제공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19-30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 30-39세 21.7%, 40-49세 40.4%, 50세 이상 65.1%였다. 자녀 수가 1명일 때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 2명일 때 33.1%, 3명 이상일 때 84.4%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표 III-2-9〉 교육 만족도2

구분	사례 수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커리큘럼 및 활동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140)	31.5	6.8	31.2	6.7	
성별	남자	(76)	24.5	6.5	27.6	6.5
	여자	(63)	38.5	7.2	34.8	6.8
연령	19-30세 미만	(16)	1.7	5.3	3.8	6.0
	30-39세	(95)	21.7	7.4	20.4	7.1
	40-49세	(27)	40.4	6.4	44.0	6.4
	50세 이상	(1)	65.1	7.1	58.1	6.8
자녀 수	1명	(50)	15.4	6.2	15.4	6.2
	2명	(76)	33.1	6.8	36.9	6.8
	3명 이상	(13)	84.4	7.6	61.1	6.9
거주지	대도시	(82)	36.5	7.0	34.0	6.8
	중소도시	(31)	27.0	6.5	27.1	6.4
	읍면	(27)	18.5	6.7	27.6	7.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	34.5	7.4	33.3	7.5
	외벌이	(70)	29.3	6.5	29.7	6.2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40)	15.0	7.6	14.4	7.2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41)	55.6	6.9	55.4	6.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6)	29.6	6.7	35.0	6.6
	300-500만 원 미만	(65)	29.6	7.2	31.4	6.9
	500 만원 이상	(59)	33.9	6.7	29.4	6.5

주: 1) ① 매우 만족 ~ ⑩ 매우 불만족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전형적인 한국의 경쟁적 교육관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했고, 부모의 교육 가치관에 따라 생기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쟁적인 한국 교육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싫어하면서도 경향도 있었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등 사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제주도로 이민 가야 되냐, 해외 이민 가야 되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애가 뛰어다니지를 못하니까. 뛰어다니는 교육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조성

안돼서...” (모1)

(뭐 좋은 학교 못갈까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애가 너무 간혀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에 시달릴까 봐 그게 걱정이지. 불쌍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집에도 못 가고 7시까지 학원을 전전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모3)

(자연스럽게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게 뭐 누가 애가 영어 발음을 했다고 그러면 집에 와서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모2)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잖아. 다 모든 게 빠르니까, 발음이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잖아. 애보다 몇 개월 빠른 애가 샤희? 상어라고 말을 하고 아내가 그걸 듣고 오면, ...(아니 악어라고 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에 휴... 비교가 안 하려고 해도 되더라고. 엄마들끼리 특히. “ (부모1)

“교육에 대한 불만은 많아. 특히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지금 애 나이 또래서부터 초등학교 전까지는 아침에 보내 갖고 저녁에 우리가 퇴근하기 전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 버리면 3시 2시? 그 다음 이후시간부터는 뽕뽕이를 돌려야 되는데 불안하죠. 그리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애를 케어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벌써부터 있는 것 같아요.” (부1)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로서 유아동기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하원 후 퇴근까지 빈 공백 기간 동안 위탁에 대한 불안과 우려도 응답하였다.

“원래 애가 유학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거든.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몇 개월 전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지가 능력이 돼서 나가겠다고 하면 내보내려고. 어차피 지 인생인데, 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려고. 아내도 그러길 원하니까. 애가 지가 유학을 가서 월 한다고 하면 보내겠다,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부3)

“특히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지금 애 나이 또래서부터 초등학교 전까지는 아침에 보내 갖고 저녁에 우리가 퇴근하기 전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 버리면 3시 2시? 그 다음 이후 시간부터는 뽕뽕이를 돌려야 되는데 불안하죠. 그리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애를 케어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벌써부터 있는 것 같아요.” (부1)

“네, 민간 어린이집 인데, 아이들 뭐 활동비 따로 내는 그런 거... (17만원이요?) 네, 17만 5천원. 그렇게 내는데, 가운이가 작년에 7살이어서 둘이 같이 다녔으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죠. 35만원을 매달 내야 되니까.” (모6)

### 3. 사회 질

#### 가. 사회적 불안정성

##### 1) 조사 결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10점 만점 중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였으며, 경제상황에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 노후소득에 걱정에 10점 만점 중 7점 이상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였다.

민주주의 만족도는 자녀 수가 민주주의와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5%, 31.0%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자녀 수가 많아짐에 따라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 수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이상일 때는 7점 이상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3%로 2명일 때 44.6%에 비해 매우 높았다.

남자의 41.7%, 여자의 59.7%가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낮은 연금제도 우수성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상황 만족도는 300-500만원 소득 계층이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7.2%로 고소득층인 500만원 이상이 응답한 비율 18.2%보다도 높았다.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도 최저소득인 300만원 미만 계층보다 300-5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3-1〉 사회적 불안정성

구분	사례 수	민주주의		경제상황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31.2	5.39	21.3	4.62	50.7	6.53	
성별	남자	(150)	31.3	5.44	23.6	4.66	41.7	6.02
	여자	(150)	31.1	5.35	18.9	4.57	59.7	7.04
연령	19-30세 미만	(26)	28.7	4.66	20.6	4.57	49.5	6.54
	30-39세	(142)	32.8	5.59	22.7	4.72	49.8	6.33
	40-49세	(92)	24.6	5.17	19.3	4.42	50.1	6.74
	50세 이상	(40)	42.3	5.66	20.9	4.72	56.0	6.78

구분	사례 수	민주주의		경제상황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자녀 수	1명	(113)	38.4	5.19	25.1	4.45	53.1	6.53
	2명	(158)	23.6	5.37	16.7	4.53	44.6	6.28
	3명 이상	(29)	44.5	6.24	31.0	5.73	74.3	7.89
거주지	대도시	(175)	30.5	5.27	21.8	4.48	48.9	6.47
	중소도시	(87)	39.6	5.55	23.7	5.02	54.5	6.65
	읍면	(38)	14.6	5.56	13.1	4.33	50.5	6.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23.9	5.43	13.2	4.47	46.7	6.31
	외벌이	(176)	36.4	5.36	27.0	4.72	53.6	6.69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29.5	5.44	22.7	4.72	48.3	6.37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34.3	5.49	22.9	4.67	53.8	6.7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1.9	4.50	15.9	3.87	56.0	6.97
	300-500만 원 미만	(115)	33.1	5.60	27.2	4.90	62.7	6.97
	500만원 이상	(130)	33.3	5.58	18.2	4.68	37.8	5.97

주: 1) 민주주의와 경제 상황의 측정 척도는 ① 매우 불만족 ~ ⑩ 매우 만족이고, 노후 소득에 대한 측정 척도는 ① 전혀 걱정하지 않음 ~ ⑩ 매우 걱정함임.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심층 면담결과 직장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과거에 비해 자녀를 늦게 출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결혼까지 지원을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물질적 지지 등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직장이 가장 걱정 되요,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가 늦게 애를 늦게 낳으니깐 더 오래 일 해야 하잖아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야 하니깐, 요샌 평생 직장이 없다보니깐.”(부3)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되요.. 제 신분이 불안정 하다보니...”(부4)

“그래도 저희는 애들이 있으니깐,, 나중에 늙으면 애들이 돌봐주지 않을까요?”(모4)

## 나. 사회 갈등 및 신뢰

### 1) 조사 결과

빈곤층과 부유층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2%로 경영진과 근로자 56.6%, 남녀성과 여성 43.9%에 비해 높았다. 빈곤층과 부유층과 관련해서는 읍면 지역이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8%로 대도시 53.7%에 비해 높았다.

경영진과 근로자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자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남자 49.6%에 비해 높았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 지역이 41.3%로 가장 낮았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연령, 자녀 수,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 대도시 일수록 남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2〉 집단 간 갈등

구분		사례 수	빈곤층과 부유층	경영진과 근로자	남성과 여성
전체		(300)	64.2	56.6	43.9
성별	남자	(150)	62.8	49.6	43.2
	여자	(150)	65.6	63.5	44.5
연령	19-30세 미만	(26)	53.7	46.3	51.0
	30-39세	(142)	68.3	56.1	49.2
	40-49세	(92)	57.6	56.9	45.4
	50세 이상	(40)	71.8	64.2	16.6
자녀 수	1명	(113)	62.9	63.7	51.2
	2명	(158)	64.0	52.1	43.9
	3명 이상	(29)	70.4	53.3	15.6
거주지	대도시	(175)	53.7	55.6	36.4
	중소도시	(87)	73.9	65.1	53.8
	읍면	(38)	90.8	41.3	5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65.0	53.1	50.0
	외벌이	(176)	63.6	59.0	39.5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61.3	50.4	49.4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63.2	61.7	34.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68.5	65.8	45.7
	300-500만 원 미만	(115)	67.9	54.4	42.2
	500만원 이상	(130)	59.1	54.7	44.6

- 주: 1) ① 매우 많음, ② 어느 정도 있음 ③ 없음  
 2)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  
 3)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은 국회로 10점 만점 중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4%에 불과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일 때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5%였고 3명이상인 경우에는 30.2%였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0.5%에 불과하였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신뢰1

구분	사례 수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		사법 제도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14.5	4.48	5.4	2.85	8.1	3.59	
성별	남자	(150)	14.8	4.71	4.4	2.95	8.3	3.74
	여자	(150)	14.2	4.26	6.4	2.74	7.9	3.44
연령	19-30세 미만	(26)	16.0	4.34	20.6	3.63	19.3	3.98
	30-39세	(142)	11.3	4.41	5.2	2.95	4.8	3.64
	40-49세	(92)	18.9	4.50	3.5	2.71	11.4	3.48
	50세 이상	(40)	14.9	4.81	0.5	2.27	4.9	3.43
자녀 수	1명	(113)	12.5	4.09	8.5	2.93	8.0	3.26
	2명	(158)	13.0	4.64	4.1	2.80	7.5	3.72
	3명 이상	(29)	30.2	5.14	0.0	2.78	11.7	4.15
거주지	대도시	(175)	13.9	4.50	5.5	2.80	9.5	3.66
	중소도시	(87)	20.3	4.37	5.8	2.70	7.0	3.20
	읍면	(38)	3.9	4.68	3.9	3.41	3.9	4.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10.9	4.49	4.5	2.96	6.4	3.72
	외벌이	(176)	17.1	4.48	6.0	2.77	9.3	3.50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14.4	4.54	7.1	3.17	10.3	3.9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18.3	4.63	4.2	2.73	9.0	3.52

구분	사례 수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		사법 제도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12.2	4.01	3.5	2.90	5.1	3.12
	300-500만 원 미만	(115)	15.9	4.62	7.9	2.78	9.5	3.75
	500 만원 이상	(130)	14.3	4.57	3.9	2.89	8.1	3.65

주: 1) ① 전혀 신뢰하지 않음 ~ ⑩ 매우 신뢰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1.4% 수준이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남자 14.1%, 여자 15.2%만이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여자가 경찰을 신뢰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수가 3명 이상일 때 7점 이상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2%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경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4.7%로 읍면 3.9%에 비해 높았다.

〈표 III-3-4〉 신뢰2

구분	사례 수	뉴스 매체		경찰		정부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11.4	3.75	14.6	4.10	16.4	4.29	
성별	남자	(150)	7.0	3.70	14.1	4.42	15.0	4.43
	여자	(150)	15.8	3.79	15.2	3.79	17.8	4.15
연령	19-30세 미만	(26)	19.1	4.08	16.0	3.90	15.1	4.09
	30-39세	(142)	7.3	3.44	10.7	4.25	17.9	4.52
	40-49세	(92)	11.1	3.98	15.8	3.96	13.7	4.00
	50세 이상	(40)	21.8	4.09	25.0	4.06	18.0	4.28
자녀 수	1명	(113)	10.0	3.40	14.3	3.59	22.4	4.34
	2명	(158)	11.0	3.92	12.8	4.41	9.7	4.15
	3명 이상	(29)	19.4	4.16	26.2	4.45	29.5	4.88
거주지	대도시	(175)	10.1	3.86	15.0	3.95	14.9	4.00
	중소도시	(87)	15.7	3.54	16.8	3.90	24.7	4.73
	읍면	(38)	7.8	3.72	7.8	5.32	3.9	4.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9.5	3.68	11.2	4.16	11.9	4.21
	외벌이	(176)	12.8	3.79	17.1	4.06	19.6	4.34

구분	사례 수	뉴스 매체		경찰		정부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11.5	3.72	12.6	4.39	17.7	4.53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14.4	4.08	18.2	4.03	14.6	4.10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13.6	3.80	13.2	3.73	13.8	3.68
	300-500만 원 미만	(115)	12.3	4.04	15.9	4.36	16.6	4.43
	500 만원 이상	(130)	9.7	3.46	14.1	4.03	17.4	4.42

주: 1) ① 전혀 신뢰하지 않음 ~ ⑩ 매우 신뢰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10점 만점 중 7점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였으며 집단 별로 큰 차이가 있지 않았다. 은행에 대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3-5〉 신뢰3

구분	사례 수	지방자치 단체		은행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전체	(300)	8.9	3.96	31.7	5.22	
성별	남자	(150)	9.6	4.13	38.5	5.55
	여자	(150)	8.2	3.79	24.9	4.88
연령	19-30세 미만	(26)	16.3	4.32	25.4	4.54
	30-39세	(142)	6.3	4.16	36.0	5.43
	40-49세	(92)	10.6	3.57	25.0	4.94
	50세 이상	(40)	9.4	3.93	35.7	5.54
자녀 수	1명	(113)	10.8	3.86	22.8	4.81
	2명	(158)	6.3	3.98	37.0	5.42
	3명 이상	(29)	15.3	4.26	37.4	5.68
거주지	대도시	(175)	9.6	3.82	30.9	5.22
	중소도시	(87)	9.5	4.09	20.5	4.82
	읍면	(38)	3.9	4.34	61.2	6.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6.5	4.10	37.4	5.35
	외벌이	(176)	10.6	3.87	27.7	5.12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10.2	4.34	38.6	5.43

구분		사례 수	지방자치 단체		은행	
			7점 이상 비율	평균	7점 이상 비율	평균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9.1	3.75	29.3	5.2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9.6	3.45	22.7	4.45
	300-500만 원 미만	(115)	10.6	4.04	30.4	5.40
	500만원 이상	(130)	7.1	4.11	36.6	5.37

주: 1) 전혀 신뢰하지 않음 ~ ⑩ 매우 신뢰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자녀의 육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조부모와 부모 간의 세대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해졌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후에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이민자 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부모도 있었다.

“저는 약간 과잉보호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풀어놓고 아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허용 적인 편인데, 엄마는 절대 넘어져도 안 되고 과잉보호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아이가 안 먹으면 아이가 배고플 때까지 기다린단든지 굶긴단든지 하고 싶는데 할머니나 보니까 어떻게 든 좋은 것 계속 먹이고 싶어 하시고 이런 데서 부딪히는 게 있고, 아이 훈육 같은 데서도 저는 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고, 할머니는 좀 그런 걸 조금 안쓰러워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2)

“최근 우리사회는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러다 결혼을 점점 더 안하면 어쩌나 우려되요. 그리고 남녀 갈등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 결혼한 여성 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모5)

“출산율이 낮으니깐 이민자 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애 가진 엄마로서 불안하죠. 이민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질까봐, 치안문제 부분도 걱정되고, 사회 갈등도 많아질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감내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성숙한가 생각해봤을 때... 전 회의적이라고 봐요.” (모4)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정치인, 정부, 이웃 사람 등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있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많았으며 뉴스와 인터넷 댓글 등이 신뢰 수준을 더 악화시킨다고 응답하였다.

“신뢰할만한 사회인가는 잘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못 믿겠어요.” (부5)

“뉴스랑 댓글만 봐도 뭐... 나라든 사람이든 신뢰하기 힘든 사회라고 생각되요.” (부4)

“서로 잘 믿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이웃도 잘 믿기 힘들죠.” (모3)

## 다. 사회지원

### 1) 조사 결과

아플 때 집안일을 해야 하는 도움 주체로 생각되는 주체는 전체의 80.6%가 가족 혹은 친척이라고 답을 하였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는 4.1%로 가장 적었다. 맞벌이를 제외한 모든 집단과 구분에서 가족, 친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가 가장 낮았다.

〈표 III-3-6〉 아플 때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경우 도움 주체

구분		사례 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없음
전체		(300)	80.6	4.8	4.1	10.6
성별	남자	(150)	84.2	5.4	3.6	6.8
	여자	(150)	77.0	4.1	4.5	14.4
연령	19-30세 미만	(26)	59.6	18.6	6.3	15.5
	30-39세	(142)	85.0	3.2	3.3	8.5
	40-49세	(92)	79.9	5.0	3.1	12.0
	50세 이상	(40)	79.9	.5	7.9	11.7
자녀 수	1명	(113)	85.0	4.2	4.5	6.3
	2명	(158)	78.0	5.5	3.1	13.5
	3명 이상	(29)	77.5	3.1	7.6	11.7
거주지	대도시	(175)	81.2	6.1	5.1	7.5
	중소도시	(87)	74.8	4.0	3.8	17.3
	읍면	(38)	90.8	0.0	0.0	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82.4	3.5	7.1	7.1
	외벌이	(176)	79.3	5.7	2.0	13.1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81.3	5.1	3.5	10.0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77.0	5.0	4.7	13.3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74.8	4.0	1.5	19.7

구분	사례 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없음
300-500만 원 미만	(115)	81.9	7.5	2.0	8.6
500 만원 이상	(130)	81.8	2.7	7.0	8.6

중요한 개인적 문제 혹은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에 대한 주체로는 전체 66.2%가 가족, 친척이라고 응답하였고 친구, 이웃 등이 21.0%,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4.1%, 없음이 8.7%였다. 다만 중요한 개인적 문제 혹은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에 대한 주체로서 대부분의 집단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으나, 연령 19-3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21.4%의 비율로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가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 III-3-7〉 중요한 개인적 문제 혹은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에 대한 주체

구분	사례 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없음	
전체	(300)	66.2	21.0	4.1	8.7	
성별	남자	(150)	67.1	22.2	3.7	7.0
	여자	(150)	65.4	19.8	4.5	10.4
연령	19-30세 미만	(26)	51.9	13.0	21.4	13.7
	30-39세	(142)	67.5	22.1	1.4	9.0
	40-49세	(92)	72.7	19.2	2.6	5.4
	50세 이상	(40)	56.4	26.2	5.6	11.8
자녀 수	1명	(113)	69.6	21.0	3.0	6.4
	2명	(158)	67.0	19.4	4.2	9.4
	3명 이상	(29)	49.0	29.4	7.6	13.9
거주지	대도시	(175)	66.4	21.2	4.0	8.4
	중소도시	(87)	64.9	21.7	4.4	9.1
	읍면	(38)	68.6	18.3	3.9	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68.1	21.3	3.8	6.8
	외벌이	(176)	64.9	20.7	4.3	10.0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70.7	14.8	3.9	10.6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61.7	24.5	4.1	9.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62.3	15.5	6.2	16.0
	300-500만 원 미만	(115)	58.1	27.4	5.0	9.5
	500만원 이상	(130)	75.1	17.6	2.4	5.0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 주체에 대해서는 전체 47.5%가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가족, 친척 23.5%, 친구, 이웃 등 18.5%, 없음이 10.5%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가족, 친척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상당 경우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8〉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 주체

구분		사례 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없음
전체		(300)	23.5	18.5	47.5	10.5
성별	남자	(150)	24.2	18.8	47.7	9.3
	여자	(150)	22.9	18.3	47.3	11.6
연령	19-30세 미만	(26)	15.8	40.7	43.5	0.0
	30-39세	(142)	24.0	15.4	46.5	14.0
	40-49세	(92)	27.3	10.3	53.3	9.1
	50세 이상	(40)	18.4	33.7	40.2	7.7
자녀 수	1명	(113)	31.5	11.7	47.2	9.6
	2명	(158)	19.3	22.8	47.3	10.6
	3명 이상	(29)	15.5	22.0	49.2	13.3
거주지	대도시	(175)	23.7	22.2	43.3	10.8
	중소도시	(87)	23.2	19.2	47.4	10.2
	읍면	(38)	23.7	0.0	67.1	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19.5	23.5	45.9	11.1
	외벌이	(176)	26.4	15.0	48.6	10.0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23.4	18.8	43.8	13.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22.4	20.4	46.8	10.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3.0	14.6	53.1	9.3
	300-500만 원 미만	(115)	26.6	13.7	43.2	16.6
	500만원 이상	(130)	21.0	24.5	49.0	5.5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의 75.3%가 가족, 친척이라고 답을 하였다. 뒤이어 친구, 이웃 등 8.6%, 없음 8.5%,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7.6%였다. 특히 사례수가 적지만 읍면 거주지의 경우 모든 사례자수가 가족, 친척이 자녀 돌봄의 도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80.0%가 가족, 친척을 자녀 돌봄 도움 주체로 꼽았고, 초등생 자녀의 경우 69.1%가 가족, 친척을 자녀 돌봄 도움 주체로 꼽았지만 영유아 자녀와 달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가 도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0.3%가 있었다.

〈표 III-3-9〉 자녀 돌봄 도움 주체

구분		사례 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없음
전체		(300)	75.3	8.6	7.6	8.5
성별	남자	(150)	78.8	11.8	5.4	4.0
	여자	(150)	71.7	5.5	9.8	13.0
연령	19-30세 미만	(26)	58.6	6.7	17.9	16.8
	30-39세	(142)	84.3	5.1	3.4	7.2
	40-49세	(92)	73.7	6.2	9.5	10.6
	50세 이상	(40)	58.0	28.2	11.1	2.8
자녀 수	1명	(113)	82.3	5.7	4.3	7.7
	2명	(158)	72.8	6.9	10.5	9.8
	3명 이상	(29)	61.7	29.1	4.3	4.9
거주지	대도시	(175)	70.6	11.3	10.7	7.4
	중소도시	(87)	74.0	7.1	4.5	14.4
	읍면	(38)	100.0	0.0	0.0	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76.6	3.5	12.1	7.8
	외벌이	(176)	74.4	12.3	4.4	9.0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80.0	5.0	5.8	9.2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69.1	12.3	10.3	8.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75.8	4.9	7.1	12.3
	300-500만 원 미만	(115)	79.1	5.1	7.8	8.0
	500만원 이상	(130)	71.7	13.3	7.6	7.4

## 2) 심층면담 결과

자녀 돌봄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는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 조부모의 도움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친정이라 양 아파트 살아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저의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친정이 가까운데 있으니까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모 2)

“저는 친정이 대구고 지금 울산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도움 받을 곳이 아무도 없어요. 다행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번갈아 가면서 휴가 쓰면서 돌보고 있어요.” (모 1)

“저희는 시부모님이 잘 도와주세요, 애들을 좋아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모 5)

## 라. 가사 분담

### 1) 조사 결과

가사분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자신이 배우자보다 자녀 보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답한 비율이 79.2%로 남자가 그러하다고 답한 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동등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경우는 남자 36.1%, 여자 12.1%였다. 반대로 내가 배우자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자 59.8%로 여자 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III-3-10〉 배우자와 자녀 보육에 투자하는 시간 동일 여부

구분		사례 수	배우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	배우자와 동등한 시간을 투자함	배우자 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함
전체		(300)	41.6	24.1	34.3
성별	남자	(150)	4.1	36.1	59.8
	여자	(150)	79.2	12.1	8.7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자녀 돌보기 또는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 중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매일 참여한다 29.5%, 일주일에 한두 번 참여한다 27.4%, 거의 안함 8.3%, 전혀 안함은 2.8%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19-30세 미만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30-39세는 매일이 47.0%로 제일 많았으며 40-49세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36.5%, 일주일에 3번 이상이 35.5%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50세 이상의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69.2%였다.

자녀 수가 3명 이상일 경우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함에 응답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이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주지에 따라서 대도시 거주자 중 34.5%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자녀 돌보기 또는 자녀 교육에 참여한다고 응답했으며, 중소도시 거주자 27.6%가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응답했고, 읍면 거주자의 56.1%가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맞벌이의 경우 45.1%의 남자가 매일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외벌이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매일의 비율은 11.5%였다.

〈표 III-3-11〉 자녀 돌보기 또는 자녀 교육(남자)

구분		사례 수	전혀 안함	거의안 함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일
전체		(150)	2.8	8.3	27.4	32.0	29.5
연령	19-30세 미만	(6)	21.8	0.0	16.4	40.1	21.8
	30-39세	(79)	0.9	7.7	12.5	31.9	47.0
	40-49세	(45)	5.0	10.6	36.5	35.5	12.4
	50세 이상	(20)	0.0	7.9	69.2	22.0	1.0
자녀 수	1명	(51)	3.1	7.6	26.4	37.8	25.2
	2명	(85)	3.1	10.1	24.6	32.0	30.1
	3명 이상	(14)	0.0	0.0	48.6	9.5	41.9
거주지	대도시	(86)	3.0	9.2	33.9	34.5	19.4
	중소도시	(31)	5.1	15.0	27.6	23.2	29.1
	읍면	(33)	0.0	0.0	10.4	33.5	5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92)	0.8	4.9	13.8	35.4	45.1
	외벌이	(78)	4.4	13.0	42.7	28.3	11.5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37)	2.0	2.5	21.1	23.3	51.1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13)	3.0	10.2	29.4	34.8	22.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0)	0.0	16.2	26.0	41.5	16.2
	300-500만 원 미만	(65)	1.8	9.5	26.5	35.7	26.5
	500만원 이상	(64)	4.6	4.6	28.8	25.3	36.7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반면 여자 응답자 중 자녀 돌보기와 자녀 교육을 전혀 안함이라고 답한 경우는 없었으며, 거주지가 읍면인 경우 전체 응답자가 매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맞벌이일 경우 매일이 64.5%, 외벌이일 경우 매일 참여한다는 비율은 69.7%였다. 여자는 전혀 안함의 응답자는 전혀 없었으면 모든 구분 및 분류에서 매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I-3-12〉 자녀 돌보기 또는 자녀 교육(여자)

구분		사례 수	전혀 안함	거의안 함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일
전체		(150)	0.0	8.9	10.8	12.0	68.3
연령	19-30세 미만	(21)	0.0	16.4	4.2	19.6	59.8
	30-39세	(63)	0.0	4.3	11.4	15.0	69.3
	40-49세	(46)	0.0	7.8	13.7	5.8	72.7
	50세 이상	(20)	0.0	17.9	9.0	9.0	64.0
자녀 수	1명	(62)	0.0	3.6	12.1	12.5	71.8
	2명	(72)	0.0	10.3	10.1	14.2	65.4
	3명 이상	(16)	0.0	22.8	8.8	0.0	68.4
거주지	대도시	(89)	0.0	5.8	10.3	18.2	65.6
	중소도시	(57)	0.0	14.3	12.4	3.1	70.1
	읍면	(4)	0.0	0.0	0.0	0.0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84)	0.0	8.3	11.1	16.1	64.5
	외벌이	(90)	0.0	10.1	10.2	10.0	69.7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88)	0.0	5.6	12.0	20.5	61.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62)	0.0	13.5	9.1	0.0	77.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4)	0.0	17.3	14.5	5.2	63.1
	300-500만 원 미만	(50)	0.0	5.9	13.6	3.8	76.7
	500만원 이상	(66)	0.0	6.8	6.8	21.8	64.6

남자 응답자의 경우 요리 또는 집안일에 참여하는 빈도수는 전체의 40.4%가 일주일에 한두 번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9-30세 미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 39.8%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거의 안함이 28.4%, 매일이 21.8%순이었다. 30-39세의 경우 매일이 40.6%로 가장 높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 35.6%였으며, 40-49세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비슷한 비율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이 36.8%로 뒤를 이었다. 50세 이상의 경우 일주일의 한두 번이 67.3%로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으며 매일 하는 비율은 1.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 별로 대도시 거주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높았고 전혀 안한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 중소도시의 경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전혀 안하는 비율은 3.9%였다. 읍면의 경우 매일 하는 경우가 56.1%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경우도 31.2%나 되어 대도시, 중

소도시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의 경우 맞벌이라면 매일 요리 또는 집안일을 한다고 답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인 경우도 34.9%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외벌이의 경우 매일 집안일을 하는 경우는 15.1%에 불과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경우가 전체 외벌이 중 43.1%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500만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의 경우 매일 참여하는 경우가 40.2%로 가장 높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경우는 33.4%로 뒤이었다.

〈표 III-3-13〉 요리 또는 집안일(남자)

구분	사례 수	전혀 안 함	거의안 함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일	
전체	(150)	0.8	11.1	40.4	21.4	26.3	
연령	19-30세 미만	(6)	0.0	28.4	39.8	10.1	21.8
	30-39세	(79)	0.0	9.1	35.6	14.7	40.6
	40-49세	(45)	2.7	10.9	37.3	36.8	12.4
	50세 이상	(20)	0.0	14.9	67.3	15.9	1.8
자녀 수	1명	(51)	2.4	13.4	44.9	19.6	19.8
	2명	(85)	0.0	10.1	37.5	24.8	27.6
	3명 이상	(14)	0.0	8.9	42.4	6.8	41.9
거주지	대도시	(86)	0.0	12.2	45.2	25.3	17.3
	중소도시	(31)	3.9	19.9	37.2	19.8	19.2
	읍면	(33)	0.0	0.0	31.2	12.8	5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92)	0.0	9.1	34.9	17.6	38.4
	외벌이	(78)	1.5	13.9	43.1	26.4	15.1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37)	0.0	7.0	24.7	17.7	50.5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13)	1.1	12.4	45.5	22.6	18.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0)	0.0	10.8	52.2	36.9	0.0
	300-500만 원 미만	(65)	1.8	15.4	43.8	18.4	20.6
	500만원 이상	(64)	0.0	6.9	33.4	19.6	40.2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요리 또는 집안일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매일이 전체 61.4%로 가장 높았으며, 전혀 안하는 경우는 없었다. 자녀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까지라도 요리 또는 집안일에 참여하는 비율이 자녀 수가 1명일 때는 97.8%, 2명일 때는 98.7%였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안함의 비율은 22.8%였다.

〈표 III-3-14〉 요리 또는 집안일(여자)

구분		사례 수	전혀 안함	거의 안함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일
전체		150	0.0	3.9	14.3	20.3	61.4
연령	19-30세 미만	21	0.0	2.1	13.2	43.8	40.9
	30-39세	63	0.0	3.0	14.1	19.7	63.2
	40-49세	46	0.0	5.8	12.6	13.6	68.0
	50세 이상	20	0.0	4.5	20.3	13.4	61.9
자녀 수	1명	62	0.0	2.2	22.4	16.2	59.2
	2명	72	0.0	1.3	10.0	27.6	61.1
	3명 이상	16	0.0	22.8	2.8	3.0	71.4
거주지	대도시	89	0.0	3.6	14.3	23.6	58.5
	중소도시	57	0.0	4.8	15.5	14.1	65.6
	읍면	4	0.0	0.0	0.0	33.3	66.7
맞벌이 여부	맞벌이	84	0.0	5.9	14.8	25.5	53.7
	외벌이	90	0.0	4.6	12.6	16.1	66.8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88	0.0	3.6	14.9	28.0	53.4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62	0.0	4.4	13.5	9.5	72.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4	0.0	9.3	21.2	12.1	57.5
	300-500만 원 미만	50	0.0	1.9	10.7	20.4	67.0
	500만원 이상	66	0.0	2.7	13.6	24.5	59.2

## 2) 심층면담 결과

가사분담,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주로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부부가 출산 초기에 가사 분담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만의 역할 분담과 관련된 규칙을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

“진짜 여기서 진짜 남편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많이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니까...” (모1)

“갈등이 있었을 때는 최근에 갈등이 한번 있었던 건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애를 훈계한다든가, 엄마와 생각이 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기한테 엄마가 지시하는 거랑 제가 시기하는 게 약간 어긋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내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같은 목소리 좀 내 달라. 라고 해서 알겠다고...” (부3)

“저희 부부는 규칙이 있어요. 주로 아침에는 제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오고 씻기는 것까지는 아빠가 해요, 그 이후에는 제 담당이고, 초반에 역할 분담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소통한 끝에 정해진 방식이에요.” (모4)

## 4. 환경의 질

### 가. 소음

#### 1) 조사 결과

소음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4%였으며 보통이다 60.5%, 심각하지 않다 29.1%였다. 자녀 수가 1명 인 경우 58.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음이 30.4%, 매우 심각함이 10.8%였다. 2명인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59.4%였으며, 심각하지 않음 32.2% 매우 심각함이 8.3%였다. 자녀 수가 3명이상인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2.7%, 매우 심각함이 20.3%, 심각하지 않음 7.0% 순으로 자녀 1명 또는 2명인 경우와 차이가 있었다.

〈표 III-4-1〉 소음

구분		사례 수	매우 심각함	보통임	심각하지 않음
전체		(300)	10.4	60.5	29.1
성별	남자	(150)	6.0	68.6	25.4
	여자	(150)	14.9	52.4	32.8
연령	19-30세 미만	(26)	10.6	65.3	24.1
	30-39세	(142)	8.5	61.2	30.2
	40-49세	(92)	9.8	57.7	32.5
	50세 이상	(40)	18.7	60.9	20.4
자녀 수	1명	(113)	10.8	58.7	30.4
	2명	(158)	8.3	59.4	32.2
	3명 이상	(29)	20.3	72.7	7.0

구분	사례 수	매우 심각함	보통임	심각하지 않음	
거주지	대도시	(175)	13.6	57.7	28.8
	중소도시	(87)	8.7	55.3	36.0
	읍면	(38)	0.0	85.4	1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8.1	66.1	25.8
	외벌이	(176)	12.1	56.5	31.4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7.9	61.3	30.8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13.4	56.7	29.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8.2	80.4	11.5
	300-500만 원 미만	(115)	12.5	55.3	32.2
	500만원 이상	(130)	9.6	56.8	33.6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층간 소음이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구도 있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은 대부분 층간 소음 문제를 주거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왜냐하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밤에 그렇게 경험 했던 게 그렇게 경험하기 전에도 사실은 조금 이제 층간 소음? 이런 게 되게 걱정됐었는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일 것 같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2)

“다른 소음은 난 상관없는데 애한테 문제가 될 것 같은 소음이면은 우리도 뭐라고 하는 입장인니까, 당연히 밑에 층에서 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다고 하면 죄인이 되는 거지 뭐.” (부3)

## 나. 대기의 질

### 1) 조사 결과

대기의 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3%,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였다. 대도시, 중소도시에서는 ‘보통’이 가장 큰 비율로 보고되었지만, 읍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기의 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7.1%, 매우 심각함이

42.5%였고, 외별이의 경우 보통이 64.5%, 매우 심각함은 18.4%이었다.

〈표 III-4-2〉 대기의 질

구분		사례 수	매우 심각함	보통임	심각하지 않음
전체		(300)	28.4	57.3	14.3
성별	남자	(150)	27.6	56.9	15.5
	여자	(150)	29.2	57.7	13.1
연령	19-30세 미만	(26)	32.2	45.4	22.5
	30-39세	(142)	33.8	48.2	18.0
	40-49세	(92)	21.0	67.2	11.8
	50세 이상	(40)	23.5	75.0	1.5
자녀 수	1명	(113)	22.9	57.6	19.4
	2명	(158)	30.8	57.4	11.9
	3명 이상	(29)	36.5	55.9	7.6
거주지	대도시	(175)	27.8	59.3	12.9
	중소도시	(87)	17.1	64.1	18.7
	읍면	(38)	57.3	32.0	1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42.5	47.1	10.3
	외벌이	(176)	18.4	64.5	17.1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31.9	51.9	16.2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22.6	64.3	13.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4.1	73.1	2.8
	300-500만 원 미만	(115)	25.0	55.8	19.2
	500만원 이상	(130)	33.1	52.1	14.8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였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대부분 바깥놀이를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집에서 공기청정기 등을 구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공단 근처에 사는데 연기가 심할 때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미세먼지도 걱정되죠.” (부1)

“지금은 뭐 미세먼지가 높다고 하면 가장 먼저 공기청정기부터 켜잖아. 어린이집에서 바깥놀이 한다고 하면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 (모5)

## 다. 쓰레기

길거리에 놓인 쓰레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 보통이다 56.4%, 심각하지 않다가 28.0%였다. 거주지에 따라 모든 거주지에서 보통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지만 읍면 소재는 보통이 76.3%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심각하지 않음 14.6%, 매우 심각함 9.2%로 상대적으로 격차가 현저하였다. 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보통이 대도시 53.9%, 중소도시 53.0%였으며 대도시는 매우 심각함이 20.3%, 중소도시는 8.8%로 차이를 보였다. 오히려 심각하지 않음의 비율은 세 거주지 중 중소도시의 비율이 38.3%로 가장 낮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의 경우 보통에 이어 매우 심각함이 30.8%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300-500만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의 경우 심각하지 않음이 각각 27.3%, 34.2%이었다.

〈표 III-4-3〉 길거리에 놓인 쓰레기

구분		사례 수	매우 심각함	보통임	심각하지 않음
전체		(300)	15.5	56.4	28.0
성별	남자	(150)	15.6	55.9	28.6
	여자	(150)	15.5	57.0	27.5
연령	19-30세 미만	(26)	18.1	53.9	28.0
	30-39세	(142)	10.6	62.2	27.2
	40-49세	(92)	24.7	46.7	28.6
	50세 이상	(40)	10.3	59.9	29.8
자녀 수	1명	(113)	16.4	48.8	34.8
	2명	(158)	15.3	57.4	27.3
	3명 이상	(29)	13.2	80.8	6.0
거주지	대도시	(175)	20.3	53.9	25.8
	중소도시	(87)	8.8	53.0	38.3
	읍면	(38)	9.2	76.3	1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12.0	60.1	27.9
	외벌이	(176)	18.0	53.8	28.1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15.4	60.0	24.6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16.2	54.0	29.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30.8	54.6	14.6
	300-500만 원 미만	(115)	12.7	60.0	27.3
	500만원 이상	(130)	11.7	54.1	34.2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라. 교통

극심한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5%, 보통이다 50.3%,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2%였다.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일수록 교통량의 혼잡을 인식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보통이 60.3%, 매우 심각함 19.9%, 심각하지 않음 19.7% 순이었다. 중소도시는 보통 44.2%, 심각하지 않음 32.8%, 매우 심각함 23.0%로 분포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읍면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음이 73.2%, 보통이 17.6%, 매우 심각함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 300만원 미만의 가구만 보통이 70.8%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고, 나머지 가구 소득에서는 보통 다음에 심각하지 않음이 일정한 수치의 차이의 비율로 보고되었다.

〈표 III-4-4〉 극심한 교통량

구분		사례 수	매우 심각함	보통임	심각하지 않음
전체		(300)	19.5	50.3	30.2
성별	남자	(150)	16.7	50.4	32.9
	여자	(150)	22.2	50.2	27.5
연령	19-30세 미만	(26)	33.2	37.6	29.2
	30-39세	(142)	20.2	41.7	38.2
	40-49세	(92)	14.3	63.2	22.5
	50세 이상	(40)	19.5	59.8	20.7
자녀 수	1명	(113)	27.5	42.2	30.3
	2명	(158)	12.7	55.0	32.3
	3명 이상	(29)	24.7	56.4	18.9
거주지	대도시	(175)	19.9	60.3	19.7
	중소도시	(87)	23.0	44.2	32.8
	읍면	(38)	9.2	17.6	7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19.7	43.	36.9
	외벌이	(176)	19.3	55.2	25.5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18.9	45.2	35.9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17.1	58.8	24.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21.3	70.8	7.8
	300-500만 원 미만	(115)	22.6	46.9	30.5
	500만원 이상	(130)	15.9	44.8	39.3

주: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마. 편의시설 접근성

### 1) 조사 결과

편의시설 접근성은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은행시설의 경우 매우 쉽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4.6%였지만 중소도시는 49.2%, 읍면은 단지 13.1%밖에 되지 않았다. 대중교통의 경우 매우 쉽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62.3%, 중소도시 47.5%, 읍면은 0.0%, 영화관 또는 문화 시설 또한 대도시 43.8%, 중소도시 38.4%, 읍면 9.2%로 편의시설 접근성 면에서 읍면일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휴양지 또는 녹지의 경우 접근성이 중소도시 30.3%, 대도시 27.9%, 의외로 읍면이 17.0%로 가장 낮았다. 그 이유는 읍면이지만 도농복합촌인 경우가 많고 도시보다 녹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양지의 기능보다 삶의 터전의 기능이나 맹지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식료품가게 또는 슈퍼마켓 또한 대도시일수록 접근성이 좋았다.

〈표 III-4-5〉 편의시설 접근성

구분	사례 수	은행시설	대중교통	영화관 또는 문화시설	휴양지 또는 녹지	식료품 가게 또는 슈퍼마켓	
전체	(300)	47.8	50.2	37.9	27.3	58.2	
성별	남자	(150)	44.3	40.7	32.1	25.6	53.5
	여자	(150)	51.3	59.7	43.7	28.9	62.9
연령	19-30세 미만	(26)	33.4	34.8	28.1	5.6	54.9
	30-39세	(142)	48.0	49.3	39.3	29.9	56.7
	40-49세	(92)	47.1	53.6	39.2	29.8	58.0
	50세 이상	(40)	58.3	55.8	36.4	26.3	65.8
자녀 수	1명	(113)	52.9	55.1	40.7	22.3	65.7
	2명	(158)	46.2	48.7	34.0	33.4	52.5
	3명 이상	(29)	36.9	39.5	48.1	13.5	59.3
거주지	대도시	(175)	54.6	62.3	43.8	27.9	67.8
	중소도시	(87)	49.2	47.5	38.4	30.3	56.5
	읍면	(38)	13.1	0.0	9.2	17.0	17.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43.9	49.5	34.9	29.4	59.1
	외벌이	(176)	50.6	50.7	40.0	25.8	57.6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43.3	44.0	34.5	26.2	53.6

구분		사례 수	은행시설	대중교통	영화관 또는 문화시설	휴양지 또는 녹지	식료품 가게 또는 슈퍼마켓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51.5	55.6	41.8	30.0	62.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41.3	42.7	18.6	17.7	44.2
	300-500만 원 미만	(115)	48.9	45.4	42.1	24.7	57.9
	500만원 이상	(130)	49.6	57.6	42.2	33.5	64.2

주: 1) 매우 쉽고 응답한 비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2) 심층면담 결과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밤 늦게까지 운영하는 마트, 편의점 등이 많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이 떨어졌을 때 바로 사올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갈만한 놀이 시설이 주거지 가까운 곳에 없어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밤 늦게 까지 운영하는 마트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기용품 갑자기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늦게라도 바로 사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모1)

“아이 놀이방도 있고, 근데 솔직 시설이, 걸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가지고 놀 게 없는 좀... 사실, 이제 그런 키즈카페나 이런 데 보다가, 보면 되게 비싼 물품들을 들여 놓은 것 같은데 좀 막상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별로인 되게 그럴듯한 ... 많았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게... 사실 놀이방이면 안 할 것 같은, 약간 걸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약간 그런 것 있죠. 요즘에는 잘 안가요.” (모2)

“가까운 곳에 애들 데리고 놀러갈 장소가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부5)

## 바. 치안

치안에 대하여 응답자 중 전체 79.1%가 해가 진 후 거주 지역을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비율은 79.3%였다. 하지만 성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해가 진 후 걸어 다니는 것에 대해 남자의 84.6%가 안전하다고 느낀 것에 비해 여자의 73.6%가 안전하다고 느꼈다. 또한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지의 여부도 남자 86.5%는 동의한다고

답하였으며 여성은 72.2%가 그러하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의 응답자가 각각 치안과 관련된 문항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8.5%, 96.1%로 나타나다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중에서도 중소도시가 해기진 후 지역을 걸어 다니는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안전감 또한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4-6〉 치안

구분		사례 수	나는 해가 진 후 현재 내가 사는 지역을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하게 느낀다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
전체		(300)	79.1	79.3
성별	남자	(150)	84.6	86.5
	여자	(150)	73.6	72.2
연령	19-30세 미만	(26)	62.5	62.9
	30-39세	(142)	78.2	85.0
	40-49세	(92)	84.8	81.9
	50세 이상	(40)	80.2	64.1
자녀 수	1명	(113)	71.0	85.7
	2명	(158)	87.3	78.4
	3명 이상	(29)	66.3	59.9
거주지	대도시	(175)	82.2	76.8
	중소도시	(87)	64.5	77.2
	읍면	(38)	98.5	96.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4)	77.0	79.9
	외벌이	(176)	80.6	78.9
자녀 구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177)	78.3	79.8
	초등생 자녀가 있는 가구	(168)	81.6	78.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4)	64.3	69.5
	300-500만 원 미만	(115)	78.8	82.5
	500만원 이상	(130)	85.5	80.6

주: 1)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  
 2) 음영 처리된 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5$ )

## 5. 소결

본 장에서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 중에서 가구 소득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다. 즉,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 행복도, 생활수준 만족도, 교육 만족도, 주거수준, 건강 등 모든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이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주거였으며 전반적으로 시설이 좋지 못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과 관련하여 성별의 차이도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삶의 만족도, 행복도, 정신/건강 웰빙 수준이 낮았으며 즐거운 일을 할 시간 부족, 중요한 문제의 대처의 어려움, 잘못된 일에 대한 회복 어려움, 우울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심층면담 결과 출산과 임신은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여가 시간 부족, 육아로 인한 피로도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가치, 자녀와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면담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행복의 요인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삶에서 가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 수준이 높았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 행복의 관계성이 더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세대 간의 출산과 자녀의 가치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에 응답한 절반 이상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로 인해 일·가정양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여성인 경우, 연령이 어린 경우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서비스 질 중에서 보건의료와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육아서비스와 교육,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와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공공서비스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

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병원까지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 결과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소아 응급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덟째, 보육만족도와 비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만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육 비용도 부담된다고 응답한 결과가 많았다. 심층면담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보육 질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질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립유치원, 영유치원 등은 여전히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홉째, 심층면담 결과 한국 사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구조와 과정, 이로 인한 사고 사교육 문제, 교육 비용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심층면담 결과 사회적 불안정성에서 직장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과거에 비해 자녀를 늦게 출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결혼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퇴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사회갈등 중 빈곤층과 부유층의 갈등수준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갈등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갈등 문제는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두 번째,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수준이 낮은 곳은 국회였으며,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있었다.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세 번째, 집안일과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분담은 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분담과 남녀 참여율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 분담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일·가정양립수준도 남성에게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분담은 연령이 낮은 부부일수록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네 번째, 심층면담 결과 자녀를 키우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다섯 번째, 환경 문제 중 대기의 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해 자녀 건강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참가자가 많았다.

열여섯 번째,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3명 이상인 가구가 사회적 신뢰도 수준, 건강, 보육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녀의 가치, 자녀와의 행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 부모의 삶의 질 국제비교

01 확인적 요인분석

02 국제 비교 결과

03 상관분석 결과



## IV. 부모의 삶의 질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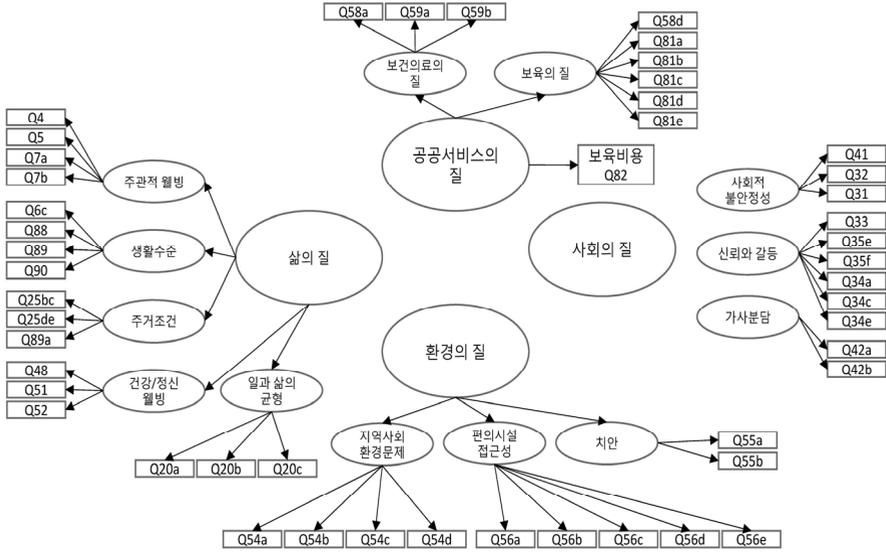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국제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보육의 질 관련 문항(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과 교육의 질 관련 문항(초등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의 응답자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보육 모형과 교육 모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보육의 질, 교육의 질 변수 이외에는 모든 요인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를 실시하였다.

### 1. 확인적 요인분석

#### 가. 보육의 질 포함 모형

보육의 질을 포함한 모형의 상위개념 잠재변수는 삶의 질, 공공서비스의 질, 사회의 질로 정의된다. 상위개념의 변수들은 2차 (higher-order) 잠재변수로 정의된다. 삶의 질의 하위개념 변수는 주관적 웰빙, 생활수준, 주거 조건, 건강/정신 웰빙, 일·생활 균형이다. 공공서비스 질의 하위 개념은 보건의료 질, 보육 질, 보육 비용이다. 사회 질의 요인은 사회적 불안정, 신뢰 및 갈등, 안전이다. 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본 모형은 유럽자료와 한국자료를 통합한 자료로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총 4,654개의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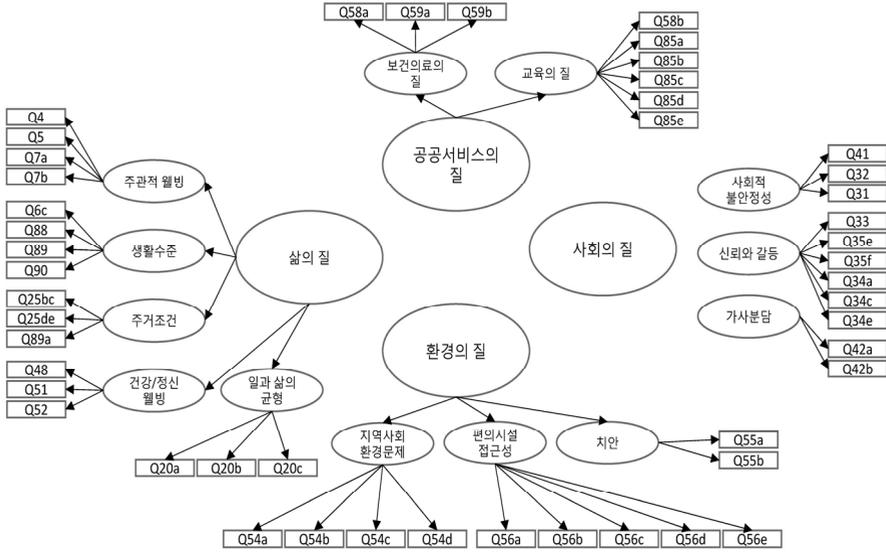
[그림 IV-1-1] 보육의 질을 포함한 모형



## 나. 교육의 질 포함 모형

교육의 질 포함 모형은 앞서 소개했던 모형에서 보육의 질이 교육의 질로 대체 되는 모형으로 다른 요인은 모두 동일하다. 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앞서 소개한 모형과 아래 모형의 기본 가정은 2차 잠재변수가 1차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1차 잠재변수가 각 측정문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 포함 모형은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인 가구가 응답자의 자료로 분석하며 본 모형 분석에서 활용한 관측치는 3,413개였다.

[그림 IV-1-2] 교육의 질을 포함한 모형



## 다. 결과

앞서 소개한 모형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 (higher-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잠재변수들로 이루어진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모형의 사회의 질 2차 잠재변수는 통계적인 문제로 (추가 시 수렴된 해가 허용불가)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사회의 질에 속하는 1차 하위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들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표본의 공분산행렬과 연구모형의 추정공분산 행렬의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카이제곱 값은 두 모형 모두 유의확률이 5%보다 작으므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보육 질을 포함한 모형:  $\chi^2 = 2939.15$ ,  $p < .05$ , 교육 질을 포함한 모형:  $\chi^2 = 12254.15$ ,  $p < .05$ ). 하지만, 카이제곱 값은 통계적으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카이제곱 검증이 절대적기준이 되지 못하고, 권장되어지는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모형적합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요인분석 또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지수들로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Root Mean Square)와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가 있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Tucker-Lewis Index) 와 CFI (Comparative Fit Index)가 있다. RMSEA 와 SRMR의 값은 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보는 수치이므로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어지고, 값이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라고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8). 상대적 적합도 지수 들은 1에 가까워질수록 적합도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 규칙에 따른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보육 질 포함 모형과 교육 질 포함 모형의 모든 적합도지수가 기준에 충족하여 모형이 잘 부합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IV-1-1〉 모형 적합도 지수

모형적합도 지수	보육 질 포함 모형	교육 질 포함 모형
RMSEA	0.052	0.053
SRMR	0.064	0.060
TLI	0.828	0.832
CFI	0.840	0.845

1) 보육의 질 포함 모형 상세 분석 결과

아래 표에 보육의 질 포함 모형의 설명 계수를 소개하였다. 하위 1차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준다. 모든 측정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마지막에 제시한 표준화 요인 적재량의 값은 절대값이 클수록 해당 측정변수와 하위 잠재변수간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Well-being에 속하는 네 개의 측정변수 중에서 (Q4, Q5, Q7a, and Q7b), well-being이 첫 번째 측정변수인 Q4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추정한다(표준화 요인 적재량[standardized loading estimate] Q4 = .898).

〈표 IV-1-2〉 보육의 질 포함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차 잠재변수	1차 잠재변수	관측 문항 (EU 기준)	추정치	표준오차	z점수	유의도	표준화 요인 적재량
삶의 질	주관적 웰빙	Q4	1	-	-	-	0.898
		Q5	0.924	0.032	28.492	0.000*	0.83
		Q7a	-0.57	0.036	-15.626	0.000*	-0.512
		Q7b	-0.403	0.038	-10.599	0.000*	-0.362

2차 잠재변수	1차 잠재변수	관측 문항 (EU 기준)	추정치	표준오차	z점수	유의도	표준화 요인 적재량	
	생활수준	Q6c	1	-	-	-	0.745	
		Q88	-0.899	0.05	-17.968	0.000*	-0.67	
		Q89	-0.897	0.05	-17.914	0.000*	-0.668	
		Q90	0.61	0.05	12.313	0.000*	0.455	
	주거조건	Q25bc1	1	-	-	-	0.316	
		Q25de2	0.547	0.163	3.352	0.001*	0.172	
		Q89a	-1.563	0.274	-5.704	0.000*	-0.493	
	건강/정신 웰빙	Q48	1	-	-	-	0.494	
		Q51	1.356	0.12	11.269	0.000*	0.67	
		Q52	-1.374	0.122	-11.302	0.000*	-0.679	
	일과 삶의 균형	Q20a	1	-	-	-	0.671	
		Q20b	1.273	0.078	16.27	0.000*	0.854	
Q20c		0.948	0.061	15.636	0.000*	0.636		
공공 서비스 질	보건의료 질	Q58a	1	-	-	-	0.792	
		Q59a	0.863	0.044	19.622	0.000*	0.683	
		Q59b	1.066	0.047	22.755	0.000*	0.844	
	보육 질	Q58d	1	-	-	-	0.378	
		Q81a	1.915	0.174	10.982	0.000*	0.724	
		Q81b	2.327	0.202	11.504	0.000*	0.88	
		Q81c	2.4	0.207	11.571	0.000*	0.908	
		Q81d	2.288	0.2	11.464	0.000*	0.866	
	Q81e	2.268	0.198	11.443	0.000*	0.858		
	보육 비용		0.678	0.077	8.747	0.000*	0.37	
	사회의 질	사회적 불안정	Q41	1	-	-	-	0.408
			Q32	-2.077	0.177	-11.722	0.000*	-0.847
Q31			-2.003	0.172	-11.65	0.000*	-0.817	
신뢰 및 갈등		Q33	1	-	-	-	0.527	
		Q35e	1.524	0.103	14.77	0.000*	0.803	
		Q35f	1.348	0.096	14.043	0.000*	0.71	
		Q34a	0.579	0.075	7.709	0.000*	0.305	
		Q34c	0.335	0.072	4.682	0.000*	0.176	
Q34e		0.386	0.072	5.356	0.000*	0.203		
가사 분담		Q42a	1	-	-	-	0.66	
		Q42c	1.054	0.166	6.331	0.000*	0.695	
환경의 질		지역사회 환경 문제	Q54a	1	-	-	-	0.738
	Q54b		1.022	0.053	19.147	0.000*	0.754	
	Q54c		0.9	0.052	17.348	0.000*	0.664	
	Q54d		0.949	0.052	18.145	0.000*	0.7	

2차 잠재변수	1차 잠재변수	관측 문항 (EU 기준)	추정치	표준오차	z점수	유의도	표준화 요인 적재량
	편의시설 접근성	Q56a	1	-	-	-	0.654
		Q56b	0.917	0.065	14.101	0.000*	0.6
		Q56c	0.982	0.066	14.82	0.000*	0.642
		Q56d	0.749	0.063	11.961	0.000*	0.489
		Q56e	1.119	0.07	15.988	0.000*	0.731
	치안	Q55a	1	-	-	-	0.794
		Q55b	0.926	0.089	10.355	0.000*	0.736

## 2) 교육의 질 포함 모형 상세 분석 결과

보육의 질 포함모형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측정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잠재변수마다 표준화 요인 적재량의 값도 보육의 질과 동일하였다. 주관적 웰빙 요인 중 표준화 요인 적재량이 높았던 문항은 Q4였으며, 생활수준은 Q6c, 주거조건은 Q89a, 건강/정신 웰빙은 Q52, 일과 삶의 균형은 Q20b, 보건의료 질은 Q59b, 교육의 질은 Q85c, 사회적 불안정은 Q32, 신뢰 및 갈등은 Q35e, 가사분담은 Q42c, 지역사회 환경문제는 Q54b, 편의시설접근성은 Q56a, 치안은 Q55a가 각각 표준화 요인 적재량의 값이 가장 높았다.

〈표 IV-1-3〉 교육의 질 포함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차 잠재변수	1차 잠재변수	관측 문항 (EU 기준)	추정치	표준오차	z점수	유의도	표준화 요인 적재량
삶의 질	주관적 웰빙	Q4	1	-	-	-	0.895
		Q5	0.927	0.016	59.225	0.000*	0.829
		Q7a	-0.57	0.017	-33.299	0.000*	-0.509
		Q7b	-0.416	0.018	-23.438	0.000*	-0.372
	생활수준	Q6c	1	-	-	-	0.734
		Q88	-0.967	0.023	-41.157	0.000*	-0.71
		Q891	-0.961	0.023	-40.946	0.000*	-0.706
	주거조건	Q902	0.704	0.023	30.336	0.000*	0.517
		Q25bc3	1	-	-	-	0.4
		Q25de4	0.617	0.058	10.69	0.000*	0.247
	건강/정신 웰빙	Q89a	-1.351	0.083	-16.19	0.000*	-0.54
		Q48	1	-	-	-	0.512
		Q51	1.255	0.051	24.593	0.000*	0.643

2차 잠재변수	1차 잠재변수	관측 문항 (EU 기준)	추정치	표준오차	z점수	유의도	표준화 요인 적재량
	일과 삶의 균형	Q52	-1.27	0.051	-24.691	0.000*	-0.651
		Q20a	1	-	-	-	0.69
		Q20b	1.28	0.033	38.361	0.000*	0.883
		Q20c	0.931	0.026	36.031	0.000*	0.642
공공 서비스 질	보건의료 질	Q58a	1	-	-	-	0.803
		Q59a	0.885	0.02	44.337	0.000*	0.71
		Q59b	1.015	0.021	49.349	0.000*	0.815
	교육 질	Q58b	1	-	-	-	0.521
		Q85a	1.282	0.041	31.42	0.000*	0.668
		Q85b	1.701	0.047	36.135	0.000*	0.887
		Q85c	1.744	0.048	36.491	0.000*	0.909
		Q85d	1.638	0.046	35.557	0.000*	0.854
	Q85e	1.571	0.045	34.89	0.000*	0.819	
	사회의 질	사회적 불안정	Q41	1	-	-	-
Q32			-2.358	0.108	-21.74	0.000*	-0.835
Q31			-2.324	0.107	-21.7	0.000*	-0.823
신뢰 및 갈등		Q33	1	-	-	-	0.484
		Q35e	1.725	0.058	29.865	0.000*	0.834
		Q35f	1.525	0.053	28.754	0.000*	0.738
		Q34a	0.55	0.038	14.619	0.000*	0.266
		Q34c	0.384	0.036	10.611	0.000*	0.186
Q34e		0.35	0.036	9.73	0.000*	0.169	
가사 분담		Q42a	1	-	-	-	0.525
	Q42c	1.434	0.168	8.535	0.000*	0.752	
환경의 질	지역사회 환경 문제	Q54a	1	-	-	-	0.743
		Q54b	1.014	0.024	41.891	0.000*	0.754
		Q54c	0.887	0.024	37.634	0.000*	0.659
		Q54d	0.96	0.024	40.264	0.000*	0.713
	편의시설 접근성	Q56a	1	-	-	-	0.712
		Q56b	0.99	0.026	38.45	0.000*	0.704
		Q56c	0.989	0.026	38.429	0.000*	0.704
		Q56d	0.706	0.025	28.492	0.000*	0.503
		Q56e	1	0.026	38.753	0.000*	0.711
	치안	Q55a	1	-	-	-	0.812
Q55b		0.965	0.04	23.894	0.000*	0.783	

## 2. 국제 비교 결과

### 가. 국가별 근로시간, 1인당 GDP, 출산율

각 나라별 국제 비교를 실시하기 전에 나라별 기초 통계인 우리나라와 각 국가별 1인당 GDP 근로시간, 출산율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당 근로시간은 한국이 45.7시간으로 가장 높은 국가였으며 다음으로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순이었다. EU 가입 국가 중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이고 다음으로 덴마크, 독일 순이었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였고 다음으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31,345.62 달러로 중간 순위인 13위 위치해 있었다.

〈표 IV-2-1〉 국가별 1인당 주당 근로시간, 1인당 GDP

단위: 시간, 달러, 명

주당근로시간			1인당 GDP		
순위	국가	2018년	순위	국가	2018년
1	한국	45.7	1	룩셈부르크	114,234.2
2	터키	45.7	2	아일랜드	76,098.59
3	몬테네그로	44.1	3	덴마크	60,692.42
4	세르비아	42.8	4	스웨덴	53,873.38
5	마케도니아	42.3	5	네덜란드	53,106.38
6	그리스	42	6	오스트리아	51,509.03
7	불가리아	40.7	7	핀란드	49,845.02
8	폴란드	40.4	8	독일	48,264.01
9	체코	40.1	9	벨기에	46,724.35
10	슬로바키아	40	10	프랑스	42,877.56
11	헝가리	39.6	11	영국	42,558
12	크로아티아	39.6	12	이탈리아	34,260.34
13	루마니아	39.6	13	한국	31,345.62
14	포르투갈	39.5	14	몰타	31,058.43
15	키프로스	39.3	15	스페인	30,697.26
16	슬로베니아	39.2	16	키프로스	28,339.93
17	라트비아	38.9	17	슬로베니아	26,234.27
18	몰타	38.9	18	포르투갈	23,186.27
19	리투아니아	38.6	19	에스토니아	22,989.94

주당근로시간			1인당 GDP		
순위	국가	2018년	순위	국가	2018년
20	에스토니아	38.2	20	체코	22,850.32
21	스페인	37.7	21	그리스	20,407.88
22	룩셈부르크	37.6	22	슬로바키아	19,581.58
23	프랑스	37.3	23	리투아니아	19,143.42
24	벨기에	37.2	24	라트비아	18,031.99
25	이탈리아	37.2	25	헝가리	15,923.82
26	핀란드	36.8	26	폴란드	15,430.93
27	오스트리아	36.5	27	크로아티아	14,815.91
28	영국	36.5	28	루마니아	12,285.2
29	아일랜드	36.5	29	터키	9,346.232
30	스웨덴	36.4	30	불가리아	9,267.383
31	독일	34.9	31	몬테네그로	8,651.677
32	덴마크	33.2	32	세르비아	7,243.403
33	네덜란드	30.4	33	알바니아	5,288.86

자료 1: 유럽의 근로시간은 Eurostat 홈페이지 ([https://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_sa\\_ewhun2&lang=en](https://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_sa_ewhun2&lang=en), 2019. 10. 9. 인출)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한국의 자료는 OECD (<https://stats.oecd.org/>, 2019. 10. 10. 인출) 자료를 참고하였음.

2: 1인당 GDP는 IMF 홈페이지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ALB/AUT/BEL/BGR/HRV/CYP/CZE/DNK/EST/FIN/FRA/DEU/GRC/HUN/ISL/IRL/ITA/KOR/LVA/LTU/LUX/MLT/MNE/NLD/POL/PRT/ROU/SRB/SVK/SVN/ESP/SWE/TUR/GBR>, 2019. 10. 9. 인출)에서 추출하였음.

3: 출산율은 OECD 합계출산율(<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2019. 10. 10. 인출) 자료를 참고하였음.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벨기에 28.9%, 핀란드 28.7%, 덴마크 28.0%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가장 순위가 11.1%였다. 출산율 순위를 보면 터키가 가장 높은 2.07명 이었으며 다음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EU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출산율이었다.

〈표 IV-2-2〉 국가별 1인당 주당 근로시간, 1인당 GDP

단위: %, 명

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			출산율		
순위	국가	2018년	순위	국가	2017년
1	프랑스	31.2	1	터키	2.07
2	벨기에	28.9	2	아일랜드	1.88
3	핀란드	28.7	3	프랑스	1.86

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			출산율		
순위	국가	2018년	순위	국가	2017년
4	덴마크	28.0	4	스웨덴	1.78
5	이탈리아	27.9	5	덴마크	1.75
6	오스트리아	26.6	6	오스트리아	1.74
7	스웨덴	26.1	7	독일	1.74
8	독일	25.1	8	영국	1.74
9	스페인	23.7	9	루마니아	1.7
10	그리스	23.5	10	체코	1.69
11	포르투갈	22.6	11	라트비아	1.69
12	룩셈부르크	22.4	12	벨기에	1.64
13	슬로베니아	21.2	13	리투아니아	1.63
14	폴란드	21.2	14	네덜란드	1.62
15	크로아티아	20.9	15	슬로베니아	1.62
16	영국	20.6	16	에스토니아	1.59
17	세르비아	19.5	17	불가리아	1.56
18	헝가리	19.4	18	슬로바키아	1.52
19	키프로스	19.1	19	핀란드	1.49
20	체코	18.7	20	폴란드	1.45
21	에스토니아	18.4	21	헝가리	1.42
22	불가리아	17.0	22	크로아티아	1.4
23	슬로바키아	17.0	23	룩셈부르크	1.39
24	네덜란드	16.7	24	포르투갈	1.37
25	라트비아	16.2	25	그리스	1.35
26	리투아니아	16.2	26	키프로스	1.32
27	몰타	16.1	27	이탈리아	1.32
28	루마니아	14.4	28	스페인	1.3
29	아일랜드	14.4	29	몰타	1.26
30	터키	12.5	30	한국	1.05
31	한국	11.1			

자료 1: 출산율은 OECD 집계출산율(<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2019.10.10. 인출) 자료를 참고하였음.

2: OECD 회원국은 2018년 Social Expenditure Database(<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2019. 10. 24. 인출), 세르비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자료는 Eurostat의 Expenditure on social protection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ps00098/CustomView\\_2/table?lang=en](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ps00098/CustomView_2/table?lang=en), 2019. 10. 24. 인출) 2017년 자료를 인출하였으며 키프로스는 2016년 자료를 참고하였음.

## 나. 삶의 질

삶의 질 조사에 삶의 질과 관련된 잠재변수는 주관적 웰빙, 생활수준, 주거이다. 주관적 웰빙은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도에 대한 질문,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삶이 이후에 얼마나 낙관적인지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웰빙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었으며, 다음으로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34개 국가 중에서 32위로 매우 순위가 낮았다.

생활수준은 생활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생계유지에 어려움은 없는지 선호하는 활동이나 품목을 구매하는데 금적 부담이 따르는지, 생활비 부족으로 식단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순이었으며 한국의 순위는 34개 국가 중 22위였다.

주거는 바다, 천장, 창문에 물이 새거나 습한지, 변기와 샤워시설이 부족한지, 난방시설이 부족한지 등이 측정변수였다. 주거 관련해서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였고 다음으로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32위로 순위가 매우 낮았다.

〈표 IV-2-3〉 주관적 웰빙, 생활수준, 주거 순위

주관적 웰빙			생활수준			주거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1	스웨덴	13.781	1	스웨덴	14.296	1	슬로바키아	12.955
2	덴마크	13.779	2	덴마크	13.873	2	체코	12.099
3	핀란드	13.672	3	오스트리아	12.946	3	독일	11.736
4	오스트리아	12.720	4	핀란드	12.728	4	오스트리아	11.704
5	아일랜드	12.215	5	룩셈부르크	12.588	5	핀란드	11.536
6	룩셈부르크	12.181	6	영국	12.417	6	아일랜드	11.487
7	몰타	11.886	7	네덜란드	12.410	7	스웨덴	11.483
8	네덜란드	11.769	8	아일랜드	12.298	8	폴란드	11.4389
9	영국	11.716	9	독일	11.854	9	슬로베니아	11.385
10	폴란드	10.947	10	몰타	11.203	10	포르투갈	11.195
11	독일	10.638	11	벨기에	10.739	11	덴마크	11.138
12	벨기에	10.574	12	스페인	10.091	12	몰타	11.106
13	몬테네그로	10.370	13	포르투갈	10.074	13	몬테네그로	11.045

주관적 웰빙			생활수준			주거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14	스페인	10.223	14	프랑스	9.979	14	네덜란드	10.953
15	에스토니아	10.212	15	폴란드	9.827	15	스페인	10.890
16	프랑스	10.067	16	체코	9.823	16	세르비아	10.663
17	슬로베니아	9.972	17	슬로베니아	9.787	17	벨기에	10.385
18	포르투갈	9.751	18	에스토니아	9.786	18	룩셈부르크	10.335
19	세르비아	9.465	19	터키	9.541	19	헝가리	10.281
20	라트비아	9.338	20	이탈리아	9.536	20	이탈리아	10.218
21	체코	9.175	21	키프로스	9.478	21	영국	9.859
22	키프로스	9.148	22	한국	9.433	22	터키	9.7425
23	헝가리	8.995	23	슬로바키아	9.218	23	프랑스	9.718
24	리투아니아	8.979	24	헝가리	9.002	24	키프로스	9.704
25	이탈리아	8.947	25	리투아니아	8.772	25	그리스	9.674
26	루마니아	8.892	26	몬테네그로	8.656	26	크로아티아	9.633
27	슬로바키아	8.844	27	라트비아	8.457	27	에스토니아	9.536
28	불가리아	8.682	28	루마니아	8.371	28	불가리아	9.293
29	크로아티아	8.478	29	크로아티아	8.126	29	마케도니아	8.627
30	터키	7.816	30	세르비아	7.783	30	리투아니아	8.181
31	마케도니아	7.640	31	마케도니아	7.475	31	라트비아	7.092
32	한국	7.318	32	불가리아	7.235	32	한국	6.432
33	알바니아	6.405	33	그리스	6.455	33	루마니아	5.757
34	그리스	5.467	34	알바니아	5.844	34	알바니아	2.718

건강/정신과 관련된 웰빙 수준의 측정은 본인 스스로가 평가한 건강 수준, WHO 웰빙 지표, 우울 위험수준을 측정한다. 분석결과 아일랜드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핀란드 스웨덴, 몬테네그로 오스트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건강/정신 웰빙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순위였다.

일·가정양립은 퇴근 후 피로, 업무로 인한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 수행 및 그와 반대인 가족구성원 책임 수행으로 인한 업무집중 어려움으로 측정되었다.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독일이었으며 다음으로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29위로 일·가정 양립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다.

〈표 IV-2-4〉 건강, 일·가정양립 순위

건강/정신 웰빙			일·가정양립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2018년
1	아일랜드	13.108	1	독일	12.768
2	핀란드	12.891	2	덴마크	12.720
3	스웨덴	12.407	3	핀란드	12.670
4	몬테네그로	12.277	4	네덜란드	12.594
5	오스트리아	12.248	5	슬로바키아	12.545
6	키프로스	11.893	6	슬로베니아	12.267
7	덴마크	11.598	7	오스트리아	11.967
8	독일	11.532	8	룩셈부르크	11.894
9	슬로바키아	11.474	9	아일랜드	11.599
10	네덜란드	11.396	10	에스토니아	11.132
11	스페인	11.322	11	프랑스	11.018
12	크로아티아	11.112	12	벨기에	11.012
13	불가리아	10.820	13	스웨덴	10.932
14	룩셈부르크	10.603	14	불가리아	10.778
15	영국	10.109	15	리투아니아	10.735
16	몰타	10.096	16	이탈리아	10.564
17	포르투갈	10.074	17	포르투갈	10.555
18	슬로베니아	10.046	18	폴란드	10.342
19	마케도니아	9.954	19	영국	10.301
20	벨기에	9.902	20	체코	10.243
21	체코	9.874	21	몰타	9.634
22	폴란드	9.571	22	키프로스	9.538
23	세르비아	9.450	23	헝가리	9.474
24	프랑스	9.020	24	라트비아	8.855
25	알바니아	8.986	25	루마니아	8.811
26	헝가리	8.891	26	스페인	8.648
27	이탈리아	8.732	27	그리스	8.279
28	라트비아	8.694	28	마케도니아	7.839
29	그리스	8.570	29	한국	7.268
30	리투아니아	8.322	30	몬테네그로	7.178
31	터키	8.004	31	세르비아	6.900
32	루마니아	7.253	32	알바니아	6.886
33	에스토니아	7.070	33	터키	6.243
34	한국	2.701	34	크로아티아	5.811

## 다. 공공서비스의 질

공공서비스의 질에 포함되는 1차 잠재변수는 보건의료, 보육 질 및 비용, 교육 질로 구성되는 변수이다. 보건의료 질을 측정하는 문항은 의료 서비스 만족도, 일반 병원 및 보건소 서비스의 질, 대형(종합) 병원 서비스의 질이었다.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였으며 다음으로 몰타,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인 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의 질은 돌봄서비스 만족도, 시설의 질,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교사의 관습 정도,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커리큘럼 및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보육 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순이었으며 한국은 18위로 나타났다.

〈표 IV-2-5〉 보건의료, 보육 질, 보육 비용 순위

보건의료의 질			보육의 질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1	오스트리아	13.378	1	리투아니아	12.804
2	몰타	13.235	2	핀란드	12.704
3	룩셈부르크	13.054	3	오스트리아	12.598
4	독일	12.817	4	체코	12.553
5	핀란드	12.778	5	아일랜드	12.202
6	덴마크	12.116	6	영국	11.687
7	벨기에	11.937	7	룩셈부르크	11.568
8	네덜란드	11.867	8	몰타	11.378
9	한국	11.603	9	에스토니아	11.272
10	프랑스	11.549	10	폴란드	11.032
11	스웨덴	11.390	11	스웨덴	10.987
12	스페인	11.376	12	네덜란드	10.827
13	체코	11.197	13	슬로베니아	10.694
14	리투아니아	10.714	14	불가리아	10.614
15	영국	10.500	15	스페인	10.478
16	터키	9.888	16	독일	10.420
17	아일랜드	9.552	17	덴마크	10.349
18	몬테네그로	9.493	18	한국	10.314
19	슬로베니아	9.466	19	그리스	10.273
20	에스토니아	9.371	20	세르비아	10.200
21	슬로바키아	9.235	21	슬로바키아	9.858
22	포르투갈	9.204	22	헝가리	9.666

보건의료의 질			보육의 질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23	크로아티아	8.827	23	루마니아	9.449
24	불가리아	8.776	24	프랑스	9.435
25	세르비아	8.766	25	포르투갈	9.366
26	이탈리아	8.632	26	키프로스	9.324
27	헝가리	8.460	27	라트비아	8.961
28	루마니아	8.366	28	벨기에	8.698
29	키프로스	7.804	29	크로아티아	8.644
30	폴란드	7.418	30	몬테네그로	7.781
31	라트비아	7.255	31	알바니아	7.671
32	알바니아	7.051	32	이탈리아	7.383
33	마케도니아	6.496	33	터키	5.727
34	그리스	6.428	34	마케도니아	3.080

보육 비용은 영유아 교육 보육 이용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가장 순위가 높은(부담을 적게 느끼는) 국가는 스웨덴이었으며 다음으로 덴마크, 몰타, 핀란드, 폴란드 순이었으며 한국은 31위였다.

교육 질은 교육시스템 만족도, 시설의 질,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교사의 관심 정도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커리큘럼 및 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측정되었다. 교육의 질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몰타였으며 다음으로 아일랜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순이었다.

〈표 IV-2-6〉 보육 비용, 교육 질

보육 비용			교육 질		
순위	국가	표준화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1	스웨덴	14.838	1	몰타	13.397
2	덴마크	13.376	2	아일랜드	13.338
3	몰타	13.305	3	핀란드	13.058
4	핀란드	12.505	4	에스토니아	12.362
5	폴란드	12.230	5	리투아니아	12.329
6	슬로바키아	11.981	6	폴란드	11.810
7	라트비아	11.868	7	덴마크	11.681
8	헝가리	11.546	8	영국	11.615
9	에스토니아	11.313	9	오스트리아	11.562
10	스페인	11.024	10	슬로베니아	11.334
11	네덜란드	10.829	11	룩셈부르크	11.198
12	벨기에	10.686	12	스웨덴	10.909

보육 비용			교육 질		
13	이탈리아	10.621	13	체코	10.806
14	리투아니아	10.583	14	네덜란드	10.621
15	불가리아	10.462	15	루마니아	10.419
16	독일	10.256	16	스페인	10.359
17	오스트리아	10.141	17	헝가리	10.102
18	룩셈부르크	9.922	18	라트비아	10.067
19	체코	9.682	19	벨기에	10.020
20	크로아티아	9.396	20	크로아티아	9.907
21	알바니아	9.396	21	독일	9.714
22	프랑스	9.360	22	불가리아	9.663
23	포르투갈	9.341	23	슬로바키아	9.395
24	루마니아	9.109	24	프랑스	9.221
25	슬로베니아	8.826	25	세르비아	9.113
26	영국	8.214	26	키프로스	8.688
27	그리스	8.047	27	몬테네그로	8.143
28	키프로스	8.000	28	알바니아	8.059
29	아일랜드	7.864	29	포르투갈	7.934
30	몬테네그로	7.536	30	한국	7.735
31	한국	7.434	31	이탈리아	7.248
32	마케도니아	7.361	32	그리스	6.726
33	세르비아	6.897	33	터키	6.580
34	터키	6.051	34	마케도니아	4.887

## 라. 사회의 질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1차 잠재변수는 사회적 불안정성, 신뢰 및 갈등, 치안이었다. 사회적 불안정성은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민주주의 작동방식의 만족도로 측정되었다. 가장 순위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었으며 다음으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중간 수준인 16위였다.

신뢰와 갈등은 타인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빈부격차에 대한 갈등, 남녀 갈등, 인종 간 갈등으로 측정되었다.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였고 다음으로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33위였다.

〈표 IV-2-7〉 사회적 불안정성, 신뢰 및 갈등, 치안

사회적 불안정성			신뢰 및 갈등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1	스웨덴	13.826	1	덴마크	14.388
2	덴마크	13.745	2	핀란드	13.595
3	룩셈부르크	13.526	3	룩셈부르크	13.185
4	네덜란드	12.973	4	네덜란드	12.335
5	핀란드	12.750	5	스웨덴	12.229
6	오스트리아	12.085	6	아일랜드	11.609
7	몰타	11.919	7	포르투갈	11.308
8	독일	11.881	8	불가리아	11.230
9	아일랜드	11.422	9	터키	11.127
10	영국	11.156	10	오스트리아	11.057
11	벨기에	11.069	11	몬테네그로	11.006
12	터키	11.053	12	독일	10.929
13	에스토니아	10.493	13	스페인	10.751
14	폴란드	10.181	14	몰타	10.620
15	체코	10.143	15	에스토니아	10.428
16	헝가리	9.843	16	슬로바키아	10.378
17	한국	9.839	17	벨기에	10.111
18	몬테네그로	9.360	18	영국	10.034
19	키프로스	9.117	19	라트비아	9.802
20	프랑스	9.105	20	체코	9.775
21	세르비아	9.073	21	프랑스	9.498
22	포르투갈	9.058	22	키프로스	9.486
23	슬로바키아	9.040	23	폴란드	9.465
24	불가리아	8.946	24	헝가리	9.037
25	리투아니아	8.933	25	그리스	8.823
26	루마니아	8.515	26	이탈리아	8.812
27	라트비아	8.446	27	리투아니아	8.714
28	스페인	8.199	28	세르비아	8.581
29	슬로베니아	8.191	29	루마니아	8.508
30	이탈리아	8.109	30	슬로베니아	8.353
31	마케도니아	8.082	31	마케도니아	6.770
32	크로아티아	7.733	32	크로아티아	6.620
33	그리스	6.197	33	한국	5.984
34	알바니아	5.991	34	알바니아	5.452

가사 분담은 자녀 돌봄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남녀차로 산출하였다. 자녀 돌봄의 남녀차가 없는 국가는 스웨덴이었으며 다음으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벨기에, 마케도니아 순이었다. 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의 경우에는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였으며 다음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 순이었다. 통합하여 산출 한 결과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었으며 다음으로 라트비아,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2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 분담 순위가 26위로 낮은 편이었지만 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에서 9위로 나타나 EU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남성이 상대적으로 자녀 돌봄 보다는 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가사 분담 순위

자녀 돌봄 분담			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			자녀 돌봄+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1	스웨덴	14.392	1	라트비아	12.991	1	스웨덴	14.136
2	슬로베니아	14.133	2	스웨덴	12.916	2	라트비아	13.257
3	포르투갈	12.570	3	덴마크	12.638	3	핀란드	12.794
4	벨기에	12.108	4	핀란드	12.635	4	덴마크	12.311
5	마케도니아	11.845	5	에스토니아	12.197	5	에스토니아	12.309
6	라트비아	11.824	6	영국	12.190	6	아일랜드	11.857
7	크로아티아	11.645	7	네덜란드	11.844	7	네덜란드	11.779
8	핀란드	11.402	8	아일랜드	11.634	8	벨기에	11.565
9	헝가리	11.252	9	한국	11.619	9	영국	11.465
10	아일랜드	11.210	10	루마니아	11.567	10	루마니아	11.102
11	에스토니아	11.113	11	독일	11.183	11	룩셈부르크	11.020
12	불가리아	11.045	12	벨기에	10.914	12	한국	10.910
13	룩셈부르크	10.812	13	룩셈부르크	10.834	13	프랑스	10.792
14	슬로바키아	10.580	14	프랑스	10.826	14	슬로바키아	10.725
15	이탈리아	10.557	15	리투아니아	10.692	15	헝가리	10.509
16	네덜란드	10.500	16	슬로바키아	10.591	16	독일	10.448
17	프랑스	10.213	17	몰타	10.435	17	슬로베니아	10.206
18	덴마크	10.080	18	오스트리아	10.398	18	오스트리아	10.125
19	키프로스	10.053	19	체코 Republic	10.313	19	크로아티아	9.974
20	몬테네그로	9.736	20	스페인	10.268	20	몰타	9.931
21	세르비아	9.538	21	헝가리	10.057	21	스페인	9.707

자녀 돌봄 분담			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			자녀 돌봄+요리 또는 집안일 분담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22	오스트리아	9.402	22	폴란드	9.801	22	리투아니아	9.322
23	루마니아	9.310	23	크로아티아	9.271	23	포르투갈	9.199
24	영국	8.832	24	슬로베니아	8.483	24	체코	9.131
25	몰타	8.786	25	키프로스	8.469	25	불가리아	8.737
26	한국	8.666	26	불가리아	8.096	26	키프로스	8.695
27	스페인	8.570	27	이탈리아	8.027	27	이탈리아	8.498
28	독일	8.434	28	포르투갈	7.983	28	폴란드	8.380
29	터키	7.907	29	터키	7.833	29	세르비아	7.652
30	알바니아	7.433	30	세르비아	7.481	30	마케도니아	7.611
31	체코	6.898	31	그리스	6.899	31	터키	7.357
32	그리스	6.573	32	몬테네그로	6.699	32	몬테네그로	7.048
33	리투아니아	6.524	33	마케도니아	6.454	33	그리스	6.059
34	폴란드	6.057		알바니아	5.759	34	알바니아	5.389

## 마. 환경의 질

지역사회 환경문제는 소음, 대기의 질, 쓰레기, 교통정체 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지역사회 환경 문제가 가장 좋은 국가는 핀란드였으며 다음으로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덴마크 순이었으며 한국은 34위로 가장 낮았다.

편의시설 접근성은 은행시설, 대중교통시설, 영화관 및 문화시설, 휴양지 또는 녹지 지역, 식료품 가게 또는 슈퍼마켓에 접근하기 얼마나 용이한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편의시설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였으며 다음으로 키프로스, 스웨덴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0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은 해가 진 후 혼자 다닐 때 안전한지, 밤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한지를 나타내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순위가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었으며 다음으로 핀란드,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13위였다.

〈표 IV-2-9〉 환경의 질

지역사회 환경문제			편의시설 접근성			치안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순위	국가	표준화 점수
1	핀란드	13.096	1	네덜란드	13.407	1	스웨덴	14.352
2	슬로베니아	12.631	2	키프로스	13.401	2	핀란드	14.309
3	아일랜드	12.400	3	스웨덴	12.968	3	덴마크	13.766
4	덴마크	12.322	4	덴마크	12.843	4	스페인	12.026
5	포르투갈	12.282	5	룩셈부르크	12.508	5	네덜란드	11.929
6	프랑스	11.919	6	오스트리아	12.025	6	폴란드	11.627
7	네덜란드	11.801	7	리투아니아	12.010	7	슬로베니아	11.459
8	헝가리	11.644	8	영국	11.696	8	프랑스	11.366
9	스웨덴	11.636	9	그리스	11.590	9	마케도니아	11.204
10	에스토니아	11.615	10	한국	11.450	10	룩셈부르크	11.157
11	오스트리아	11.483	11	독일	11.300	11	에스토니아	11.153
12	라트비아	11.302	12	라트비아	10.999	12	오스트리아	10.790
13	리투아니아	10.786	13	아일랜드	10.720	13	한국	10.633
14	슬로바키아	10.703	14	불가리아	10.696	14	아일랜드	10.310
15	폴란드	10.366	15	핀란드	10.568	15	몰타	10.207
16	스페인	10.365	16	체코	10.257	16	라트비아	10.162
17	룩셈부르크	10.295	17	슬로베니아	10.245	17	크로아티아	10.065
18	몬테네그로	9.973	18	에스토니아	9.876	18	알바니아	9.752
19	키프로스	9.947	19	몰타	9.871	19	영국	9.697
20	독일	9.833	20	벨기에	9.833	20	키프로스	9.668
21	영국	9.677	21	슬로바키아	9.398	21	포르투갈	9.540
22	그리스	9.673	22	스페인	9.351	22	벨기에	9.409
23	이탈리아	9.605	23	프랑스	8.970	23	헝가리	9.167
24	세르비아	9.433	24	폴란드	8.654	24	세르비아	9.034
25	크로아티아	9.407	25	마케도니아	8.605	25	루마니아	8.931
26	체코	9.185	26	몬테네그로	8.276	26	몬테네그로	8.921
27	벨기에	7.984	27	세르비아	8.270	27	슬로바키아	8.580
28	불가리아	7.910	28	헝가리	7.967	28	독일	8.478
29	터키	7.795	29	이탈리아	7.693	29	리투아니아	7.804
30	알바니아	7.622	30	크로아티아	7.656	30	체코	7.585
31	루마니아	7.602	31	알바니아	6.923	31	불가리아	7.372
32	몰타	7.294	32	루마니아	6.897	32	이탈리아	7.297
33	마케도니아	6.468	33	터키	6.869	33	그리스	6.645
34	한국	3.948	34	포르투갈	6.208	34	터키	5.605

### 3. 상관분석 결과

삶의 질 1차 요인과 주요 경제 사회 지표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은 주요 경제 사회 지표데이터가 제시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외된 국가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다.

상관분석 결과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변수는 대부분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 주거, 건강/정신웰빙, 일·가정양립, 보건의료, 보육의 질, 보육 비용, 사회적불안정성, 신뢰 및 갈등, 가사분담, 지역사회문제, 편의시설 접근성, 치안, 근로시간, 일인당 GDP,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관적 웰빙과 상관이 가장 높은 변수는 생활수준( $r = .919$ )이었고,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정( $r = .833$ ), 치안( $r = .762$ ) 신뢰 및 갈등( $r = .734$ ), 근로시간( $r = -.719$ ) 순이었다.

주당 근로시간, 사회복지지출 비율, 1인당 GDP 등은 대부분 삶의 질 지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주관적 웰빙( $r = -.719$ ), 일·가정양립( $r = -.703$ ), 생활수준( $r = -.655$ ), 건강/정신 웰빙( $r = -.618$ )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주거( $r = .428$ ), 건강/정신 웰빙( $r = -.424$ ), 일·가정양립( $r = -.424$ ), 주관적 웰빙( $r = -.415$ )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DP는 생활수준( $r = .760$ ), 주관적 웰빙( $r = .671$ ), 보건의료( $r = .612$ )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변수 중 출산율과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신뢰 및 갈등( $r = .362$ )이 유일하였다.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2-10〉 상관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관적 웰빙	-	.919**	.478**	.624**	.643**	.633**	.489**	.565**	.833**	.734**	.663**	.500**	.392*	.762**	-.719**	.671**	.415*	.291
생활 수준	-	-	.491**	.517**	.579**	.729**	.394*	.374*	.900**	.695**	.603	.376*	.457**	.665**	-.655**	.760**	.379*	.308
주거	-	-	-	.722**	.559**	.324	.268	.333	.383*	.513**	-.012	.503**	.100	.228	-.391*	.308	.428*	.132
일·가정 양립	-	-	-	-	.518**	.246	.295	.348	.389*	.635**	.201	.602**	.289	.346	-.618**	.412*	.424*	.271
건강/정신 웰빙	-	-	-	-	-	.421*	.517**	.435	.508**	.616**	.404*	.589**	.423*	.398*	-.703**	.530**	.424*	.239
교육의 질	-	-	-	-	-	-	.403*	.248	.728**	.466**	.387*	-.003	.352	.415*	-.424*	.612**	0.306	.127
보육비용	-	-	-	-	-	-	-	.286	.356	.268	.288	.293	.542**	.403*	-.349	.369*	.038	-.036
사회적불안정	-	-	-	-	-	-	-	-	.394*	.429*	.502**	.346	.182	.556**	-.472**	.117	.361	-.078
신뢰 및 갈등	-	-	-	-	-	-	-	-	-	.740**	.561**	.193	.461**	.535**	-.515**	.692**	.178	.324
가사분담	-	-	-	-	-	-	-	-	-	-	.366*	.497**	.341	.423**	-.568**	.587**	.326	.362*
지역 사회 환경 문제	-	-	-	-	-	-	-	-	-	-	-	.334	.321	.710**	-.528**	.444*	.133	.255
편의 시설 접근성	-	-	-	-	-	-	-	-	-	-	-	-	.144	.471**	-.594**	.285	.449*	.326
치안	-	-	-	-	-	-	-	-	-	-	-	-	-	.364*	-.437*	.520**	0.078	.032
일인당 GDP	-	-	-	-	-	-	-	-	-	-	-	-	-	-	-.520**	.477**	0.387*	-.041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	-	-	-	-	-	-	-	-	-	-	-	-	-	-	-.559	-.488**	-.258
출산율	-	-	-	-	-	-	-	-	-	-	-	-	-	-	-	-	.358	.115
																	-	-.067

\*  $p < .05$ , \*\*  $p < .01$ .







# V

---

## 정책제언

---

01 연구결과의 요약

02 정책 방향 및 개선 과제



## V. 정책제언

###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육아 행복을 부모의 삶의 질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부모의 삶의 질은 유럽 삶의 질 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된 주요 요인에 대해서 유럽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였다.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 부모의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부모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에서 순위가 낮았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매우 낮았던 영역은 삶의 질 지표의 하위 요인인 주관적 웰빙 수준, 주거만족, 건강/정신 웰빙, 일·가정양립, 공공서비스 질의 하위 요인인 보육 비용, 교육 질, 사회질의 하위요인인 신뢰 및 갈등, 환경의 질의 하위 요인인 지역사회 환경 문제가 전체 34개국 중에 최하위이거나 30위권 수준이었다. 생활수준은 중하위권이었고 보건의료, 치안, 편의시설 접근성은 중상위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OECD better life index, 인간개발지수 등 주요 삶의 질 지표와 유사한 결과였다.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본 연구의 삶의 질 하위변수 중 하나인 생활수준과 순위가 유사하였다. 즉, 인간개발 지수는 생활수준과 밀접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치안, 편의시설 접근성 등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부모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구 소득이었다.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생활수준, 주거, 교육, 직업만족도 건강/정신 웰빙 등이 모두 낮았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성별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관적 웰빙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도, 행복, 건강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증상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의 남녀 차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가장 심한 국가였으며 주관적 웰빙이 높은 국가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오히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원인은 남성의 자녀 돌봄이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삶의 질이 저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이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다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근로시간과 삶의 질 하위변인인 주관적 웰빙, 건강, 일·가정양립 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시간 감소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갈등 수준이 높고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빈부 격차에 대한 사회갈등 수준이 높았으며 국회, 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갈등 및 신뢰도는 주관적 웰빙, 생활수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 대부분의 요인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율과 유일하게 관계성이 있는 요인이었다.

사회적 불안정성 영역에서는 심층면담 결과 대부분의 심층면담에 참여한 자녀를 둔 부모는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늦게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노후에 자녀 지원을 위한 소득이 중요해졌고, 이에 대한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보육에 대해서는 장시간 보육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비용 문제, 가정어린이 집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교육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가 뒤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로 인한 사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도 국제비교 결과 유럽 국가들이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질 부분은 치안, 편의시설 접근성 부분은 높았으나 소음, 대기 질, 쓰레기 문제 등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하위권이었다.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소음 영역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 대기의 질 영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우리사회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책 방향 및 개선 과제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의 개선점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림 V-2-1]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

### ◇ [추진방향] 2040 평등한 출발, 워라밸 등 5대 개혁 추진

####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출생 아동)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임신부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영유아·초등학생) 촘촘한 초등돌봄, 공보육 확충, 가정·공동체 돌봄 강화

####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아이 함께)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빠 함께)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중소기업 함께)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3.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한부모 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비혼 출산·양육)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4.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 청년일자리, 청년대책은 별도 수립

#### 5.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정책 변화 방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① 목표	출산율·출생아 수	2040 세대 삶의 질
② 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 개선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③ 타킷 대상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청년, 아동, 여성 행복 서민, 중산층
④ 정책 주안점	보육	주거, 워라밸 강화 모든 출생 존중
⑤ 실천 전략	새로운 제도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참고 : 유럽의 출산 정책, 선진국이 택한 해법】**

- ▶ (여성을 행복하게) 일·생활 균형, 탄력근무제 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 ▶ (정부지출의 적중률 제고) 사적양육부담 감소, 공보육 등 선택과 집중
- ▶ (인센티브를 넘는 법적의무 부여) 성 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 필요(예: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 7).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설명자료, p. 5

## 가. 사회적 신뢰 수준 향상 필요

정책의 이행과 달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사회적 신뢰이지만(Newton, Stolle, & Zmerli, 2018),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그림에 제시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목표, 과제들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으로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 결과에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회는 타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9천 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7: 16). 우리나라가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

에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복지재정 지출의 증가는 고소득층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회적 갈등을 증대시키고,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 수준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 증대가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사회적 신뢰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이기도 하고 출산율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의 하나로 사회적 신뢰 및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자녀를 미래에 사회구성원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을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후속 세대 생산에 관심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개인의 영달과 안위, 즉,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만 더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았다.

사회적 신뢰는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유모차에 자녀를 태운 후 식당 주변 도로에 방치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미국 뉴욕에서는 유모차를 방치할 경우 경찰에 체포 사유이다(Zak & Knack, 2001). 이스라엘에서는 놀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녀도 함께 돌보는 것이 사회 규범인데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Coleman, 1988).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문제 등으로 인해 아동 돌봄 전문 기관인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사회 수준이 낮은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 사회적 제도가 수혜자에게 효과적이 적절하게 전달될 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리더가 많아질 때,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을 참여할 때, 포용성 및 공정성을 강화할 때,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신뢰에 몰입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Lord, 2019).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교육 등도 교육과정에 녹아낼 필요가 있다.

## 나. 근로 시간 감소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의 목표에서 워라밸 강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핵심은 근로시간 감소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어떤 국가보다도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과 삶의 질 하위 요인들과 관계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높을수록 모든 삶의 질 요인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가정양립, 건강 등의 문제는 근로시간 감소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 문제가 보육의 질, 남녀 가사분담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육 부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길수록 보육 이용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다.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일간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7시 48분이고 이를 주당 이용시간으로 환산하면 39시간이다(이정월·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 2018). 반면 유럽의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평균 이용시간은 3세 이상의 경우에는 29.5시간, 3세 미만인 경우에는 27.4시간(European Commission, 2019)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0시간 정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질 만족도는 중하위권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보육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 등이 원인일 수 있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시간 노동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풀 수 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다.

## 다. 불평등 해소 및 저소득층 육아 가구 지원 강화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 대부분이 낮았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를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에서 청년, 아동 여성 등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볼 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에 더 무게를 두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는 전술한 사회적 신뢰 향상과 맞닿아 있다.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결국 사회적 신뢰 수준 향상과 불평등 감소가 동반해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여 국가 전체의 삶의 질 수준

을 높일 수 있다.

## 라.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 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조사 결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이 활성화되어 있다. 사회주택은 공공, 민간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공공성이 강한주택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주택(public housing)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최은영·권순형·진남영·정진선·한지은·조현준·김기태·김세현·정남진, 2016: 2). 이러한 사회주택의 공급 강화 및 사회주택에 대한 임대료 제한,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조성 기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주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거 관련 국제 비교 순위가 높았던 오스트리아이다. 구체적인 오스트리아의 주거 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거 관련 국제비교 순위가 높았던 국가인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으로 사회주택 공급률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사회주택은 2013년 기준 노동자와 고용주 각각 임금의 0.5%를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국가기금으로 납입하여 재원이 충당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CECODHAS, 2013; 임병권·강민정·장한익·김병국, 2018: 16 재인용).

오스트리아는 전체 주택의 24%가 사회주택이며, 임대 주택 중 사회주택은 5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임병권 외, 2018:16). 사회주택의 약 67%는 비영리 또는 유한이익주택협회에 의해 33%는 지자체에 의해 운영된다(임병권 외, 2018:16). 유한이익주택협회는 영리추구목적의 업체와는 달리 제한된 임대료와 임차인 점유가능 주택의 공급, 관리 이외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임병권 외, 2018:16). 오스트리아의 공적보조 하에 신규 건설된 주택 중에서 약 50%는 사회주택이다(임병권 외, 2018:16). 사회주택 공급과 함께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공급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Whitehead & Scanlon, 2007, 임병권 외, 2018:16, 재인용).

우리나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민간자원

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유럽과는 다르게 민간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아 공급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박은철·김수경·오근상, 2017: 8). 결국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 행정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마. 공교육·보육 강화

보육비 부담 경감,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도 필요하다. 보육의 질적 수준이 높았던 리투아니아, 핀란드, 보육비 부담 수준이 낮은 스웨덴 등은 모두 국공립 비율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였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비율은 2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한겨레, 2018.10.28.). 부모의 삶의 질에 보육의 질과 비용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공립기관 확충과 영유아교육·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의 중요한 과제이다.

## 바. 교육의 체질 개선 및 사교육비 절감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대한 순위도 유럽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하위권이었다. 심층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부모들의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신뢰는 높지 않다. 가장 큰 불만은 지나치게 경쟁적이라는 점, 이로 인해 사교육비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자녀들의 특기 및 적성을 잘 살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교육의 질이 높았던 몰타는 영국 식민지였던 국가로 영국 교육 제도를 받아들인 국가였다. 전반적으로 아일랜드, 영국 등 영미권 국가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본 연구에서 교육의 질 수준 높고 최근 PISA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국가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이미 1970년대부터 도입한 국가이다. 아일랜드는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란 이름으로 추진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사이에 이뤄진다(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16). 전환학년제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16). 아일랜드는 전환학기제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학교 공간이 전환학년제에 맞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반시설 부족 및 프로그램 부족, 적정한 교사 부족, 학기 간 연계방안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철균·황은희·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가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학업 공백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대학진학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실시한 국가는 아니지만 스위스의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29% 정도이다(주간조선, 2016. 1. 4). 지나친 대학입시의 경쟁구조, 사교육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에도 양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 구조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스위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낮더라도 평생교육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을 무조건 감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을 갖고 이후에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사. 고용 안정망 강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대부분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직업불안정성이었다.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만혼이 많아지고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나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 있는 부부 입장에선 노후 시기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의 고용 안전망 강화, 특히 자녀가 있는 실업 가구의 사회보장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넓히고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아. 기업 문화 개선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제고

육아휴직 사용 등 일·가정양립 문제는 기업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미 모성보호 제도를 비롯한 모든 일·가정양립 제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에서 얼마나 잘 용인하는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 기업에서도 자녀가 있는 직원의 삶의 질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출산, 육아 직원에 대한 배려가 잘 이뤄지는 사업장에 법인세 감면 혜택 등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 혜택 등이 동반되어야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자. 층간 소음, 미세 먼지 개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과제로 층간 소음, 미세먼지 개선 등 주거지역 환경 정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201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로 인해 접수된 건수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보도자료, 2015. 5. 11). 심층면담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층간소음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가해자이기도 하였다. 영아를 키우는 가구는 소음으로 인해 자주 깨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유아를 키우는 가구는 아래층으로부터 항의전화를 자주 받아 이사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건축 시 층간소음 규제제도,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제도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사회적 배려, 신뢰 회복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주제이다.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 정책은 주거취약 가구 지원 개선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 지원, 주거바우처 지급 확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 환경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간 복합적인 통합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현경(2014). 유아교육분야 행복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9, 1-28.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0(2), 41-55.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국민대통합위원회(2014).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3):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국민통합 이슈모니터링(Vol.7): 사회의 질과 국민통합.
-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권정윤·정미라·박수경(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6(3), 143-160.
- 김상균·권태환·이문웅·이정전·김태성·조홍식(1996).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의철·박영신·권용은(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진이(2018). 유아의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과 양육행동, 가족환경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9, 53-77.
- 디지털타임스(2018. 12. 7 기사).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꿨다... 출산율 올리기 → 삶의 질 개선.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20702109931102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20702109931102001) (2019. 3. 1. 인출)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성현(2019). 한국인의 삶의 질, 통계적 지표에 의한 현황과 개선 방향, 학술원 논문집(자연과학편), 58(1), 89-109.

- 박은철·김수경·오근상(2017). 사회주택 활성화 쟁점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박지선·유영주(2014).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감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부정감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4), 241-266.
- 석현호·이재열·한준·홍종호·김석호(201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 기본체계의 개편, 통계청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신철균·황은희·김은영(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27-55.
- 오민아·변길진·권정윤(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와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2(5), 429-448.
- 윤병식·정우진·이현송·연하청·한성덕·박주현(1996).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주(2001). 지구의 온도변화와 삶의 질, 제23회 삶의 질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사업단.
- 이재혁·김희영·이종화(2007).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3(1), 5-12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 이희길·심수진·김홍희(2015). 국민 삶의질 측정 2015. 통계개발원(편), 통계개발원 201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III권(pp. 1-18). 통계개발원.
- 임병권·강민정·장한익·김병국(2018). 유럽국가의 사회주택 현황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주택금융리서치, 2018년 제2호, 4-21.
- 장영식·고경환·손창균·이수현(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 7).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안[설명자료].
- 정계숙·최은실(2012).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43-163.
- 정미라·김지원·이영은(2015). 12개월 첫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양육 어려움과 그 의미.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255-281.
- 정해식·김성아(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27, 75-88.
- 조명환·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48. 집문당.
- 조명희·김세현(2017). 여성의 자아지향과 일-육아 갈등: 30, 40대 중산층 기혼 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0(3), 245-285.
- 주간조선(2016. 1. 4. 기사). 생애선택자유 선진국은 1위 스위스 대학진학률은 29%.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7&nNewsNumb=002389100002> (2019. 11. 1. 인출)
- 중앙일보(2018. 7. 5. 기사). [종합]아빠 육아휴직 1만2천명↑…부모 삶의 질 높여 저출산 해소. <https://news.joins.com/article/22776371> (2019. 3. 1. 인출)
- 최은영·권순형·진남영·정진선·한지은·조현준·김기태·김세현·정남진(2016).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채선미·강희선·이한주·신현숙(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87-195.
- 한겨레(2018. 10. 28. 기사). 한국 국공립 유치원 비중 21%…사실상 'OECD 꼴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660.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7660.html) (2019. 11. 1. 인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2016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아일랜드 1월~2월 교육과정].
- 한성덕(1998). 「삶의 질」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 사회지표의 '삶의 질' 지표화 방법의 모색, 사회과학연구, 4(3), 425-491.
- 한준·강석훈·김석호·서은국·홍종호·이희길·박주연(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 허보윤·한경자(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2), 131-146.
- 환경부 보도자료(2015. 5. 11). 층간소음 갈등…어린이 대상 예방교육으로 해소.

- 황세영·김남수(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혜원·신정이(2009).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45-71.
- Aassve, A., Goisis, A., & Sironi, M. (2012). Happiness and childbearing across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65-86.
- Abbott, P., & Wallace, C. (2009). Patterns of participation in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ie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39(2), 12-38.
- Abbott, P. & Wallace, C. (2012). Social quality: A way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153-167.
- Anielski, M. (2007). *The economics of happiness: Building genuine wealth*. New Society Publishers.
- Avison, W. R., Ali, J., & Walters, D. (2007). Family structur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demonstration of the impact of differential exposu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8(3), 301-317.
- Brock, D. (1993). Quality of life measures in health care and medical ethics. In Martha Nussbaum & Amarty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pp. 95-132). Oxford: Clarendon Press.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ahn, S. M., & Vitrano, C. (2007). *Happiness: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in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 CECODHAS (2013). *Study on Financing of Social Housing in 6 European countries*. CECODHAS European Social Housing Observatory.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urand, M. (2015). The OECD better life initiative: *How's life?* and the

- measurement of well-being.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1(1), 4-17.
- Dyson, L. L. (1991).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andicaps: Parental stress and family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5(6), 623-629.
- Edin, K., & Kefalas, M. (2011). *Promises I can keep: Why poor women put motherhood before marri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urofound (2016).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2016: Technical and fieldwork report*.
- Eurofound (2019). *Life and society in the EU candidate countries, European Quality of Life 2016 serie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European Commission (2019).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 2019 Edition*. Eurydice Report.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Gelman, V. S., & King, N. J. (2001). Wellbeing of mothers with children exhibiting sleep disturbanc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3(1), 18-22.
- Glass, J., Simon, R. W., & Andersson, M. A. (2016). Parenthood and happiness: Effec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22 OECD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3), 886-929.
- Hansen, T. (2012). Parenthood and happiness: A review of folk theories versus empirical evid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29-64.
- Hörnquist, J. O. (1990). Quality of life: concept and assessment.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18(1), 69-79.
- Hu L.-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453.
- Kahneman, D., Schkade, D. A., Fischler, C., Krueger, A. B., & Krilla, A. (2010). The structure of well-being in two cities: Life

- satisfaction and experienced happiness in Columbus, Ohio; and Rennes, France. In Ed Diener, Daniel Kahneman, & John Helliwell (Ed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pp. 16-33). Oxford University Press.
- Koeske, G. F., & Koeske, R. D. (1990).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al str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3), 440-451.
- Kohler, H. P., Behrman, J. R., & Skytthe, A. (2005). Partner + children = happiness? The effects of partnerships and fertility on well-be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3), 407-445.
- Koropecyj-Cox, T., & Pendell, G. (2007). The gender gap in attitudes about child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4), 899-915.
- Landreth, G. L., & Lobaugh, A. F. (1998). Filial therapy with incarcerated fathers: Effects on parental acceptance of child, parental stress,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6(2), 157-165.
- Lockwood, D. (1992). *Solidarity and schism: The problem of disorder in Durkheimian and Marxist sociolog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rd, K. M. (2019. 1. 31.). Six ways to repair declining social trus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https://ssir.org/articles/entry/six\\_ways\\_to\\_repair\\_declining\\_social\\_trust](https://ssir.org/articles/entry/six_ways_to_repair_declining_social_trust), 2019, 10. 27. 인출).
- Margolis, R., & Myrskylä, M. (2015). Parental well-being surrounding first birth as a determinant of further parity progression. *Demography*, 52(4), 1147-1166.
- McLanahan, S., & Adams, J. (1989). The effects of children on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1957-1976. *Social Forces*, 68(1), 124-146.
- Newton, K., Stolle, D., & Zmerli, S. (2018).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ric M. Uslaner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pp. 37-56). Oxford University Press.

- Ono, H., & Lee, K. S. (2013). Welfare states and the redistribution of happiness. *Social Forces*, 92(2), 789-814.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3), 241-256.
- Phillips, D. (2006). *Quality of life: Concept, polic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ollmann-Schult, M. (2014). Parenthood and life satisfaction: Why don't children make people happ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2), 319-336.
- Rogge, N. & Van Nijverseel, I. (2019). Quality of life in the European Union: A multidimensional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1(2), 765-789.
- Savolainen, J., Lahelma, E., Silventonen, K., & Gauthier, A. H (2001).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Finland: Does public policy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2(1), 61-74.
- Schoen, R., Kim, Y. J., Nathanson, C. A., Fields, J., & Astone, N. M. (1997). Why do Americans want childre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2), 333-358.
- Stanley, K., Edwards, L., & Hatch, B. (2003). *The family report 2003: Choosing happiness?*.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Umberson, D., & Gove, W. R. (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 Veenhoven, R. (2008). Sociological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 44-61). Guilford Press.
- Walker, A., & Van der Maesen, L. (2004).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In Glatzer W., Von Below S., & Stoffregen M. (Eds.), *Challenges for Quality of Life in the Contemporary World*.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vol 24. Springer, Dordrecht.

- Webster-Stratton, C., & Hammond, M.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tress,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3), 299-315.
- Whitehead, C., and Scanlon, K. (2007). *Social housing in Europ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WHOQOL Group (1993), Study protocol f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ject to develop a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WHOQOL). *Quality of Life Research*, 2(2), 153-159.
- Zak, P. J., & Knack, S.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470), 295-321.

###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3098&cid=40942&categoryId=32182> (2019. 7. 10. 인출)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https://mdis.kostat.go.kr> (2019. 8. 21. 인출)
- cbmpress toronto 홈페이지. <https://cbmpress.com/toronto/%EC%BA%90%EB%82%98%EB%8B%A4-%EC%82%B6%EC%9D%98-%EC%A7%88%EC%9D%B4-%EC%A2%8B%EC%9D%80-%EA%B5%AD%EA%B0%80-4%EB%85%84-%EC%97%B0%EC%86%8D-1%EC%9C%84/> (2019. 7. 7. 인출)
- Eurofound 홈페이지. <https://www.eurofound.europa.eu/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s/european-quality-of-life-survey-2016> (2019. 6. 30. 인출)
- Eurostat 홈페이지. [https://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sa\\_ewhun2&lang=en](https://appsso.eurostat.ec.europa.eu/nui/show.do?dataset=lfsa_ewhun2&lang=en) (2019. 10. 9. 인출)
- <https://ec.europa.eu/eurostat/web/gdp-and-beyond/quality-of-life/data> (2019. 3. 12. 인출)
- HDI 홈페이지. <http://hdr.undp.org/en/content/human-development-index-hdi> (2019. 05. 31. 인출)

- Human development reports 홈페이지. <http://hdr.undp.org/en/2018-update> (2019. 7. 7. 인출)
- IMF 홈페이지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AO/OEMDC/ADVEC/WEOWORLD/ALB/AUT/BEL/BGR/HRV/CYP/CZE/DNK/EST/FIN/FRA/DEU/GRC/HUN/ISL/IRL/ITA/KOR/LVA/LTU/LUX/MLT/MNE/NLD/POL/PRT/ROU/SRB/SVK/SVN/ESP/SWE/TUR/GBR>) (2019. 10. 9. 인출)
-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statistics/measuring-well-being-and-progress.htm> (2019. 3. 12. )  
<https://stats.oecd.org/> (2019. 10. 10. 인출)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2019. 10. 10. 인출)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2019. 10. 24. 인출)
- 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019. 7. 8 인출)
- USnews - best countries - quality of life 홈페이지.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quality-of-life-rankings> (2019. 7. 7. 인출)





# **A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Parents’ Happiness: An analysis on Parent’ Quality of Life in Korea**

Jaehee Lee , Changhyun Park, Eun young Park, Ji yeh Choi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to suggest ideas for improving family policies that build a decent society for parenting.

We reviewed global indicators on the quality of life and previous studies on parents’ happiness, wellbeing, and stress. A survey for 300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12 years old had been conducte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parents’ quality of life after translation into Korea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rents’ quality of life between Korea and EU nations was conducted.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for six married couples with children under 12 years old.

Household incom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parents’ quality of life in Korea. A low-income household had lower subjective wellbeing, the standard of living, satisfaction on housing, education, and work-life balance which were variables related to parents’ quality of life than a high-income household. Women had low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mental health than men.

Korea has longer working hours than any other European nation. Korea's ranking was 13th for GDP per capita, 31st for social spending rate, and 30th for fertility rate among Korea and 33 European nation. Korea ranked near the bottom for subjective wellbeing, the standard of living, health, housing, work-life balance, education, child care, social trust, equality of household work among 34 nations. Korea ranked above the middle of 34 nations for Accessibility to conveniences, health care, and public safety. According to additional analysis using social and economic indicators and sub-dimensions of quality of life for each nation, a correlation between social trust and fertility rate was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indicates that parents' quality of life in Korea should increase through improving family policies. Especial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find a way to promote social trust and decrease working hour which has a decisive impact on parents' quality of life. Welfar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roved for low-income families with children. Also,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endeavor to strengthen employment security and to help workers having children achieve work-life balance.

Keyword: Parents' Happiness, Quality of Life, Family policy, Work life balance, Child care



문1.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부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녀수 ( )명					
구분	연령	성별	이용 및 재원 기관	건강상태	
자녀 1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⑦ 출가 및 미취업/기타( )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① 장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와 질병 모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질병 있음
자녀 2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⑦ 출가 및 미취업/기타( )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 이상**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① 장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와 질병 모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질병 있음
자녀 3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⑦ 출가 및 미취업/기타( )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 이상**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① 장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와 질병 모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질병 있음
자녀 4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⑦ 출가 및 미취업/기타( )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 이상**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① 장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와 질병 모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질병 있음
자녀 5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⑦ 출가 및 미취업/기타( )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 이상**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인	<input type="checkbox"/> ① 장애 있음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와 질병 모두 있음 <input type="checkbox"/> ④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질병 있음

\* 자녀 미취학 연령 시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함(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제 기관 등)  
 \*\* 전문대학교, 일반대학교 및 대학원 등 해당함.



문8(EQ14).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대체로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유·무급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당 (            )시간

문9(EQ17). 만약, 생활비를 벌어야 할 필요를 고려하면서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귀하께서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고 싶으십니까? 현재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주당 (            )시간

문10(EQ18). 귀하의 배우자께서 취업하신 경우, 배우자께서는 일주일에 대체로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유·무급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당 (            )시간

문11(EQ4). 모든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귀하께서는 최근 삶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1(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문12(EQ5). 모든 요건을 고려하였을 때, 귀하께서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불행함)에서 10(매우 행복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문13(EQ6). 귀하께서는 다음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1(매우 불행함)에서 10(매우 행복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교육 수준	(            )
2) 현재 직업	(            )
3) 현재 생활수준	(            )
4) 거주하는 집	(            )
5) 가정 생활	(            )

문14(EQ7). 귀하께서는 다음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일상에서 진심으로 즐거운 일들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 대체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3)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15(EQ20).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발생하지 않음	드물게 발생	1년에 여러 번	한달에 여러 번	일주일에 여러 번	매일 발생
1)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해야 할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으로 인하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16(EQ25). 다음 중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집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항목	예	아니오
1) 공간 부족	①	②
2) 창문, 문, 바닥의 부패	①	②
3) 벽이나 지붕에 습기가 차거나 물이 샘	①	②
4) 실내 수세식 화장실 부족	①	②
5) 목욕 또는 샤워 시설 부족	①	②
6) 난방, 냉방 등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 부족	①	②

문17(EQ3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문18(EQ32).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문19(EQ3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조심해야 함)에서 10(매우 신뢰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문20(EQ3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많음	어느 정도 있음	없음
1) 빈곤층과 부유층	①	②	③
2) 경영진과 근로자	①	②	③
3) 남성과 여성	①	②	③
4) 노인과 청년	①	②	③
5) 다양한 인종 및 민족	①	②	③
6) 다양한 성지향성	①	②	③

문21(EQ35).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

1(전혀 신뢰하지 않음)에서 10(매우 신뢰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국회	( )
2) 사법 제도	( )
3) 뉴스 매체	( )
4) 경찰	( )
5) 정부	( )
6) 지방 자치 단체	( )
7) 은행	( )
8) 인도주의 및 자선 단체	( )

문22(EQ36). 귀하께서는 다음 문장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사회에서 겉도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요즘의 삶이 매우 복잡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몇몇 사람들은 나의 직업이나 수입을 보고 나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에게 친밀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문23(EQ40).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중 누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없음
	①	②	③	④
1) 아플 때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2)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 혹은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①	②	③	④
3)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①	②	③	④
4)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한 경우	①	②	③	④
5) 비상 상황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①	②	③	④
6)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①	②	③	④

문24(EQ41). 귀하께서는 노후에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1(전혀 걱정하지 않음)에서 10(매우 걱정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문25(EQ42, 43). 귀하께서는 다음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참여하시는 경우, 일주일에 총 몇 시간 정도를 참여하십니까?

항목	문25_1. 참여 횟수					문25_2. 참여 시간
	전혀 안 함	거의 안 함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일	주당 참여 시간
1) 자녀 돌보기 또는 자녀 교육	①	②	③	④	⑤	주당 ( ) 시간
2) 요리 또는 집안일	①	②	③	④	⑤	주당 ( ) 시간
3)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약한 75세 미만의 가족, 이웃 또는 친구 돌보기	①	②	③	④	⑤	주당 ( ) 시간
4)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약한 75세 이상의 가족, 이웃 또는 친구 돌보기	①	②	③	④	⑤	주당 ( ) 시간



문31(EQ52). 귀하께서 지난 2주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분을 어느 정도 느끼셨습니까?

항목	없었음	거의 없었음	절반 미만	절반 이상	대부분	항상
1) 나는 특히 신경이 날카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낙심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다음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문32(EQ54). 귀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각 문제별로 한 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심각함	보통임	심각하지 않음
1) 소음	①	②	③
2) 대기의 질	①	②	③
3) 길거리에 놓인 쓰레기	①	②	③
4) 극심한 교통량	①	②	③

문33(EQ55). 귀하께서는 다음 문장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각 문장별로 한 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나는 해가 진후에 현재 내가 사는 지역을 혼자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문34(EQ56). 귀하께서는 물리적인 접근성, 거리, 영업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의 서비스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십니까? 각 서비스별로 한 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어느 정도 쉬움	매우 쉬움
1) 은행 시설(예. 은행 지점, ATM 등)	①	②	③	④
2) 대중교통 시설(예. 버스, 지하철, 트램, 기차 등)	①	②	③	④
3) 영화관, 극장 또는 문화 시설	①	②	③	④
4) 휴양지 또는 녹지 지역	①	②	③	④
5) 식료품 가게 또는 슈퍼마켓	①	②	③	④
6) 재활용품 수거를 포함한 재활용 서비스	①	②	③	④
7)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8) 초등학교	①	②	③	④

문35(EQ58).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열악함)에서 10(매우 우수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의료 서비스	(            )
2) 교육 제도	(            )
3) 대중 교통	(            )
4) 육아 서비스	(            )
5)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	(            )
6) 국민 연금 제도	(            )

♣ 다음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36(EQ59).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 열악함)에서 10(매우 우수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일반 병원 또는 보건소	(            )
2) 대형(종합) 병원	(            )

문37(EQ6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일반병원 또는 보건소에 대해 다음 문장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10(매우 동의함)까지의 숫자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1)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            )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            )

문38(EQ60). 지난 12개월 동안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께서 다음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 또는 가족이 모두 이용한 경우, 중복 응답 가능합니다.

항목	본인	가족	이용 안 함
1) 일반병원 또는 보건소	①	②	③
2) 응급 의료	①	②	③
3) 대형(종합) 병원	①	②	③

문39(EQ61). (모든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가장 최근에 일반 병원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셨습니까?

항목	매우 어려움	약간 어려움	어렵지 않음
1) 일반병원 또는 보건소까지의 거리	①	②	③
2) 진료 예약이 지연되는 정도	①	②	③
3) 진료일에 진료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	①	②	③
4) 진료 비용	①	②	③
5) 업무 또는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한 진료 시간대 조율	①	②	③



문44(EQ81).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다음 요소들에 대해 만족하신 정도를 1(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 바랍니다.

1) 시설의 질(건물, 공간, 장비 등)	(            )
2)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업 의식	(            )
3) 직원들의 개별적 관심(태도, 서비스 제공 시간 등)	(            )
4)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
5) 커리큘럼 및 활동	(            )

문45(EQ82). 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이용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부담감을 느꼈습니까?  
 ① 매우 부담되었음                      ② 약간 부담되었음                      ③ 부담되지 않았음

문46(EQ8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해 다음 문장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10(매우 동의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보육 서비스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            )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            )

♣ 다음은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문47(EQ85). 귀하와 자녀 또는 가족이 다닌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1(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시설의 질(건물, 공간, 장비 등)	(            )
2) 교직원들의 전문성과 직업 의식	(            )
3) 교직원들의 개별적 관심(태도, 서비스 제공 시간 등)	(            )
4)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
5) 커리큘럼 및 활동	(            )

문48(EQ86).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학교에 대해 다음 문장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10(매우 동의함)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학교 서비스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            )
2)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            )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자녀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육아행복 국제비교 연구  
: 삶의 질 조사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 791190 485067  
ISBN 979-11-90485-06-7